



The Women's Studies

2010년 2호

| 연구논문 |

- | | |
|---------------------------------------------------------------------------------------------------------------|---------------|
| 1. 미취학 아동가족의 보육서비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재진 · 김은지 |
| 2.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자녀교육태도 비교연구 : 교차거주자의 '자문화'와 '타문화' 평가 | 송승영 |
| 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환경적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첨부 논문으로 교체) | 강정은 · 송다영 |
| 4. 젠더의 관점에서 본 농촌의 마을 공동체 재구조화 문제 | 임춘희 · 송인하 |
| 5. North Korean Gender Roles and Changes in Women : Under the Military-First Politics and the Economic crisis | Park Young-Ja |



1.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재진 · 김은지	5
2.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자녀교육태도 비교연구 : 교차거주자의 ‘자문화’와 ‘타문화’ 평가 / 손승영	37
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차이에 관한 연구 : 보육시설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 강정은 · 송다영	81
4. 젠더의 관점에서 본 농촌의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의 문제 / 임춘희 · 송인하	115
5. North Korean Gender Roles and Changes in Women : Under the Military-First Politics and the Economic crisis / Park Young-Ja	155
• 부 록	
1. 『여성연구』 발표 논문 목록(2003-2009년)	199
2. 학술지 논문모집 및 투고안내	217

Contents

- 1. Factors Influencing Childcare Choice of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Ahn, Jae-jin, Kim, Eun-ji 5
- 2. 북한의 젠더 역할과 여성의 변화 : 선군정치와 경제난 시대**
박영자 37
- 3. A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s in Educating Children between Korean Mothers and Japanese Mothers: Evaluation of Own Culture and Foreign Culture by Those Who Lived in Both Countries**
Sohn, Seong Young 83
- 4. Restructuring rural community from gender perspective**
Lim, Choonhee · Song, Inha 127
- 5. A Study on Teacher's Sense of Efficacy among Teacher of Childcare Center: Focusing the Difference by Types of Childcare Centers**
Kang, Jeong-Eun · Song, Dayoung 167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재진**, 김은지***

초 록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주당 10시간 이상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보육·교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친인척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육시설이 다음이고, 유치원과 학원의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둘째, 가족이 저소득층일수록 다른 보육형태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인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관 이용보다는 친인척보육 이용 가능성이 높고,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도출된다. 첫째, 보육시설이용에 있어서 취업모기준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가 전일제 및 초과근로 등을 하는 여성들에게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육아지원기관이 민간 학원과 구분되는 공공서비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와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취학아동 가족에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미취학아동 가족, 보육·교육서비스 선택, 보육·교육서비스 유형, 여성가족패널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0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lemures76@hanmail.net)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kimeunji@kwidimail.re.kr)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둔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국의 보육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21년 태화 사회복지관의 탁아서비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보육서비스 이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1980년대 도시 저소득층 기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증하면서 이들 취업모 자녀의 방치문제가 대두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으며, 보육문제는 곧 빈곤의 문제로 인식되었다(김윤정·문순영, 2009). 그러나 당시에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인프라 구축은 매우 미흡하였으며, 민간 비영리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집단 돌봄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던 중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사업은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비로소 공공서비스로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 이후 보육시설은 급격히 증가하여, 1991년 3,69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89,441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던 것이, 2009년 말 현재에는 35,550개소에서 1,175,049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으며 자라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편, 보육시설 증가에 따라 영유아의 기관이용이 일반화되면서 보육시설 이외에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교육서비스가 증가하였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 외에 유치원과 사설학원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래 유아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했던 유치원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종일반 확대

1)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육서비스를 친인척보육,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육서비스는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영유아의 특성상 교육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보육의 기능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도 종일반 강화와 반일제 이상 운영 등을 통해 아동에게 실질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을 통해 보육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보육시설과 기능상 유사해진 부분이 있으며²⁾, 또한 조기 영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와 정규 교육·보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 등을 배경으로 등장한 유아대상 반일제 학원은 보육·교육기관의 하나로 학부모들에게 인식되고 있다(이정원·이윤진, 2008). 그러나 보육시설과 유치원, 반일제 학원은 이용시간과 비용, 접근성 등에 있어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한, 기관을 통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외에도 아동의 연령이 아직 어리거나, 부모의 일하는 시간이 길거나, 비용 또는 기타 양육신념 등의 이유로 친인척보육 등 개인대리보육을 이용하는 부모들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 반일제 학원, 친인척보육 등 여러 유형의 서비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부모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과연 정부가 의도한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면서 공공서비스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즉, 정부가 지난 5년 간 부모의 보육료·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다’고 푸념하고, 제도적 지원과 감독을 받지 못하는 반일제 학원이나 친인척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주변에 아이를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녀를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만한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다거나(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 2009),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적 수준에 대해 불만족하기 때문에, 혹은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일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이 아닌 가족 중에는 보육·교육서비스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무료 친인척보육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는 맞벌이 부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종일반 운영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 3월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중 종일반에 다니는 유아에게 국공립 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 추측일 뿐, 지금까지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밝힌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들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보육·교육서비스의 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부모가 선택한 보육·교육서비스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아동을 둔 가족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비스 선택이란 이용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들 가운데 개별 가족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정부가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상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부모가 선택한 보육·교육서비스가 부모의 ‘선호’를 항상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로는 선호하는 보육·교육서비스의 유형이 너무나 비싸거나 주변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보육서비스를 항상 선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 아동을 둔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은 개별화된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가족의 상황을 맞추거나(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이용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거하는 과정(process of elimination)을 거쳐 남은 서비스를 하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보육·교육 관련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나 출산율이 제자리 상태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의 선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서비스의 선택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일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과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 중 특정 유형의 기관

(국공립/민간 등)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술적 수준의 연구들이 다수 있다(김은숙, 2001; 서형미, 2002; 이경선·김주후, 2009; 임유경, 2008; 최영훈, 2008; 최인선, 2006).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김지경, 2004a, 2004b; 서문희·임상현·김유경, 2001; 백선희·조성우, 2005)의 경우에도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기관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친인척보육 등 개인대리 보육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특히 이들 연구들에서는 구체적인 두 보육·교육서비스형태를 매칭(matching)하여 대비시키지 않고 한 보육·교육서비스 선택과 비선택을 비교하고 있어, 각 보육·교육서비스 형태의 기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다. 예컨대 보육시설 대신 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와 친인척보육을 선택하는 경우 선택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나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모의 취업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결과에서 이 변수의 영향력이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으나, 모의 노동시간과 관련된 변수는 분석범주로 다루고 있지 않아 취업모의 시간요구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취학아동이 이용하는 주요 보육·교육서비스를 크게 친인척보육³⁾, 보육시설,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으로 구분하고, 이와 같은 보육서비스를 주 10시간 이상⁴⁾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아동 가족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의 주요한 분석범주에서 자주 누락되었던 친인척보육과 유아대상 학원이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육서비스 유형을 매칭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여러 차례 실시함으로써, 각 보육·교육서비스를

3) 친인척보육 외에 유급도우미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한국사회에서는 유급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가구가 매우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 전국 보육실태조사(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 2009)에서는 친인척이 아닌 유급도우미를 활용하는 경우는 전체 영유아의 2.4% 수준으로 빈도가 매우 낮았으며, 이 응답이 중복응답을 포함한 수치임을 감안하면 유급도우미를 주요 보육형태로 이용하는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급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4) 10시간이라는 기준은 기존연구(Early & Burchinal, 2001; Morrissey, 2008)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Ⅲ. 연구방법'의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에서 다룬다.

이용하는 가족의 특성을 다른 보육·교육서비스 형태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모의 취업여부를 넘어서서 부모의 노동시간을 중요한 독립변수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국외에서는 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선택과 관련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인과관계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선택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이들 변수를 노동시간 변수, 계층 변수, 가족 특성 변수, 아동 관련 변수, 지역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⁵⁾. 다음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노동시간 변수

보육서비스는 본래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한 탁아서비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노동시간과 관련된 특성은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5) 이들 변수 외에도 부모의 선호와 신념도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부모가 선호하는 보육서비스의 특성(Early & Burchinal, 2001),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Blau, 1991, Folk & Yi, 1994에서 재인용), 양육신념(Johansen, Leibowitz, & Waite, 1996), 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NICHHD, 1997; Sylva et al., 2007) 등이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은 분명 보육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이들 변수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서비스 관련 특성(비용, 서비스의 질, 이용가능 시간 등)을 선택의 영향요인으로 보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같은 유형의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보고, 부모들이 각 유형의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비스 유형과 서비스 특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특성은 선택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는 모의 취업이 보육시설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김지경, 2004a; 백선희·조성우, 2005; 서문희 외, 2001), 아직까지 국내 연구는 모의 취업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모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대부분 기관보육간의 선택에만 집중하고 친인척보육을 분석하지 않아, 노동시간이 매우 긴 한국사회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는 여성들의 시간부족문제를 친인척보육이 어떻게 완충하고 있는가는 본격적인 분석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취업여부를 넘어서서 노동시간과 보육서비스 선택 간의 관련성이 다양하게 연구된 바 있다. 양부모 가족의 2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 유형을 조사한 Caruso(1992)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짧은 어머니들은 아버지나 친인척 등 가정 내 보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노동시간이 긴 어머니들은 기관 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Seo, 2003에서 재인용). 또한 Peyton, Jacobs, O'Brien & Roy(2001)의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이 짧은 어머니들은 시설, 종사자의 훈련정도, 물리적 환경, 교육적 요소 등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비용, 운영시간, 위치와 같은 현실적인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한편, 부의 노동시간도 모가 일하는 동안 부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의 양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부 연구(예컨대 Sylva et al, 2007)에서는 아버지가 제공하는 보호도 보육·교육서비스의 한 형태로 분류하여 종속변수에 포함시키기도 하나, 한국의 경우 남성의 가족 내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별도의 종속변수로 다루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에 부의 노동시간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6) 한편, 절대적인 노동시간 외에도 노동을 하는 시간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가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야간 및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 이들의 보육서비스 이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기관보육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 비용이 높은 미국의 경우, 일부 부모들은 보육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비전형적인 노동시간을 택함으로써, 부부간 양육을 분담하기도 한다(Gornick & Meyers, 2003).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전략을 택하는 가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2. 계층 변수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등 가족이 속한 계층을 보여주는 변수들은 보육서비스 선택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가구소득⁷⁾은 보육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차등보육료 지원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아지면 기관 중에서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선·김주후, 2009; 김지경, 2004a; 서문희 외, 2001). 사교육의 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유아대상 학원의 경우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학원이용이 증가한다는 결과(서문희 외, 2001; 이경선·김주후, 2009)와 무관하다는 결과(김지경, 2004a), 오히려 감소한다는 결과(김지경, 2004b) 등 상반된 결과가 보고된다. 또한 비기관보육에 해당하는 친인척보육의 경우 「2009 보육실태조사」와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등 최근의 대규모 조사에서 보육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기는 하나(서문희 외, 2009, 111-113; 이삼식·최효진·오형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 2009, 418-420), 통계적 영향력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예외적으로 서문희 외, 2001). 특히 모든 연구들에서 모의 취업시간이 통제되고 있지 않아 친인척보육이용이 모의 긴 취업시간을 완충하기 위한 선택인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가족의 선택인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추가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보육비용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은 미국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7) 가족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할 때는 명목가구소득 외에 가족의 규모를 고려한 욕구대비 소득비(income-to-needs ratio)가 사용된다. 보육선택에 대한 기존 국내문헌에서는 대부분 명목가구소득을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있지만, 동일한 금액일지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른 경제적 수준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 명목가구소득을 달리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윤홍식, 2004). 특히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욕구대비소득을 지원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판별하는 준거변수로서는 명목가구소득보다는 욕구대비소득비가 보다 적합한 변수로 판단된다. 보육선택에 대한 외국 연구들의 경우 욕구대비소득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Early & Burchinal, 2001 Peyton et al, 2001; Morrissey, 200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의 연구방법에서 다룬다.

가구일수록 유료 보육서비스를, 그 중에서도 특히 기관 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arly & Burchinal, 2001; Leibowitz, Waite & Witsberger, 1988). 이는 가구소득이 높은 가족일수록 비용, 운영시간, 위치와 같은 현실적인 요인보다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시설, 종사자의 훈련정도, 물리적 환경, 교육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Peyton et al.(2001)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Sylva et al., 2007)에서도 저소득층 가족은 친인척에 의한 보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보다 소득이 높은 가족들은 유급도우미에 의한 보호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무급의 친인척보육을 이용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유급 보육, 그중에서도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⁸⁾

다음으로 모의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유치원과 학원을 이용하며 낮을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연구결과(서문희 외, 2001)가 있으나 다른 연구들은 별다른 영향력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김지경, 2004a, 2004b; 백선희·조성우, 2005). 미국 연구들의 경우에도 모의 학력이 보육서비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못하다.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인척 보육보다는 기관보육서비스나 유급도우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Fuller et al., 1996; NICHD, 1997), 기관보육보다 가정보육(다른 이의 집에서 유급도우미에 의한 보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Johansen, Leibowitz와 Waite, 1996).

3. 가족 특성 변수

가족구조도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8) 한편 미국 사회에서 또다른 중요한 계층변수인 인종은 보육서비스 선택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나는데, 흑인 아동의 경우 친인척보육의 이용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Early & Burchinal, 2001), 대체로 유럽계 미국 어머니들은 규제를 받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수인종집단의 어머니들(라틴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규제를 받지 않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eo, 2003).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일수록 친인척보육을, 고소득층일수록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부모 가구의 경우, 국내 연구에서는 한부모인 경우 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서문희 외, 2001), 이는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한국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자가족보다는 양부모가족이 기관보육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uller et al., 1996). 이는 한부모의 경우 비용이나 지리적 위치 같은 현실적인 요인(practical factors)을 더 중시하는 반면, 양부모가족은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quality)을 더 중시한다는 결과(Turner & Smith, 1983; Turner & Ballegos, 1984, Peyton et al., 2001에서 재인용)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보육서비스 선택 행태가 다를 것을 고려하여 양부모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가구 내 자녀수는 돌보아야 할 다른 자녀의 존재와 전체적인 보육서비스 비용의 희석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연구의 경우 미취학아동수가 많을수록 기관이용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백선희·조성우, 2005)가 있으나, 기관이용과 무관하다는 결과(김지경, 2004a)도 보고되고 있다. 보육기관 이용비용이 높은 미국의 경우 오히려 가구 내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관보육보다는 가정 내 친인척 보육이나 아버지에 의한 보호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ICHD, 1997), Johansen et al(1996)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많은 가족들이 가정 내 보호와 혈연에 의한 보호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 경우 기관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하므로 한 명의 양육자가 여러 명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Leibowitz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가구 내 18세 미만 자녀수는 유아의 기관 이용 및 기타 유료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 내 순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이들이 유아를 돌볼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세대에 따른 가족구분을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으나, 세대에 따른 가족형태는 기관보육 간 선택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김지경, 2004a, 2004b; 백선희·조성우, 2005). 다만 친인척보육을 선택하는 데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구내 성인 수가 많을수록

친인척 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서문희 외, 2001). 미국의 경우에는 가족구조의 영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는 취업 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Leibowitz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가구 내 함께 사는 다른 성인의 존재가 영아의 유아의 기관 이용 및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내 성인이 하나의 보육서비스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혈연에 의한 보호는 가구 내 다른 성인이나 십대 자녀가 함께 살고 있거나, 30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Eichman & Hofferth, 1993; Floge, 1985; Hofferth & Wissoker, 1992; Lehrer, 1983; Meyers & van Leuwen, 1992, NICHD, 1997에서 재인용). NICHD(1997)의 연구에서도 가구 내 동거하는 혈연이 있는 경우 조부모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 관련 변수

아동의 특성도 보육서비스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 등이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아동의 연령은 보육서비스 선택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영아의 경우 집단보호보다는 개인적인 일대일 돌봄이 더 적합하다는 믿음이 있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들이 보육서비스의 돌봄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에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린 아동일수록 가정보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ungello & Kurtz-Costes, 1999; Seo, 2003).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아의 경우 친인척보육에 비해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경선·김주후, 2009; 김지경, 2004a; 서문희 외, 2001; Early & Burchinal, 2001).

아동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은 일관되지 못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미국 연구에서 여아들은 비혈연에 의한 보육 또는 기관 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거나(Hiedemann, Joesch, & Ross, 2004, Sylva et al., 2007에서 재인용),

가능성이 오히려 낮거나(김지경, 2004b; Fuller, Holloway & Liang, 1996) 혹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2004a).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의 기질이 보육서비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은데, Sylva et al(2007)에 따르면, 영아의 기질은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는 영향을 미쳤으나(더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이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이용 중인 보육서비스 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그들이 검토한 대다수의 연구들도 영아의 기질과 보육서비스 선택 간의 관계를 밝혀 내지 못했다(Mulhish, Moss, Mooney & Martin, 1991; Volling & Belsky, 1993, Sylva et al., 2007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아동의 출생순위는 영국에서 이루어진 Sylva et al(2007)의 연구에서 이용 중인 보육서비스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개월인 아동이 첫째인 경우에는 기관보육보다는 유급도우미나 이웃 등에 의한 개인대리보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둘째나 셋째 이상의 아동인 경우에는 기관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⁹⁾.

5. 지역 변수

가족이 놓여있는 주변 환경은 지금까지 비교적 탐색되지 않은 영역이나 직·간접적으로 가족의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보육서비스 선택은 주위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령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육서비스의 유형이 있더라도 주변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특정 유형의 보육서비스가 얼마나 잘 발달되었는지에 대한 차이가 보고되고 있는데, 동남부 지역에는 이용가능한 기관보육서비스가 더 많은 반면, 서부 지역에서는 가정보육(childcare homes)이 더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sker, Hofferth, Phillips, & Farquhar, 1991, Peyton et al., 2001에서 재인용).

9) Sylva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의한 보육도 보육·교육서비스의 주요 형태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첫째인 경우 아버지보육보다 유급도우미나 이웃에 의한 보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Leibowitz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에서 거주하는 곳의 지역적 특성이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일수록 영아의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고, 유아의 기관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시골(rural area)에 거주하는 가족은 유아의 기관 이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Leibowitz et al., 1988), 친인척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유형의 조직적인 보육서비스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tkinson, 1994; Lehrer, 1983, NICHD, 1997에서 재인용).

국내 연구 중 서문희 외(2001)의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보다 보육시설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농어촌 지역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개입기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보육서비스 선택의 영향요인을 살펴볼 때에 지역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 자료이다. 이 자료는 대규모의 여성 표본을 가지고 있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종단자료로서, 미취학자녀 보육에 대한 정보 외에도 일자리 변화, 경제활동과 일가족양립, 가족 관계, 가족 가치관, 가족관계, 일상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도 현재 3차 자료가 구축 중에 있으며 2차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는 1차년도인 2007년 자료를 대상으로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

이 자료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으로서 주당 10시간 이상 부모 외의 대리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 자료에서는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의 아동(태어난

달이 가장 빠른 아동)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응답기준 아동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하였다¹⁰⁾. 대리보육 기준으로 설정한 주당 10시간의 기준은 기존 연구(Early & Burchinal, 2001; Morrissey, 2008)에서 대리보육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수치이기도 하다. 대리보육의 형태는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친인척보육으로서 유급의 도우미를 이용하는 시간¹¹⁾과 남편이 돌보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한부모 가족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한부모 가족이 매우 소수여서 별도의 분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일수록 기관보육 이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Fuller et al, 1996) 양부모 가족과는 다른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의 정의방식은 아래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요 보육방법’이라는 4범주 명목변수로서 응답기준 아동이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친인척보육의 네 가지 중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보육 형태를 주요 보육방법으로 설정하였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과 가정보육시설이 포함되며, 직장보육시설은 사례수 부족(1명)으로 제외하였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국공립 및 민간유치원이 모두 포함된다. 학원은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과 피아노,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이 모두 포함되며, 여러 학원에 다닐 경우에는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보육형태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친인척보육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육형태를 주요 보육방법으로 설정하였다.

10) 여성가족패널에서 태어난 달이 가장 빠른 아동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것은 난선성(randomness)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2차년도 자료부터는 모든 아동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고 있다(이택면·김승연·우원규·이주영, 2009).

11) 유급의 비혈연 도우미를 통한 보육 또한 또 다른 보육선택지일 수 있다. 유급 도우미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 비용을 대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인척보육과 이용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범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구의 절대수가 매우 적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10시간 이상 대리보육 이용자 중 유급 비혈연 보육도우미를 주요 보육형태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는 8명으로, 10시간 이상 대리보육 이용자 중 0.7%에 불과하였다.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앞서 검토한 주요 선행 연구 결과 중 자료상 이용가능한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노동시장 관련 독립변수로는 모 근로형태와 부 노동시간이 투입되었다. 모 근로형태는 비근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하였다. 주 평균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0시간은 비근로, 36시간 미만은 시간제 근로, 40시간 이하는 전일제 근로, 40시간 초과는 초과근로로 구분하였다. 주평균 노동시간을 0시간으로 보고한 사람들은 모두 비취업자였고, 취업자 중 근로시간기준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을 따랐다.¹²⁾ 부 노동시간은 연속변수인 주 평균 노동시간을 그대로 투입하였다.

가족 특성으로는 빈곤여부, 부모의 교육, 모 연령, 가구원 수 변수를 설정하였다.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는 욕구대비소득비(income-to-needs ratio) (Early & Burchinal, 2001; Peyton et al, 2001; Morrissey, 2008)를 활용하였다. 욕구대비소득비는 가구소득을 해당 가구원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소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규모에 따라 동일한 소득이 다른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고, 단순한 가구소득보다는 가족규모를 반영한 욕구대비소득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조사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욕구대비소득비가 1이하인 경우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므로 빈곤층으로 정의하였고, 2이하인 경우는 빈곤층 바로 상위층인 유사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욕구대비소득비가 2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비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부와 모의 교육수준은 각기 교육년수로 측정한 연속변수로 정의하였다.

12) 취업자 분류는 공식통계마다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데, 예컨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8시간미만의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로 분류하지 않으나, 생활시간조사나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18시간 미만의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통계청 e-나라지표; 이택면외, 2009).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한 본 연구에서는 18시간 미만의 무급가족종사자도 취업자로 분류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분류를 따랐다. 한편 시간제근로 또는 단시간근로의 경우에도 분명한 통계적 기준이 정의되지 않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를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주로 40시간 또는 44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e-나라지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에 따라 36시간 미만의 취업자를 시간제근로자로 분류하였다. 좋은 정보를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모의 연령은 만 연령으로 측정하였으며, 부의 연령은 모 연령과의 높은 상관관계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가구원 수는 가구 내 19세 이하 아동 수와 20세 이상 성인 수로 각각 정의하였다. 아동 수의 경우에는 돌봄 수요와 관련된 변수로, 성인 수의 경우에는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아동 관련 변수로는 아동의 연령, 출생순위, 성별을 포함하였다. 아동의 연령은 만 연령으로 정의된 연속변수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련 변수로는 부모의 주거지역이 속한 행정단위의 지역 규모 변수를 설정하였다. 대도시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로, 중소도시는 시 지역, 농촌은 군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표 1〉 변수설정

변수		수준	설명
종속 변수	주요 보육형태	명목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보육형태, 친인척보육(동거가구원, 비동거가구원),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원(교과목학원, 예체능학원, 하나 이상인 경우 합산)
	노동 시간	명목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보육형태, 친인척보육(동거가구원, 비동거가구원),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원(교과목학원, 예체능학원, 하나 이상인 경우 합산)
독립 변수	노동 시간	모 근로형태	주평균 노동시간 기준, 비근로(0), 시간제(36미만), 전일제(36이상 40이하), 초과근로(40초과)
		부 노동시간	연속 주평균 노동시간
	계층	빈곤여부	명목 욕구대비소득(income-to-needs ratio) 기준, 빈곤(1이하), 유사빈곤(1초과 2이하), 비빈곤(2 초과)
		부 교육년수	연속 부 교육년수
		모 교육년수	연속 모 교육년수
	가족 특성	모 연령	연속 모 만 연령
		아동가구원수	연속 19세 이하 가구원 수
		성인가구원수	연속 20세 이상 가구원 수
	아동 특성	아동연령	연속 응답대상 아동 만 연령
		아동출생순위	연속 응답대상 아동 출생 순위
		아동성별	명목 응답대상 아동 성별
	지역 특성	지역규모	명목 주거 지역이 속한 행정단위 유형, 대도시(서울·6대광역시), 중소도시(시지역), 농촌(군지역)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된 보육선택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분석을 적용하였다. 다항로짓분석은 한 범주를 기준으로 다른 범주가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범주를 두 가지씩 매칭(matching)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형태를 각기 매칭하여 비교하지 않을 경우,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는 선택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예컨대 보육시설대신 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와 친인척보육을 선택하는 경우의 선택의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 있으나, 매칭이 아니라 보육시설 선택 대비선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그 차이를 희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범주를 두 가지씩 매칭하여 총 6가지 회귀식이 도출되었다. 모형 1에서는 친인척보육을 기준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확률을 계산하였다. 모형 2에서는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유치원과 학원의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친인척보육의 경우 모형 1과 부호만 반대이므로 생략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학원의 선택을 비교하였다.¹³⁾

IV. 연구결과

1. 변수의 일반적 분포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의 일반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우선 보육형태의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공식적인 육아지원기관이 가장 일반적인 대리보육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기관 중에서는 보육시설의 비율(45.5%)이 유치원(40.4%)보다 약간 높았다. 조부모 등 친인척보육의 경우에도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아대상학원의

13) 익명의 심사자의 권고에 따라 취업상태인 여성들만 뽑아서 동일한 변수투입 또는 근로시간을 연속변수화하여 재분석을 시도한 결과, 사례수의 감소로 유의수준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분석결과는 거의 동일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상태인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의 분석결과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한만큼 대리보육 형태로서의 비중은 2.9%로 가장 낮았다.

노동시장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비근로가 71.1%로 나타나 대다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노동시장참여 곡선이 M자형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미취학아동 양육 시기 여성들의 노동시장 퇴장이 일반화된 현상임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주 10시간 이상 대리보육 이용자임을 고려하면, 대리보육 이용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비근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여성들은 전체의 7.5%로 소규모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시간제근로 시장의 미발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일제 이상 근로하는 비율은 전체의 21.4%였는데, 그중에서도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로하는 경우가 11.4%로 주 40시간 이하 근로인 10.0%보다 많았다. 이는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제도가 법정화된 이후에도, 초과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부의 노동시간은 평균 50.6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훨씬 넘기고 있다.

가족 관련 변수 중에서 빈곤여부의 경우 빈곤이 4.9%, 유사빈곤이 32.2%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층 규모는 조사시점인 2007년도 절대빈곤율 5.1%(통계청, e-나라지표)와 유사한 수치로서, 저소득층을 과대 또는 과소대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의 평균 교육년수는 14.13년, 모의 평균 교육년수는 13.63년으로 나타나 양쪽 모두 전문대 졸업의 평균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 평균은 35.12세였다. 가구 내 19세 이하 아동 수는 평균 2명이며, 20세 이상 성인 가구원 수도 평균 2명으로 부부와 2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가 가장 일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 관련 변수로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5.16세로 나타났으며 평균 출생순위는 1.67번째 자녀였다. 아동성별은 남아가 52.1%, 여아가 47.9%로 남아가 약간 더 많았으나 거의 유사했다. 지역규모로는 대다수인 92.4%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은 7.6%였다. 도시 중에서는 대도시가 48.8%, 중소도시가 43.6%로 대도시가 약간 더 많았다.

〈표 2〉 기술통계

변수		사례수	비율 또는 평균 (표준편차)	변수		사례수	비율 또는 평균 (표준편차)
보육형태	친인척보육	136	11.2%	모 근로형태	비근로	862	71.1%
	보육시설	551	45.5%		시간제	91	7.5%
	유치원	490	40.4%		전일제	121	10.0%
	학원	35	2.9%		초과근로	138	11.4%
빈곤여부	빈곤	57	4.9%	지역	농촌	92	7.6%
	유사빈곤	377	32.2%		중소도시	528	43.6%
	비빈곤	737	62.9%		대도시	591	48.8%
부 노동시간		1142	50.60 (12.78)	아동가구원수		1212	2.01 (0.63)
부 교육년수		1211	14.13 (2.30)	아동연령		1212	5.16 (1.60)
모 교육년수		1212	13.63 (2.04)	아동출생순위		1212	1.67 (0.69)
모 연령		1212	35.12 (4.01)	아동성별	남아	631	52.1%
성인가구원수		1212	2.12 (0.46)		여아	581	47.9%

2. 보육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선택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친인척보육을 기준으로 각 기관을 이용할 확률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노동시장 관련 변수 중에서는 모의 근로형태만 유의미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일제와 초과근로를 할수록 기관이용을 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원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긴 어머니들은 기관 이용보다는 친인척보육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모의 근로형태 중 시간제 근로를 할 경우에는 기관이용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한편 모의 노동시간과는 달리 부의 노동시간은 기관이용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관련 변수 중 빈곤변수의 경우, 유사빈곤 상태일수록 친인척보육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과 학원 이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성인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친인척보육보다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기관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가구 내 부모 외의 성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보육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외 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연령, 아동가구원 수는 기관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특성 중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변수가 유의미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친인척보육보다는 기관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모든 기관에 대해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도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아래자녀일수록 친인척보육보다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첫째 자녀와 함께 기관에 등원시키거나, 첫째 자녀 양육의 경험이 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줄이기 때문, 또는 돌보아야 할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일찍 기관의 도움을 얻는 등의 이유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생순위별로 보육료나 교육비를 차등지원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아동의 성별 및 지역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3〉 모형 1(친인척보육 기준) 분석결과

	모형 1 (N=1104, Nagelkerke's Pseudo R ² =.461, McFadden's Pseudo R ² =.244)					
	보육시설 (친인척보육기준)		유치원 (친인척보육기준)		학원 (친인척보육기준)	
	B	Exp(B)	B	Exp(B)	B	Exp(B)
모 근로형태(비근로기준)						
시간제	0.09	1.09	0.01	1.01	0.91	2.47
전일제	-1.46 **	0.23	-2.42 **	0.09	-2.92 **	0.05
초과근로	-2.30 **	0.10	-2.91 **	0.05	-3.48 **	0.03
부 노동시간	-0.01	0.99	-0.02	0.98	-0.01	0.99
빈곤여부(비빈곤기준)						
빈곤	1.39	4.02	0.22	1.24	1.47	4.33
유사빈곤	0.86 **	2.35	-0.03	0.97	0.04	1.04
부 교육년수	-0.06	0.94	-0.02	0.98	0.05	1.06
모 교육년수	-0.06	0.95	0.01	1.01	-0.05	0.95
모 연령	0.03	1.03	0.04	1.04	0.08	1.09
아동가구원수	-0.13	0.88	-0.25	0.78	0.23	1.26
성인가구원수	-1.37 **	0.25	-1.04 **	0.35	-1.01 *	0.36
아동연령	0.61 **	1.85	1.31 **	3.69	1.04 **	2.84
아동출생순위	0.63 *	1.89	0.71 *	2.03	0.20	1.22
아동성별(남아기준)						
여아	-0.14	0.87	-0.21	0.81	-0.06	0.94
지역(농촌기준)						
대도시	0.27	1.32	0.77	2.16	1.24	3.45
중소도시	0.27	1.31	0.57	1.78	1.32	3.75

다음으로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유치원과 학원 등 교육중심 기관을 이용할 확률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우선 노동시장 관련 변수 중에서는 모가 전일제와 초과근로를 할수록 유치원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학원이용에는 모의 근로형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앞서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의 노동시간은 보육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돌봄에서 아버지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관련 변수 중에서 빈곤 여부는 유치원 이용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빈곤층 또는 유사빈곤층일수록 유치원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이용의 경우에도 방향성은 동일하였으나 통계적 유의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 외 부모의 교육, 모의 연령, 아동가구원 수, 성인가구원 수는 보육시설 대비 교육기관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특성 중에서는 아동의 연령만 유의미하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보육시설보다는 유치원과 학원 등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외 아동의 출생순위나 성별, 그리고 지역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을 기준으로 학원이용을 살펴본 모형 3의 결과는 <표 4>의 가장 오른쪽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시장 변수, 가족관련 변수, 아동관련 변수, 지역 변수 중 어떤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학원 이용자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31)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모형들(모형 1, 2)에서는 적은 사례수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변수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결론적으로 유치원과 학원을 이용하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학원을 주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부모들의 경우 사실상 이들 두 기관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모형 2(보육시설 기준) 및 모형 3(유치원 기준) 분석결과

	모형 2 1)				모형 3 1)	
	유치원(보육시설기준)		학원(보육시설기준)		학원(유치원기준)	
	B	Exp(B)	B	Exp(B)	B	Exp(B)
모 근로형태(비근로기준)						
시간제	-0.08	0.93	0.82	2.27	0.89	2.45
전일제	-0.97**	0.38	-1.46	0.23	-0.49	0.61
초과근로	-0.61*	0.54	-1.18	0.31	-0.57	0.57
부노동시간	-0.01	0.99	0.00	1.00	0.01	1.01
빈곤여부(비빈곤기준)						
빈곤	-1.18**	0.31	0.07	1.08	1.25	3.49
유사빈곤	-0.89**	0.41	-0.82	0.44	0.07	1.07
부교육년수	0.04	1.04	0.11	1.12	0.07	1.07
모교육년수	0.07	1.07	0.01	1.01	-0.06	0.94
모연령	0.00	1.00	0.05	1.05	0.05	1.05
아동가구원수	-0.12	0.89	0.36	1.44	0.48	1.62
성인가구원수	0.33	1.40	0.36	1.44	0.03	1.03
아동연령	0.69**	2.00	0.43**	1.54	-0.26	0.77
아동출생순위	0.07	1.08	-0.43	0.65	-0.51	0.60
아동성별(남아기준)						
여아	-0.06	0.94	0.08	1.09	0.15	1.16
지역(농촌기준)						
대도시	0.50	1.64	0.96	2.62	0.47	1.60
중소도시	0.30	1.36	1.05	2.86	0.75	2.11

1) 사례수 및 Pseudo R²값은 모형 1과 동일.

3. 결과 요약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는 6개의 회귀식 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만을 뽑아 영향 요인에 따른 보육유형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로서의 기능이 가장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친인척보육은 어린 아동에게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모의 긴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서비스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유치원과 학원의 경우 연령이 높은 미취학아동들이 이용하는

교육서비스로서 위치매김하고 있는데, 유치원과 학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영향요인에 차이가 거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두 기관을 이용하는 집단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부모들이 두 기관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보육서비스 선택 결정요인 요약

영향요인	보육서비스 순위
모가 전일제, 초과근로일수록	친인척보육 > 보육시설 > 유치원, 학원
저소득층일수록	보육시설 > 친인척보육, 유치원, 학원
성인가구원수 많을수록	친인척보육 >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아동연령 높을수록	유치원, 학원 > 보육시설 > 친인척보육
아래자녀일수록	보육시설, 유치원 > 친인척보육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 중 주당 10시간 이상 대리보육을 이용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노동시장 요인 중에서 모가 전일제와 초과근로를 할수록, 즉 모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친인척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육시설이 다음이고, 유치원과 학원의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유치원과 학원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김지경, 2004a; 백선희·조성우, 2005; 서문희 외, 2001)를 넘어서서, 단순히 취업여부보다는 장시간근로 유무가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모의 노동시간이 길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관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미국의 선행연구(Carusio, 1992)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결국 한국에서는 보육시설이 취업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일정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여성들의 긴 노동시간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일제 이상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기관 중에서는 유치원이나 학원보다는 보육시설이 장시간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만, 보육시설의 스케줄이 긴 노동시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여 친인척보육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친인척보육이 저소득층의 주요 보육서비스로 활용되기 보다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완충지대로 기능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둘째, 가족이 저소득층일수록 다른 보육형태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저소득층은 보육시설을, 소득수준이 높으면 유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선행연구(이경선·김주후, 2009; 김지경, 2004a; 서문희 외, 2001)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탐색되지 않은 친인척보육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앞서 노동시간에 대한 결과와 함께 해석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친인척보육은 저소득층이 보육비용을 아끼기 위한 목적보다는 긴 노동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보육형태로서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관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미국의 선행연구(Early & Burchinal, 2000) 결과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대부분이 사적 시장에서 제공되어, 기관이용의 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미국의 상황과, 보육시설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는 하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가 상당 부분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일수록 보육료 지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높고 친인척보육은 보육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 반면, 미국은 보육시설 이용 비용이 높기 때문에 부모 보호나 친인척 보호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관 이용보다는 친인척보육 이용 가능성이 높고, 아동의 연령이 높고 아래 자녀일수록 기관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이경선·김주후, 2009; 김지경, 2004a; 서문희 외, 2001; Early & Burchinal, 2001; Leibowitz et al., 1988; NICHD, 1997; Pungello & Kurtz-Costes,

1999, Sylva et al, 2007)와 일치한다. 즉,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부모들도 가구 내 다른 성인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을 도와주는 보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린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기능보다는 ‘가정에 가까운’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중에서도 유치원과 학원의 경우 대리보육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연령이 높은 미취학아동들이 이용하는 교육서비스로서 위치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이 종일반 확대 등을 통해 보육기능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부모들은 유치원을 연령이 높은 아동의 교육기관으로서 선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치원과 학원의 기능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먼저 보육시설의 취업모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외연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모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보육료 지원이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저소득층의 이용률을 높이는 유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저소득층일수록 기관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국의 상황에 비하면 저소득층의 진입장벽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중에서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욕구가 없는 비취업모에게도 비용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우선 입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소득에 기반한 욕구와 보육서비스 필요에 기반한 욕구를 구분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육비 지원의 폭이 커지는 차등보육료 지원 구조는 유지하면서,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취업모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김혜원 외(2007)가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스웨덴의 사례¹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비취업모의 아동에 대해서는 반일제의 권리만을 부여하고 비용도 차등화시키며, 국공립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취업모 우선의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등 취업모

14) 취업모를 지원하는 보육시스템이 잘 발달한 스웨덴의 정책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이용에 대해 취업모의 권리를 우선 할당하고 있으며, 비취업모에게는 공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보육서비스가 취업모에 대한 지원서비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김혜원 외, 2007).

지원 기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¹⁵⁾

보육시설이 보편적 서비스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일하는 여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들의 긴 노동시간과 대도시에서 일상화된 장시간의 출퇴근 등을 고려할 때 취업모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시설이 하루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늦은 시간에는 남아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음으로 인해 취업모들은 이른 아침부터 혹은 늦은 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담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부담은 비취업모들의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높은 것과도 관련되는데, 비취업모의 자녀들은 하루 평균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6시간 57분으로 나타나는 반면, 취업모의 자녀들은 8시간 38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문희 외, 2009), 상대적으로 취업모들은 자신의 자녀들만 보육시설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전일제 및 초과근로 등을 하는 여성들에게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등 연장보육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 조달과 관리 등 현실적 조치를 통해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¹⁶⁾

15)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p67)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이용순위의 1, 2순위 항목 중 2개 이상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배수 반영 등의 방법으로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겠다는 등의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 맞벌이 가족의 경우 두 가지 1순위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 우선적인 입소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맞벌이와 저소득층을 함께 1순위로 지정하고 있는 현행 체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국공적으로는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16) 실제로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시설조사보고서』 (유희정외, 2009: 126-127)에 따르면, 보육시설들이 야간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지역·시설특성상 구직자가 없다(36%)’, ‘자격소지자를 찾기 어렵다(15.9%)’ 등으로, 인력조달과 관리에 대한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야간보육교사가 원하는 ‘희망보수가 높다’는 경우도 22.4%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야간보육교사 인력조달과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들이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시간연장보육이나 야간보육을 통해 부모의 노동을 지원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부모가 하루에 일정 시간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족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주 평균 50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어 자녀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축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이러한 근무형태가 여성에게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미취학아동 가족의 일가족 균형을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정책 방향이며,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해당된다.

한편, 국가의 공식적 지원과 규제를 받는 유치원과 시장에서 제공되는 민간 서비스인 유아대상 학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요인이 거의 같게 나타난다는 것은 부모들이 이들 두 서비스를 유사한 맥락에서 선택하고 있으며, 두 가지 서비스 유형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존연구(이정원·이윤진, 2008)에서도 부모들이 유아대상 반일제 학원과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기능상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대상 학원을 두고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와 같은 명칭이 부모들 사이에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것도 부모들의 인식을 혼란케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모들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이 공공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이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유아대상 학원에 대해 일정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친인척 보육의 선택확률이 높아지는 점과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개별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이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모의 근로시간이 긴 경우 다른 서비스로는 근로시간을 모두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 다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질적 수준을 갖춘 보육·교육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취업모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취업모 우선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숙(2001).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문순영(2009). “영유아 돌봄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8(2), 221-260.
- 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지경(2004a).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8), 65-76.
- 김지경(2004b)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7-86.
- 김혜원·김경희·이주희·최은영(2007)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영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 한국노동연구원.
- 백선희·조성우(2005)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수준과 결정요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 429-455.
- 보건복지부, 2009. “2009년 보육통계” <http://www.mw.go.kr>.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임상현·김유경(2001). “자녀양육실태와 미취학아동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1-265.
- 서형미(2002). 유아교육 기관 선택시 고려요인과 선택과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외(2009)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육시설방문면접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 이경선 · 김주후(2009). “여성의 유치원 · 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0), 464-473.
- 이삼식 · 최효진 · 오형희 · 서문희 · 박세경 · 도세록(2009).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원 · 이윤진(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택면 · 김승연 · 우원규 · 이주영, 2009 제 1차 여성가족패널자료 사용자 안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임유경(2008).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훈(2008).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선(2006).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7.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62).

- Early, D. M. & Burchinal, M. R. (2001). Early childhood care: relations with family characteristics and preferred care characteristic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 475-497.
- Folk, K. F. & Yi, Y. (1994). Piecing together child care with multiple arrangement: crazy quilt or preferred pattern for employed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69-680.
- Fuller, B., Holloway, S., & Liang, X. (1996). Family selection of child-care centres: the influence of household support, ethnicity, and parental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7, 3320-3337.
- Gornick, J. C. & Meyers, M. K.(2005). *Families that work*.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Johansen, A. S., Leibowitz, A., & Waite, L. J.(1996). The importance of child-care characteristics to choice of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759-772.
- Morrissey, T. W.(2008). Famili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multiple child care arrang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0, 549-563.
- Leibowitz, A., Waite, L. J., & Witsberger, C.(1988). Child care for preschoolers: differences by child's age. *Demography*, 25(2), 205-220.
- Peyton, V., Jacobs, A., O'Brien, M., & Roy, C.(2001). Reasons for choosing child care: associations with family factors, quality, and satisfac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 191-208.
- Pungello, E. P. & Kurtz-Costes, B. (1999). Why and how working women choose child care: a review with a focus on infancy. *Developmental Review*, 19, 31-96.
- Seo, S. J. (2003). Early child care choices: a theoretical model and research implication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3(6), 637-650.
- Sylva, K., Stein, A., Leach, P., Barnes, J., Malmberg, L. E., & the FCCC-team(2007). Family and child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non-maternal infant care: an English stud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 118-136.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7). Famili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onmaternal care for infa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89-408.
- Vincent, C., Braun, A., & Ball, S. J. (2002). Childcare, choice and social class: caring for young children in the UK. *Critical Social Policy*, 28(1), 5-26.

Factors Influencing Childcare Choice of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Ahn, Jae-jin^{*}, Kim, Eun-ji^{**}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childcare choice of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who use childcare service more 10 hours a week. The first wave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were used for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mothers with longer working hours were most likely to use personal carers, and they prefer childcare facilities to kindergartens or for-profit private institutes (hakwon). Secondly, the poor and near-poor families tend to use childcare facilities more than other types of childcare. Thirdly, the number of adults in the household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use of personal carers, and Lastly, parents were more likely to choose institutional childcare for older children.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childcare facilities were needed to accommodate full-time and overtime working mothers. Secondly, more family-friendly atmosphere at workplace and in society as a whole should be established which supports child-rearing of parents. Lastly, child-rearing facilities with governmental support and supervision (that is, childcare facilities and kindergartens) should be recognized as public service and more support and extensive promotion were needed for these child-rearing facilities distinguishable from for-profit private institutes.

Key words: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childcare choice, type of childcare, 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 Professor, Sookmyung University

^{**} Research Fellow, KWDI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자녀교육태도 비교연구: 교차거주자의 ‘자문화’와 ‘타문화’ 평가*

손승영**

초 록

한국과 일본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자녀교육을 위한 모성을 중시한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 한일 양국은 가족의 구성이나 가족관계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유포, 부계혈통주의의 유지, 자녀에 대한 가족의 기대, 어머니의 역할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교차거주를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가족주의와 모성이 자녀교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주목적이다. 조사대상자로는 최소한 1년 이상 외국인 일본이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유치원 이상 연령층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들로 국한해서 이 어머니들이 ‘자문화’와 ‘타문화’를 어떻게 평가하며 비교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심층면접결과, 첫째, 조사에 참여한 한일 어머니들은 모두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교육경쟁이 치열하며 대학입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한국에서는 대학입시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므로 결과로서의 공부 성적이 중요한 반면, 일본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한국과 일본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였으나, 한국 엄마들은 ‘교육매니저’로서의 정보수집과 자녀의 학습적 측면을 강조하고 일본 엄마들은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에도 치중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제어: 한일 비교, 자문화, 타문화, 자녀교육태도, 교육열, 도구적 모성, 지원적 모성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2년간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KRF-2007-327-H00041).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및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sysohn@dongduk.ac.kr)

I. 서론

한국사회는 ‘학벌사회’로 불릴 정도로 학력이 중요하게 인정되어 왔으며(김상봉, 2004), 대학입시를 둘러싼 경쟁적인 교육열은 가정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차원에서는 아동기부터 충당해야 하는 양육비와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며, 중상층 이상의 가족은 영어유치원 교육과 조기유학 등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경쟁적인 교육열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성, 공교육의 위상 실추, 부의 세습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김창호, 1997; 김홍주 외, 1999). 이에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과도한 사교육비가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치중해서 이 문제를 주로 다루다보니 자녀교육의 주체인 가족과 부모 역할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문화적 맥락에서 연구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함과 동시에 가족 가치관이 교육열의 확산과 유지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이 교육열을 높이는 ‘일반화된 신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서 부모 중에서도 실질적인 자녀교육 담당자인 어머니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울러 자녀사회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일 비교연구를 통해 학벌사회의 징후가 가족의 기대와 연계되어서 자녀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문화적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일본은 삼·사십년 전만 해도 한국과 유사하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였으나, 오늘날은 상당히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일본과의 비교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특히 ‘일본에서 자란 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 어머니들’과 함께 ‘한국에서 자란 후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어머니들’을 심층면접 대상으로 선정해서, 양국에서의 교차거주 경험을 통해 어머니들 스스로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자국민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일상에서

의 문화적 특수성을 타인의 눈으로 새롭게 밝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부분에서는 한일 양국 어머니들의 면접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교육열과 어머니의 자녀교육태도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한국의 가족에서 모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주의 전통의 한일 비교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 가족형태로부터 급속히 변화해서 핵가족이 주류이지만, 서구사회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가족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위주의 가족가치관을 인정하는 서구사회(Steinhoff, 1994)와 비교할 때 한국과 일본은 가문, 가풍, 집안의 명예 등 가족위주 가치관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손승영, 1997). 동양사회에서는 개인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가족 위주의 총체적이고 집합적인 가치관을 중시함으로써, 가족주의 전통이 강조되어 왔고 가족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해서 사회조직의 근간이 되어왔다(니스벳, 2004).

하지만 한일 양국 가족의 성격이나 기능은 다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국 가족이 혈연중심적 특징을 강하게 띠다면, 일본 가족은 ‘이에³⁾(家)’ 중심으로 공동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한일 양국은 가족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나 개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혈연자만이 가족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일본에서는 혈연 계승의 원리를 넘어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도제와 같은 비혈연자도 가족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등 가계 계승에 역점을 두는 직계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권용혁, 2004). 일본의 ‘이에’는 비친족원을 포함한 거주자들의 생활공동체를 뜻하므로 한국과 달리 개인의 혈통 계승보다는 집단의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이에는 “혈연집단은 아니지만 혈연과 같은 것으로 포섭된 자의 집단 또는 계약에 의한 친족관계”로 정의된다(문옥표, 1994:16).

한국에서는 부계혈통주의에 기초를 두고 혈통중심적이고 ‘집안중심적 가족주의’의 특징을 유지해왔다면, 가업의 계승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컸던 일본가족에서는 충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차집단에 대한 헌신과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족이라는 좁은 단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한다(나카네 지에, 1994). 이와 같이 현대 일본에서의 가족주의 개념과 ‘가족적 가부장제 질서’는 개별 가족을 넘어서 정치, 기업, 기타 조직의 통치구조와 조직원리 설명에 유용한 개념이다(이진원, 2004: 475). 한국의 ‘집안중심적 가족주의’와 달리 일본에서는 넓은 범주의 조직원리가 강조되어서 유사가족적 관계가 중시되는 ‘집단가족주의’ 또는 ‘국가가족주의’로 칭해지기도 하였다(문준호, 1988).

한국에서는 유교의 영향이 커서 족보라는 가계도를 중심으로 부계혈통주의를 유지하는 경향성과 남성우월주의 사상이 두드러진 사회로 지적되고 있다(스즈키 고지 외, 2009: 144-146). 한국에서는 가족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는 유교에 기반한 전통적 규범이 기층문화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고도 경제성장 이후 ‘이에’가 붕괴하면서 가족형태의 핵가족화와 더불어 조상제사가 가계 중심에서 쌍계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스즈키 고지 외, 2009: 153). 특히 일본에서는 패전 후 전통적 가족제도가 약화되었고 부계혈연 중심성이 한국보다 약해서 부부나 개인의 가치 및 취향에 입각한 선택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 1994년에 부부별성제를 도입해서 자녀의 성을 출생시에 부부가 협의하여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한쪽의 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양현아, 1998)이나 시댁의 권위가 한국에 비해 덜 강조되는 점 등이 차이점이다(문소정, 2002).

이외에도 일본의 가족의식이 한국에 비해 더 유연한 형태로 작동되고 있음이 국제비교조사 결과 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국립여성교육회관이 0-12세 자녀를 가진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2005년에 실시한 가정교육 관련 6개국(한국, 일본, 태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비교조사에서 “장래 자녀에게 바라지 않는 가족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가족가치관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으며, 일본에 비해 정상가족이데올로기 규범을 강하게 수용하고 있었다. 한국 응답자의

90% 이상이 장래 자녀에게 바라지 않는 가족상이 ‘동성애커플’, ‘미혼으로서 자녀 가짐’, ‘유자녀 이혼’, ‘혼인신고 없이 동거’, ‘일생 독신으로 살기’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다. 물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스웨덴에 비해 일본에서 훨씬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괄목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국립여성교육회관, 2006: 121; 와타나베 히데끼, 2008: 243에서 재인용).

〈표 1〉 장래 자녀에게 바라지 않는 가족상 (% , 복수응답)

국가	동성애 커플	미혼으로 자녀가짐	유자녀 이혼	혼인신고 없이동거	일생 독신	자녀갖지 않음	자녀데리고 재혼
한국	96.5	93.5	92.9	91.8	90.5	87.1	79.1
일본	76.0	62.3	69.0	45.9	69.9	60.5	33.1
스웨덴	32.3	17.6	51.1	7.0	86.1	67.3	15.3

• 자료: 와타나베 히데끼, 243쪽에서 재인용.

• 원자료: 국립여성교육회관, 2006, 헤이세이 16년도·17년도 가정교육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보고서, 121쪽.

또한 동아시아 3국의 가족의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권위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비교적 평등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사적 자율성 관련 질문에서 자신의 의견이 집안 어른의 의견과 대립될 경우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다는 데 대해 일본 응답자의 29%와 한국 응답자의 18%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일본에서는 10.8%이고 한국은 54%로 커다란 격차를 보였다(권용혁, 2004). 즉,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집안 어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수직적 관계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무려 5배나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설문결과는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가족주의 의식이 강하며 개인주의가 훨씬 약하다는 홉스테드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홉스테드, 1996).

2. 모성과 여성정체성의 한일 비교

한국과 일본이 가족주의 전통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사노동의 책임을 기대하는 가부장적 가족으로서의 면모에 있어서는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에서는 현모양처로서의 전통적인 어머니 이미지가 지속되어왔으며(Smith, 1983), 오늘날까지도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과 모성이 미화되고 있다(손승영, 2000). 정형화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성이 가장 이데올로기와 모성신화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고 있으며(이영자, 1999), 노동 강도가 높은 ‘회사인간사회(오사와 마리, 1995)’에서 남성이 가장 이데올로기가 정당화됨과 동시에 가족유지 및 지위 재생산을 위해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강요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898년 민법의 친족 및 상속편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의 강화와 함께 가사와 육아를 여성의 일로 고정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예를 중심으로 가장인 호주가 전체 가족원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이노우에키요시, 2004: 299; 종합여성사연구회, 2006: 199-200). 일본에서 여성의 교육은 메이지 후기에나 시작되었는데, 여성을 ‘양처현모(良妻賢母)’로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이노우에키요시, 2004: 303). 근대적 의미의 ‘양처현모’ 정체성은 내셔널리즘이 고양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으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은 국가적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여성을 직접 통제하는 기제로서 양처현모 개념을 활용하였다(문소정, 2002: 313).” 이때의 양처현모 정체성은 에도시대에 여성의 순종만을 강요하던 가치관과는 다르며 남존여비가 아닌 남녀동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의 근대적 국가가 형성 된 후 자녀교육의 담당은 어머니의 책임이 되었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남성은 회사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췄고 여성은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맡았다(츠위화, 2008: 333). 이러한 전통적 여성관에 대해 일본 여성들은 1960년대에는 묵묵히 받아들였으나 70년대는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80년대는 “모성에는 이제 그만”이라고 외칠 정도로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우에무라 구니코, 2005: 31-38). 전후 고도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핵가족화와 부부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여성들이 전통적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였다는 주장도 있다(주창렬, 2004: 514).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정주부'라는 전통적 패턴이 뚜렷하며, 새로운 성별분업이 강조되는 현대에도 '남성은 일', '여성은 가사와 일'로 구분됨으로써 여전히 가사는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다(문소정, 1999).

한국의 '현모양처' 개념은 일본의 '양처현모'에서 유래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아내보다 어머니 역할이 전통적으로 중시된 결과, 순서를 바꿔서 현모양처로 사용해왔다(조혜정, 1988: 100). 전통적으로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상이 주를 이루었고 최근에 와서는 정보에 능통하고 유능해서 가족 구성원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 어머니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가정주부의 주된 역할로 친족의 일이나 생계유지가 중시되었던 과거와 달리, 가정주부의 역할이 자녀 교육, 가사노동, 친지와의 관계 유지, 재산증식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서 폭넓게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Moon, 1990).

한국과 일본에서 현모양처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는 반면, 젠더 역할과 관련된 여성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한국에서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모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성의 존재가 공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국가 발전을 위한다고 표방된 모성은 공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사적인 가족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져 여성 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모성개념의 유포에 국가가 개입하였다(정진성, 1999: 262). 일본에서 모성은 여성의 가족 내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적 함의를 내포하면서도 여성을 가족과 사회 및 국가로 연결시키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 메이지 후기에 가정이라는 말로 새로운 가족이 상징되었으나, 혈통으로 가(家)를 중시함으로써 국가를 경시해서는 안 되는 점을 일본에서는 강조하였다(한국여성연구원, 2002: 131). 뿐만 아니라 국가는 여성들이 가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관해 여성의 역할을 세세하게 명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양처현모 정체성은

공적 영역인 국가나 사회와 여성의 연계에 바탕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국가 발전의 기초로서의 가족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현모양처 역할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사회와 분리되어서 강조된 가족 중심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개별 가족의 유지·계승 및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일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며 양국 여성들 모두 가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한국 여성에 비해 일본 여성들은 주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본 여성들은 임노동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자신의 가정과 가족에서의 역할을 집 바깥일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Iwao, 1993). 2000년도에 실시된 부산과 후쿠오카 지역 여성의 의식조사 결과, 대학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 중 한국여성은 자녀출산과 관계없이 계속 활동하겠다고 45.8%였으나, 고학력 일본 여성은 단지 8.8%에 그쳤다. 대신, ‘자녀를 키운 후에 복귀하겠다’는 응답이 84.2%로 거의 대다수였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단지 25.0%에 그쳤다(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2000; 문소정, 2002에서 재인용). 일본 여성들은 ‘프로페셔널 주부(professional housewife)⁴⁾’의 개념이 강해서 고학력 여성들조차도 가사의 중요성을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에 실시한 가사노동 관련 의식조사에서 가사노동을 남편과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기혼여성이 63%에 달했다(야마다 마사히로, 2010: 168). 덧붙이 여성들의 경우도 비슷해서 “가사노동은 가족성원 중에서 담당해야 한다”거나 “가사노동이 없다면 가족의 결함이 희박해진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은 아내의 애정표현이므로 애정이 없어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들이어서 ‘애처 도시락’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도시락을 직접 싸주지 않는 아내는 애정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될 정도이다. 이에 가사노동으로 애정을 표현해야 하는 암묵적 강제성이 작동하면서 일본여성들은 필요이상의 가사

4) 일본여성의 프로페셔널 주부의식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장기간 살아온 경험을 애기한 책 『일본여자를 말한다』에서 한국여성과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저자는 한국여성이 외도를 하게 되면 가사를 팽개칠 것이 쉽게 예상되지만 일본여성들은 외도를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책임과 주부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도 흐뜨리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유재순, 1998).

노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야마다 마사히로, 2010: 170). 또한 일본 여성들이 아이를 갖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성장 기회를 갖기 위해,’ ‘가족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를 이어갈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기 위해’를 내세울 정도로 아이와의 연계 자체를 강조하고 자녀양육을 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Iwao, 1993: 132). 한국여성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 자녀 양육을 친척에게 맡기기도 하고 가사도우미를 활용해서 집안일을 줄이기도 하지만, 일본 여성들은 자신의 주부 역할을 당연시하고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때로는 일본의 국가정책이 모성이나 주부의 역할 미화에 활용되기도 하는데, 어머니가 직접 도시락을 싸줌으로써 자녀와 어머니의 유대를 강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정책적으로 실천에 옮긴 예를 들 수 있다(Alison, 1991). 최근 일본에서는 남성의 육아참여와 기업 노동관행의 변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여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 젠더관계의 변화를 꾀하는 정책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마정희·이재경, 2007).

3. 자녀교육태도의 한일 비교

최근의 한국가족은 지연, 혈연, 학연과 연계해서 자기 가족의 사적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특성을 보이는 가족이기주의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최재석, 1994). 한국의 강한 가족이기주의는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이어져, 자녀의 일류대학 입학과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수준이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현철 외, 2007). 1970년대 OECD 교육조사단이 일본의 교육 실태와 내용을 조사했을 때만 해도 일본에서의 입시경쟁은 치열했으나(OECD, 1971), 21세기 일본에서는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었고 대학진학 결정에 있어서도 학생 스스로의 선택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와타나베 히데끼 외, 2006).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는 높은 소비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인류’ 개념이 젊은이를 묘사하는 용어로 등장했고, 그 이후에는 관심 분야에만 광적으로 몰입하는 ‘오타구’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일반 젊은이들의 생활상

변화가 크다(타케우치, 1995; 마츠다, 2006: 71에서 재인용). 또한 교육정책도 달라져서 1977년에 이루어진 학습지도요령의 4차 개정에서 “여유(ゆとり)와 충실”이란 용어가 도입된 이후 표준 수업시수와 교육내용이 감소된 대신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의욕이 중요시되고 있다(김보림, 2007). 1996년 7월 문부성 발표에 따라 ‘여유 교육’ 중심의 현행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되면서 지식 편향된 교육으로부터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힘을 배양하는 인간중심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학자에 따라서는 젊은 부모들의 교육열 저하와 청소년의 ‘학력저하 현상’이 발생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中村, 2000). 또한 일본의 입시경쟁이 일류대학이나 일류고등학교 응시생 등 특정 계층에 국한되어 나타나므로 계층격차가 커진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나카무라 타카야수, 2005).

2005년도에 일본의 국립여성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아동과 가족생활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희망교육연한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 부모는 45%가 자녀의 대학진학을 원하고 2.1%가 대학원까지 희망함으로써 대학이상의 학력을 바라는 응답자는 절반 이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학까지’ 56.2%와 ‘대학원까지’ 27.3%를 합치면 대학 이상 희망자의 비율은 83.5%로 일본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아들과 딸에 차등을 두고 있었으나 한국의 부모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들이 많은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⁵⁾(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가정에서의 학습시간을 조사한 2002년도 조사에서도 한국이 190분, 일본이 74분으로 한국 고등학생들의 가정 학습시간이 일본 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 길게 나타났다(후지타·와타나베, 2002; 이종각, 2005: 414에서 재인용).

부모의 자녀성공에 대한 기대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부모가 나의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한 한국고등학생이 92.8%로 높은 반면,

5) 일본 부모들은 아들이 4년제 대학을 진학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66%이었으나 딸은 단지 38%에 그쳤다. 반면 딸이 2년제 단기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20%였으나, 아들의 경우는 0%였다. 한국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서 대학까지의 경우 딸은 56.0%, 아들은 56.4%로 거의 비슷했다. 대학원 진학의 희망도 딸은 27.9%, 아들은 26.7%로 딸이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났다(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일본 학생들은 50.7%에 불과했다. 또한 학력에 따라 장래인생이 정해진다는 ‘학력 결정론’에 대해서도 한국 학생들은 63.0%가 동의한 반면, 일본 학생들은 41.0%에 그쳤다. 이 외에도 한국 학생들은 ‘학력이 높으면 좋은 결혼상대를 만날 수 있다’거나 ‘사회에서 도움이 될 친구를 사귄다’고 믿고 있는 한편, 일본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거나 ‘교양이 풍부해진다’는 응답이 많아서 고학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또한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나카무라 타카야수, 2005). 또한 일본 고등학생의 직업 목표는 상당히 다양한 방향으로 표출되어서 학업성적이 희망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았고 일본고등학생의 직업성취 경쟁이 한국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학업성적이 희망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아리타 신, 2005). 이와 같은 조사결과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열기가 ‘졸업장 열병(diploma disease)’이라고 불릴 정도로(Dore, 1992), 일본보다 교육열이 높은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경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높은 한중일 3개국 비교조사에서도 한국의 교육열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승완, 2004: 170).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자녀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 어머니의 일상생활은 자녀의 교육 시간표에 맞춰 구조화되고 있으며(심영희, 1996), 때로는 자녀 교육을 위해 부부관계나 친족관계의 희생은 물론, 아내로서의 역할마저 희생하도록 요구되기도 한다(윤택림, 1996). 하지만 이와 같이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해 어머니의 끊임없는 실천이 요구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희생은 미화되거나 은폐되고 있다(조형, 1994).

최근 한일 양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으나(이정규·최순자, 2007), 취업 여성도 자녀교육 중심의 모성 이데올로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교육 문제의 핵심에는 가족 집단의 지위 재생산 욕구를 지향하는 ‘어머니 역할의 역사적 변화(Thurer, 1994)’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및 교육태도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내용을 지니고 있다(東洋, 2004;

Pomerleau, Malcuit, and Sabatier, 1991). 한국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일본 어머니에 비해 자율적, 애정적, 거부적 양육태도는 낮았으나, 통제적 양육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이정규·최순자, 2007). 일본에서는 정직, 질서, 규칙이 중요시 되지만, 한국에서는 학력중심주의가 우선적인 것이다. 또한 일본 어머니들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즉각 수용하기 보다는 많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도록 시도하고 있으며, 부모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부모는 환경을 갖춰주고 그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고르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부모들은 부모가 나서서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미리 결정하는 편이었다(최순자, 2007: 124-125). 이와 같이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 기대가 높고 자녀에 대한 통제적 양육태도가 일본 어머니에 비해 확연히 높지만, 주관적 평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서 통제보다는 자율과 애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하다(이정규·김현철, 2005).

이상 가족주의 전통, 모성과 주부역할의 성격, 자녀양육과 교육태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은 유교적 전통이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어머니 역할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유사점과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식은 한국사회에서 더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가사역할에 대한 여성 역할의 인식은 일본에서 더욱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가족과 여성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한일 교육열 차이나 자녀교육방식 차이에 부분적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가족의 특성과 어머니 역할과 연계해서 교육열의 한일 비교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교육을 둘러싼 부모-자녀 관계나 자녀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모성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와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으면서도 차별화되는 일본 어머니들의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사회화 과정, 목표, 부모-자녀관계 등에 대해 한일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양국 어머니들의 모성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녀 사회화 과정, 자녀에 대한 기대, 어머니 역할 등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보다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일 양국의 문화를 모두 접한 교차거주 경험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소한 1년 이상 외국인 일본이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유치원 이상 연령층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들로 국한해서, 동경이나 근교에 거주하는 한국인 어머니 10명과 서울이나 근교에 거주하는 일본인 어머니 10명을 각각 선정한 다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⁶⁾.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녀의 학년급별 분포와 부모의 계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학년급별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를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포함시키고자 하였고 부모의 계층에 따라 사립학교 재학생과 공립학교 재학생이 나뉘므로 이들을 모두 면접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면접은 주로 면접참여자의 집이나 회사근처를 방문해서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씩이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와 이메일로 보충하는 방식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심층면접시에 한일 공통으로 사용했던 질문은 본인의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교육에 투여한 시간과 내용, 어머니들과의 정보공유 방식, 경쟁수용 정도, 어머니들의 교육열, 자녀양육방식과 가정교육방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개입 정도, 정서적·물질적·가사노동 측면에서의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집안에서의 역할, 바람직한 어머니상,

6)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들의 심층면접 참여자 선정 작업은 게이오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에게 1차 명단 작성을 부탁한 다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자녀의 학년급별 분포, 사립학교 재학, 거주 지역들을 감안해서 가장 적절한 면접 대상자들을 확정하였다. 일본거주 한국인 어머니 조사는 2008년 겨울과 2009년 여름에 두 차례 동경과 주변지역을 방문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한국 거주 일본인 어머니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2009년 봄부터 가을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한국거주 일본인 어머니들은 1차적으로는 한국거주 일본인교수들을 통해 추천을 받았고 그 어머니들이 다시 추천해주는 식으로 해서 면접대상자를 선정해나갔으며, 2차적으로는 일본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동부 이촌동의 글로벌센터를 방문해서 만나게 된 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여성의 임노동에 대한 평가, 남편의 기여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이상의 모든 주제에 대해 다른 한국 엄마들과 일본 엄마들은 어떤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함으로써 비교분석의 내용으로 삼았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사*례	연령	직업	남편 국적	남편 직업	자녀수	자녀 연령	자녀 학교	거주** 기간	특기 사항
K1	32세	주부	한국	회사원	딸2	3세 5세	공립보육 원	7년	
K2	32세	주부	한국	금융업	딸2	3세 5세	사립 유치원	1년	홍콩지사에서 일하다 동경으로 옮
K3	32세	회사원	재일 교포	회사원	아들2	4세 초등 1	공립 초등	8년	호주유학 중 교포 3세 만나 결혼
K4	37세	여행사	한국	여행사 경영 대학	딸1	초등 1	한국 초등학교	10년	부부가 함께 여행사를 경영함
K5	35세	주부	한국	조수	아들1	초등 4	공립 초등	5년	사립 중에 보낼 계획
K6	39세	디자 이너	한국	공장 운영 개인	딸1 아들1	6세 초등 3	한국 초등학교	16년	딸은 사립유치원
K7	42세	주부	한국	사업	아들1	6세 중 2	사립 중학교	9년	
K8	37세	번역일	한국	회사원	딸2	초등 2 중 1	한국 초등학교	15년	유학생끼리 만나 결혼 후 일본거주
K9	40세	주부	한국	사업	아들2	초등 2 초등 4	한국 초등학교	2년	
K10	50세	강사	한국	사업	딸2	고 3 대학생	공립 고등학교	29년	재일교포 2세. 한·일 오가면서 지냄
J1	38세	주부	한국	회사원	아들2	5세 7세	한국 유치원	9년	
J2	36세	주부	일본	회사원	딸1 아들1	5세 7세	한국 유치원	2년	
J3	34세	주부	일본	회사원	딸1	6세	한국 유치원	2년	
J4	36세	주부	일본	사업	아들1 딸1	초등 1 초등 3	일본인 학교	1년	
J5	38세	주부	일본	회사원	딸2	초등 1 초등 3	일본인 학교	2년	
J6	44세	강사	한국	사업	아들2	초등 5 중 1	한국 일반학교	15년	큰애는 일본공립에 2년 다녔음
J7	43세	번역일	일본	회사원	아들2	중 1 중 3	일본인 학교	2년	
J8	52세	선교사	한국	목사	아들3	중1 고1 고3	한국학교	24년	남편: 농아인 교회 목사
J9	49세	주부	한국	회사원	아들1 딸1	중3 고1	한국학교	22년	일본에서 대학졸업후 영국에서공부
J10	49세	교수	한국	교수	딸2	고 3 대학생	한국 외고	24년	큰애는 일본에서 대학 다님

* K는 한국인 어머니이며, J는 일본인 어머니를 칭함.

** 한국인 어머니는 일본에서의 거주기간을 의미하며, 일본인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을 의미함.

IV. 심층면접 결과⁷⁾

1. 한국과 일본의 학교 교육과 교육열 차이

1) 교육열과 학교 운영방식의 차이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들이나 한국 거주 일본인 어머니들 다수가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교육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한국에서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약 20~30% 정도에 해당된다(K10). 일본의 상류층은 교육열이 한국에서처럼 치열해서 게이오처럼 유치원에 입학하면 동일 재단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보장되는 ‘에스컬레이터식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에스컬레이트식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게이오나 와세다와 같은 유명 사립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가 열려있다. 사립중학교에는 초등학교 한반 학생 30명 중 경제적 여유가 있는 5~6명 정도가 진학하며, 대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입시학원에 보내고 자녀가 과외를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별도의 자가용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을 학원에 데려다줄 수 있어야 한다(K7).

“일본에서는 상위 20%가 치열하게 공부를 시키죠. 한국보다 오히려 더 치열해서 동경대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과외 시키고. 동경대는 부잣집 아이들이 주로 가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들고 사립 중, 고등학교 나와야 하고 입시도 치열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가운데가 없어졌어요. 2류대나 3류대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보니 70% 정도는 공부를 안 하는 셈이고요. 밑에 남동생이

7)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한 얘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우 ‘어머니’라고 표기한 반면, 면접 참여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지칭한 경우에는 ‘엄마’라고 표기해서 구분하였다. 또한 사례 표기 시 K는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를 뜻하며, J는 ‘한국 거주 일본인 어머니’를 칭한다.

일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고 불평을 해요(K10, 고등 및 대학 자녀)."

일본에서는 좋은 중학교에 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대학까지 무난히 진학하고 '부서활동(부가쓰)'을 많이 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K8). 사립학교에서는 공부를 많이 시켜서 대학입시에 이점이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규율이 엄격하기도 하다. "공립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보니 아주 잘 못해도 아이들을 퇴학시키지도 못하고 터치를 하지 않다보니 문제가 있지만 사립은 규율이 엄격해서 아이들이 나쁜 물이 들지 않도록 지도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7)." 또한 일본에서 공립 중학교는 대부분 남녀공학이지만, 좋은 사립 중학교는 남자학교와 여자학교 분리해서 운영하므로 이성교제로 인해 공부에 소홀해질 여지가 줄어든다(J3).

한일 양국 어머니들의 공부에 대한 태도차이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보육원은 국공립으로 동네 주택가 부근에 있어서 일하는 어머니를 잘 돕고 생활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상담해주며,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예능교육을 시키는 정도이다. 유치원은 사립으로 보육원에 비해 비싸서 계속해서 사립학교에 진학할 아이들만 유치원에 보낸다(K4). 하지만 사립유치원에서도 놀이 중심으로 운영을 할 뿐 한국에 서처럼 글씨를 가르치는 등 조기교육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사립유치원은 지하철 옆에 있어서 출퇴근하는 부모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되어있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히라가나를 안 가르치는 경향이어서 사립 유치원에서도 읽고 쓰기를 안 가르치다보니 아이들을 아주 편하게 지내도록 놔두는 편이고요. 유치원에서도 애들이 흠장난이나 밀가루 장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유치원이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대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점이에요. 선생님이 개인면담도 아주 정성스럽게 해요. 아이가 다니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처음에는 아침 8시에 가서 11시에 집에 왔고, 이제는 도시락을 싸가서 1시 10분에 오는 짧은 일정이에요. 연장보육을

하면 시간당 300엔을 내야하고 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또 부모가 직접 가서 픽업해야 되고요(K2, 유치원 자녀).”

“한국에서는 2세 때에 한글 동화책 읽는 것을 가르치는데,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어서야 히라가나를 가르치는 정도지요. 또 한국에서는 친구 애들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밤 12시까지 과외를 하던데, 여기서는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시누 애들을 보면 초등학생 내내 아주 잘 놀고 건강하게 그리고 잘 먹는 것이 주된 관심이에요. 여름 내내 학교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놀아서 얼굴이 시꺼멓게 타지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적어요(K3, 유치원 자녀).”

일본거주 한국 어머니의 경험과 달리, 한국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일본인 어머니들은 한국 유치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점에 대해 놀라왔다고 했다. 한국 유치원의 일본인 클래스에서는 일본인 담임선생님이 히라가나를 가르치고 미국인 원어민 교사가 매일 영어를 가르친다. 일본의 사립 유치원에서는 영어 노래정도 가르치지만 한국에서는 알파벳을 외고 쓰게 하고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 수준이어서 일본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내용을 한국에서는 유치원에서 배운다(J3). 이와 같이 공부 수준은 높은 반면, 현재 아이가 다니는 한국 유치원에는 유치원부지 안에 놀이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야외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점을 일본인 어머니들은 아쉬워했다(J2).

또한 한국에서는 중학생이 되면 공부 학원에 다니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지만, 일본에서는 공부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가는 학생들은 학구적이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소위 공부가 적성에 맞는 아이들’이다(K2). 한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도 학습평가에 치중하므로 한 아이의 여러 가지 능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은 적은데다 시험을 많이 보고 있다. 선행학습에 치중하는 사교육 제도가 만연해 있고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할 정도로 차등이 있으며, 강남에는 좋은 학원이

밀집해 있어서 집값이 비싼 점 등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다(J9).

“처음에는 한국학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해 테스트하는 것을 보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선행학습이고 고3 교육까지 미리미리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안에 코스가 있고 과외도 따로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한국교육이 안 좋으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과목도 자신이 골라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선행학습이라는 게 돈 있는 아이들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일찍 배운 애들은 학교서 줄고(J9, 고등자녀).”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소수이며, 사립학교조차도 한국처럼 경쟁적이지는 않다. 또한 한국의 여유 있는 계층에서 유형인 조기유학을 일본사람들은 생각하기조차 힘들고 조기유학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J8).

2) 지식전수의 장(場)으로서의 한국학교와 포괄적 교육서비스를 중시하는 일본학교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들은 일본 학교의 좋은 점으로 특별 활동을 많이 시킨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별로 특색이 뚜렷해서 테니스, 유도, 야구 등 운동부, 합창부, 밴드부, 연극부 중심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정평이 나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일류고등학교도 6시면 하교하는데, 4시부터 6시까지 특별활동을 실시한다. 일본 엄마들은 자녀의 능력이나 관심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므로,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한국 엄마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야구를 예로 들면, 일본학교는 고교야구도 매우 층이 두텁고 아마추어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교에서도 프로야구만 가능하므로 아마추어리즘이 없고 운동선수를 선택하면

야구에만 매달려야 하므로 층이 얇을 수밖에 없다(K10).

“주위 예술학교에서는 음악을 중시하는 데, 이는 동네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어요. 음악을 중시하는 초등학교는 3학년 때부터 진짜 열심히 시키고 악기 하나씩 하게하고. 마을 축제 때 참가하니 아이들이 좋아해요. 보통 등교가 8시인데 발표회 때는 7시에 등교해서 연습하고 학교 끝나고 또 연습을 하죠. 방학 때도 발표회 준비하느라 열심히 연습하는데, 아이들이 살 빠질 정도로 (K8, 초등자녀).”

일본 학교에서는 한국 학교에 비해 공부 스트레스가 적고 중·고등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스포츠를 많이 하다 보니 운동을 잘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인기가 좋다(J3). 한국에서는 중·고등학생이 되면 특별활동을 잘 안하는데, 일본에서는 고학년에게도 특별활동 시간이 보장되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스포츠만 잘 해도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충분히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공부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평가하는 한국과는 다르다(K5). 일본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프로만 키우므로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팀 훈련이나 연습에 적극 참여하지 못해서, 많은 아이들이 일찌감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J8).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굳이 대학진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열려 있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골프 등에 소질이 있으면 전문학교만 나와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많다(K1).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공부나 운동 등 취미활동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할 줄 아는 평균적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공부나 특기 하나를 집중적으로 잘 할 줄 아는 사람을 육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는 문화적 차이점이 있다.

“일본 엄마들은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아이를 존중하고 자긍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기본 전제가 통하고 있어요. 한국 엄마는 공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원하는 피아노나 예능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일본 엄마들은 달라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대를 하고 또 아이를 키워나가는 편이에요. 아이들을 억지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목표를 갖게 한 다음, 아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회가 있다면 아이 스스로 아주 열심히 연습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목표로 한 것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요(K6, 초등자녀).”

또한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들은 일본 학교에서의 체계적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행사가 눈앞에 닥쳐야 안내문을 보내주는 한국 유치원이나 학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일본인 어머니(J2)의 불평과는 달리, 일본학교에서는 학년 초에 모든 스케줄이 나와서 1년간의 행사 일정과 교육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별 행사에 대해서도 상세한 알림장을 미리 보내주기 때문에 부모의 궁금한 점을 상당 부분 해소해준다(K8). 일본학교에서는 정해진 규칙들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규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점도 한국 학교와는 다른 점이라고 한다. 스승의 날에도 자그마한 개인적인 선물조차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이나 사례가 없어서 좋으며(K7), 단체 활동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해진 규칙을 분명하게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다(J6).

“일본 학교는 규칙이 까다롭다. 아이 유치원 때 연극공연을 갔는데, 극장이 신주쿠에 있어서 집에서 가는 게 학교에 들렀다 가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이 되어서 직접 극장으로 애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드시 학교에서 집합해서 가야하고 집에서 바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단체 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유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실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원칙대로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K8,

초등자녀).”

일본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서비스가 좋은 점이 한국인 어머니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겨울에는 학생들이 추울까봐 담임이 제일 먼저 와서 난로를 피우기도 하고, 교장선생님이 아침마다 등교시간에 아이들 이름을 모두 기억해서 반길 정도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데 놀랐다고 한다(K5).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섬세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세한 주의 사항을 자주 전하는 편인데, 수영을 하는 날에는 아이들이 체온이 몇도 이상 오르면 학교에 미리 연락해서 수영을 빼게끔 통신문을 보내주고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한다(K9). 아이가 방과 후 교실에서 놀기 위해서는 미리 부모가 도장 찍어서 보내야 받아주며, 귀가 시에는 오후 4시 전에는 집에 혼자 보내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는 보호자가 와서 데리고 가도록 되어있다(K5). 또한 한국에서 공부하던 큰 애가 중3때 일본에 있는 학교로 전학 간 경험이 있는 교포 어머니는 전 과목의 선생님들이 그 다음 해에 있는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자기 아이 한 명을 위해 개인지도 식으로 시간표를 짜고 배려를 해주어서 놀라왔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K10).

일본 학교에서는 부모의 참여를 중시해서 보호자 회의나 수업 참관 등을 자주 진행하는데, 보호자 회의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지 설명하고 지역 활동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K5). 일본에서는 학부모회가 어머니 단독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하는 ‘PTA(Parents and Teachers’ Association)’로 구성되고, 보육원에서는 어머니들이 학교 가꾸기나 아이들 돌봐주기 등 역할을 주로 하며 졸업식 준비나 사은회 등의 특별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한다(K8).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PTA 어머니들은 운동회 사진 찍고, 광고 내고, 바자회를 해서 학교를 위한 수익금 모으고, 농구공 등 학교에 필요한 비품을 사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K7). 행사 후에 갖는 회식의 자리에서는 한국 같으면 “잘 끝나서 후련해하면서 한잔 마시는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차이라고 했다(K8).

한 서울거주 일본인 어머니는 “일본에서는 학부모가 선생님을 만나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의 교육이념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학교에 갔더니, 한국인 담임선생님은 아이의 성적표부터 먼저 꺼내놓고 얘기를 진행하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J8). 한국에서는 엄마가 학교에 찾아가면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선생님께 잘 보일 목적으로 오해받지만 일본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가정방문 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살필 수 있다(J9). 게다가 한국에서는 해마다 담임선생님이 바뀌니까 아이들과 정들면 헤어져서 적응이 안 되지만, 일본 학교에서는 같은 담임선생님과 몇 년씩 함께 지내서 지속성이 있다(J5). 반면 한국 학교에서는 어머니회 소속 학부모가 아니면 자녀 상담을 위해 학교방문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이어서, 부모가 선생님의로부터 서비스를 잘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 학교에서는 부모가 도와주더라도 학교 앞 교통정리 정도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엄마가 학교에 가서 돕는 식이어서 학급 청소나 급식 당번도 어머니의 역할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J9).

한국 학교에서는 교사의 서비스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일본인 어머니들의 불만으로 부각된 반면, 교육의 양이 많고 지식전달 체계가 잘 갖춰진 점은 한국 학교의 장점이라고 한일 양국 어머니들은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영어를 조금씩 배우지만, 한국에서는 영어문법, 영어회화 등으로 나뉘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또한 피아노나 다른 악기도 일본에서는 주1회 정도 배우지만, 한국에서는 매일 집중적으로 가르치니 아이들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J4). 한국에서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 사교육을 가장 비슷하게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동경 신주쿠에 있는 한국학교와 그 주변의 학원들이다. 신주쿠 한국학교에서는 일본학교들과는 달리 교과에 치중하며 ‘미국인 원어민 선생님들로 구성된 이머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받은 영어로 하며, 나머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수업을 한다. 한국에서 단기 계획으로 일본에 온 주재원 가족이나 조기유학 목적으로 오게 된 한국인 어머니들은 아이들 공부에 적극적이어서 신주쿠 한국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해온 한국인 어머니들은 한국학교가 너무 교과에 치중하는 방식 때문에

고민을 했으나 아이에게 한국어와 역사를 배우게 할 목적으로(K8)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줄 목적으로 신주쿠 한국학교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K6).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 비해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열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학교에서의 교육방식 또한 지식전수와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최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의 운영방식도 어머니들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어서 한국 학교는 효율적인 지식전수에 몰두하고 있으나, 일본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체계적인 서비스와 학생 보살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공부나 운동이나 무엇이더라도 한 가지를 특출하게 잘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중요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거나 공부를 시키는 반면, 일본에서는 공부와 함께 다른 특별활동을 골고루 잘하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더 인정받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자녀 키우는 방식의 차이

1) 목적지향적인 한국 어머니와 과정을 중시하는 일본 어머니

일본인 어머니들이 보기에,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가 중학생 쯤 되면 성적을 언급하는 일이 많고 심지어 초등학생조차 공부를 잘하는지 비교하고 상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시험치고 나면 한국 엄마들은 자녀에게 몇 개 틀렸느냐고 물어보는데, 자신은 아이에게 항상 몇 개 맞았느냐고 물어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J6). 일본학교에서는 중학생들도 절대 평가를 실시하고 상대평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학교에서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기고 한국 엄마들은 심지어 자녀들로서도 비교해서 “형이 동생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식으로 줄 세우기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점은 일본에서와는 큰 차이라고 했다(J10). 한국 부모들은 아이의 성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자식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자기 자식을 자랑하기 보다는 남의 아이를 칭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집 아이들에 대해서도 한국 어른들은 “공부를

잘 한다” “예쁘다” “잘 생겼다” “날씬하다” 등의 칭찬을 하곤 하는 데, 일본에서는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정도이면 절대로 상대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일본인 어머니는 한국에서는 육아의 목표가 획일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칭찬이나 평가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초등학생에게는 인사 잘 하네”와 같은 식으로 그때그때 행동에 따라 뭘 잘했다고 칭찬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J6). 이에 대해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인 어머니가 느끼는 점은 일본 부모들이 성공이나 대박을 쫓기보다는 아이들이 소박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점이 한국과는 큰 차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강해서 강박관념이 작용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공부를 시키는데 일본에서는 자녀가 무엇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일본 엄마들은 아이가 교우관계가 좋고 친구 잘 사귀고 사고 안치고 무난하게 생활하고 학교에 즐겁게 다니고 공부도 어느 정도 따라가기만 하면 좋다는 생각을 주로 하고 있다(K7).”

자녀가 학령 전 연령층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들은 일본의 여유 있는 교육 방식에 대해 매우 찬성하며 일본식 교육방식을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모이면 옆집 애들과 견주면서 자기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시킬 계획을 짜지만, 일본 엄마들은 모여서 아이들의 성장환경에 신경 쓰고 아이들 놀게 할 계획을 주로 짜는 등” 정보교환의 내용이 다르다(K5). 일본 엄마들은 아이들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아이에게 뭘 시키면 좋은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아이가 힘들지 않은지 배려 섞인 내용을 주고받는 것으로 아이들에 대해 표 나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K4).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도 일본 엄마들은 다른 엄마들을 좇아서 학원 보내는 식은 아니고 비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규모 있게 투자를 하는 편이다. 아이의 성적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본인의 철학으로 내세우는 일본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시험지나 점수를 체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가 일반적인 상식만 갖고 있다면 시험 성적은 좋지 않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아이를

믿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실천한다.”고 얘기했다(J7).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입시전쟁을 치른다고 여겨질 정도로 한국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아이가 공부하기 싫을 때에는 더 이상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지만, 한국에서는 교육을 통해야만 출세를 하거나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K7).

“한국에 한번 나가면 정신이 없어요. 친구들 얘기가 만 2세에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등 정말 너무들 일찍부터 법석을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는 유치원 때는 공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에서 7년을 살다보니 혹시 남편이 한국에 돌아가게 될까봐 걱정이 많아요. 한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를 공부시키고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면서 아이나 나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아이도 힘들 것 같고요(K1, 유치원 자녀).”

한국에서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듯이, 친환경적인 놀이공간을 중시하고 하던 일본 거주 한국인 어머니들도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자녀에게 공부에 전념하게끔 만드는 분위기로 바뀐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에 대해 일본에 오래 산 한국인 어머니는 과거 일본도 한국과 유사했다고 한다. 자신의 시어머니 얘기에 “일본도 한 30년 전에는 사교육 열풍이 강해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키울 때 과외를 열심히 시키는 풍토였다”면서 한국도 조만간 일본처럼 바뀌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K3). 일본 엄마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서 교육열이 높은 사람은 아이를 과외 시켜서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K1), 대부분은 공부 때문에 자녀를 닦달하지는 않는 편이고 아이가 꼭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J2). 그러나 일본의 유도리 교육의 여파와 공부 적게 하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일본 공립학교의 경우 학력저하 등 유도리 교육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했다(K6).

“친한 분 중에 일본인 유치원 선생님이 있어요. 딸과 아들이 모두 중학생인데, 딸은 사립고에 보내고 공부 안하는 아들은 공립고에 보낼 거래요. 대학도 떨어지면 공장에 보낼 거라고 하고요. 학비가 비싼데 자녀를 모두 사립대학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들에게 공립고에 가든지 공장에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아들이 진지하게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대요. 일본 부모들은 아이들이 관심 없는 데 혼자서만 공부해라 해라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K5, 초등자녀).”

“남편은 한국에서 화이트칼라 집안 출신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잘 살았어요. 하지만 나는 일본에서 재일교포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화이트칼라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한국 여자들은 학교도 안 갔다고 얘기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운이 좋게 그나마 대학을 나왔지요. 한국 남편과 결혼 후 우리 집에서는 애들 아빠의 치맛바람이 켜졌어요. 남편의 사촌들을 포함해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 대졸자인 데다가 학벌이 좋다보니 우리 딸들에게도 학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환경차이로 갈등이 많았어요. 나는 공부 못해도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남편에게 끌려가게 되네요(K10, 고등 자녀).”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이 더 중요하게 수용되고 있으며, 한국 엄마들의 자녀교육열은 이와 같은 성공지향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가치관과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한국에 비해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서 타인에게 신경을 잘 안 쓰고 판사들이 한다고 해서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일본인들은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지나치게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욕심이 없는 편이라고 한다(K10). 반면 한국 사람은 타인에게 간섭도 자주하고 타인의 시선도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부 경쟁이 강할 수밖에 없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도 목적 지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자녀 사회화 과정에서의 주안점 차이

한국인 어머니들이 평가하기에 일본 엄마들은 자녀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가정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주된 내용은 인사 잘하기 예절교육, 자녀 자립심 키우기, 타인에게 피해 안주기 교육,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키우기라고 했다. “일본 엄마들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단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 바라며,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대화를 하는 편이며 자녀의 인성교육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했다(K6). 가정에서는 인사를 중요시하고 아침인사나 자기 전 인사는 큰소리로 확실히 인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부모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도 자식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가르친다(J3).” 또한 생활상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혼내준다고 했다(J1).

일본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일일이 개입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아이에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편이다. 자녀가 장래에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방향을 정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다른 길을 권유하는 정도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 가고 싶은 길을 찾았을 경우에는 위험한 길이 아니라면 그 길로 보낼 것이라면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J3). 한 한국인 어머니가 보기에 한국 엄마들은 자녀들을 과잉보호해서 아기처럼 키우는 편이지만, 일본 엄마들은 자립심을 중시해서 만 3세부터는 아이를 잘 안 안아주고 무거운 물건도 어린 애들이 스스로 들게 하는 편이라고 한다(K6). 이에 대해 “일본 엄마들은 아이에 대해서 태연하게 보이는데, 한국 엄마들은 애들한테 별별 떠는 편”이고 아이가 뭘 잘 못하면 계속 잘 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개입하는 것이 눈에 띈다고 했다(K1). 일본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집안일도 시키고 스스로 정리정돈 하도록 가르친다. 보육원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테이블 닦는 법, 그릇 세팅하는 법 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빨래를 개고, 동생 기저귀 심부름도 하고, 밥 먹을 때 수저 챙기고, 냅킨 놓는 일 등을 정기적으로 하게 된다(K1). 한국

남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은 “한국에서는 자녀에게 일을 안 시키고 모두 엄마가 하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결혼 초에 한국에서 살면서 식사준비부터 속옷 빨래까지 어머니에게 맡기는 시누이를 보고 너무나 놀랐다”면서, 한국에서는 공부하면 집안 일이 면제되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J8).

일본 엄마들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타인에게 폐를 안 끼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어릴 때부터 신경 써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다. 1-2살 때부터도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조심시키는 경우가 많다(K7). 일본에서는 버스에서나 식당에서 애가 시끄러우면 엄마가 애를 야단치고 옆 사람에게 사과하지만, 한국에서는 식당에서도 부모가 주의를 안주니까 결국 종업원이 주의를 주고 부모는 모른 체 하고 있어서 이상했다고 한다(J9). 또한 일본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서 우산을 갖고 있으면 땀 사람이 안 젖도록 자기 다리 사이에 놓도록 교육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휴대폰을 쓰지 않도록 교육시키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 속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쓰고 사적 이야기를 남이 들어도 상관없이 크게 떠드는 점도 차이라고 했다(K10). 한국인 어머니들은 일본에서 생활하다보면 일본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고 친절하다 것을 자주 느끼는 데, 자녀에게도 그러한 방식으로 가르쳐서 이기적이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것을 일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K1).

하지만 매사에 타인에 대해 신경 쓰고 조심스럽다보니 일본에서 살면서 힘든 점도 많다고 한국인 어머니들은 얘기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주의를 주다보니 “아이들의 체격이나 정신연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 아이들은 패기 넘치고 활달하지만, 일본에서는 남자 애들도 조용하다(K7).” 한국에서는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전화하거나 다른 사람이 다 들어도 크게 얘기하는 점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자유로운 점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보니 스트레스가 많고 남의 눈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은둔하는 ‘히키코모리’가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것 같다고도 평가하였다(K9).

일본인 어머니들은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청소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예절의식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인의 장점으로선 전철에서 노인께 자리를 내드리는 등 웃어른에 대한 예절의식이 일본인들보다 강하며(J9),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 청소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려 주거나 인사를 하는 등 아는 사람들에게나 가족 내에서의 예절은 일본사람들보다도 더 잘 지키는 경향이 보여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J8). 뿐만 아니라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가정에 비해서 부모에게 반항을 많이 안하는 것도 장점으로 느끼고 있었다(J7). 일본에서는 타인에 대한 예의는 중시하면서 가족 간의 예의는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에게 말을 툭툭 해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부모에게는 고운 말을 쓰도록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했다(K4). 또한 친구들에게 부모의 흉을 보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께 효도를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문화적 차이이고(J8) 일본에서는 한국에 비해 형제 사이도 가능 정이나 오는 정이 없어서 개인주의적이며 서로 가깝지 않게 느낀다고 했다(J9).

“남편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은 효도를 해왔어요. 부모에 대해 나쁜 말 안하고 남의 앞에서 흉을 보지 않아요. 나는 일본에서 하던 식으로 친구들 앞에서 나의 부모 흉을 봤더니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남들 앞에서 부모 흉을 보느냐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한국에서는 그래선 안 되는구나 하고 고쳤지요(J8, 고등자녀).”

한국은 일본에 비해 가족주의 의식이 강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강한 것이 한국 사회에서 높은 교육열을 이끄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핵가족 분위기가 강한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는 명절 때마다 결혼한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확대가족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J9). 또한 일본에서는 자신의 학벌이나 직업을 내세워서 자랑하거나 사회적 인정을 받는 부분이 매우 적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예로 한국 사람의 결혼식에 가면 주례사에서

신랑의 학벌이니 집안배경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에서는 가족 없이 혼자 대학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에서는 부모·형제 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도 참석하는 점이 차이라고 했다(J10). 이와 같이 가족 간 유대가 강하고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친족을 포함한 확대가족의 전통이 일본에 비해 강한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에 대해 기대를 거는 가족의 범주가 넓게 작동하고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도 한국의 교육열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자녀에 대한 물질적 지원에 있어서의 차이

일본인 어머니들은 한국에 와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끝나고 나서 군 것질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한다. 일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용돈 갖고 다니는 것을 교칙으로 금해서 등하교 길에 음식물을 사먹으면 안되고 학교에 먹을 것을 갖고 가도 안 된다. 지금 자녀가 다니는 서울 소재 일본인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용돈 갖고 오는 것을 금하고 있다(J7).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도 학교에 돈 갖고 와서 사먹고 또 친구들에게 사주기도 하므로, 애들한테 돈을 안 주면 다른 친구들에게 얻어먹기만 하라는 얘기이므로 돈을 안 주기도 고민스럽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각자 내는 ‘더치페이(dutch-pay)’ 문화여서 남에게 얻어먹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주는 일이 거의 없는 데,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친구에게 서로 사주므로 자녀를 교육시키기가 힘든 부분이다(J6).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너무 많이 주는 편이고 돈을 달라고 하면 금방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인 어머니 생각으로는 애들이 공짜로 생긴 돈은 헤프게 쓰는 나쁜 버릇을 키우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J9). 또한 일본에서는 집에 손님이 와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법이 절대 없는데, 한국에서는 손님이나 친척이 돈을 쥐서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습관을 만들기도 한다고 평가하였다(J8).

“아이가 현재 하는 일로는 목욕탕 청소, 이불개기, 밥상 차리기, 쓰레기

버리기 등이고요. 각각의 일에 대해 얼마씩 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 텔레비전 안보면 얼마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액수를 정한 다음 스스로 용돈을 적게끔 하고 있어요. 아이가 목표를 정하고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제 경우도 용돈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자랐고 중·고등학생 때 기억으로도 조금씩만 받았어요. 대학교 학비는 부모가 내주었지만, 자취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조금만 보태주셔서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 빼고는 자립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J6, 중등자녀).”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용돈을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이나 부모가 모두 갖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점이 차이이다. 일본에서는 대학생들도 집이 학교랑 정말 가깝지 않으면 분가해서 따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로 살 때 방세가 비싸서 도와주는 부모도 있지만, 부모가 도와주더라도 대학생도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너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일들도 생긴다(K3). 일본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것을 관리하는 편이어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수가 없다(J8). 또한 한국에서는 시부모께 용돈을 드리는 게 통상적인데, 일본에서는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돈을 드리는 것은 부모의 프라이드를 해친다고 생각해서 어버이날에 선물을 보낸다거나 식사 대접하는 정도일 뿐 현금을 드린 적은 없는 것도 문화적 차이라고 얘기했다(J2).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 물질적 가치가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자가 존중받고 인정되는 사회적 풍토에서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보니 교육열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고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이는 교육의 문제도 학원비나 과외비 등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해서 해결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어머니회 소속 엄마들만 돈을 많이

내서 학급 운영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본과는 차이가 있어서 거부감을 가졌었고, 돈을 같이 안내면 아이에게 손해가 되지 않나 걱정하기도 했다고 한다(J10). 일본에서는 모든 비용을 학급의 학부모가 똑같이 나눠 내서 사용하는 풍토이지만, 한국에서는 어머니회 활동하는 부모들만 돈을 많이 내므로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본인들만 정보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J6). 이와 같이, 일본에 비해 물질적 위세가 더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사교육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마친 후 물질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갖도록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한 점이 한국인의 교육열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교육과 자녀교육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적 맥락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 심층면접에 참여했던 어머니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교육열 차이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살펴보면 가치관 차이, 학력의 영향과 사회적 인정의 차이, 물질적 가치가 통용되는 정도의 차이, 가족주의 의식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안정된 직업을 갖기가 어렵지 않은 것도 커다란 차이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고수입을 얻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하지만,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처럼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J7). 일본에서는 중소기업도 탄탄하고 돈이 많다보니 기술직도 임금이 높고 평생 고용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다(K10). 요즘은 “학벌이 별로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일본 회사에서는 면접을 통해 개개인의 인성을 확인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J7).” 또한 일본 사회에서는 월급이나 능력 등을 별로 문제시하지 않으므로 학벌에 따른 사회적 평가나 직업 지위에 대한 차별이 적다(J6). 이는 일본 사람들의 꿈이 소박하고 직업의 귀천을 안 따지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박한 부모의 직업을 가업으로 이어나갈 계획을 세우는 등 일본인들은 일 자체에 대한 자긍심

이 강하다(K10). 이러한 심층면접 내용은 일본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와 동일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한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희망직업이 부모 직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아리타 신, 2005). 또한 일본에서는 교육의 효과로 자기실현적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한국에서는 경쟁적인 사회 자본으로 기능하여 결혼관이나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와타나베, 2006).

V. 결론 및 제언

양국 어머니의 심층면접을 통해 교육과 관련해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공부와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일상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국 사이에 발견되는 중요한 특성으로는 첫째, 일본에서는 교육기대에 대한 계층차이가 커서 상류층의 경우 최상의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지만 중류층만 해도 국공립학교에 보내서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끔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하류층의 경우에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 계층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는 중산층도 교육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계층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도 사교육이나 과외를 더 시킬 여력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으로 나뉜다.

둘째, 한국에서는 대학입시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중시하므로 자녀의 공부성적이 중요하게 대두되지만, 일본에서는 결과 그 자체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함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다. 즉, 한국에서는 성공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결과가 중요한 반면, 일본에서는 열심히 하는 생활태도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엄마들은 아이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공부방법과 사교육에 대한 정보교환에 신경을 쓰는 한편, 일본 엄마들은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데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한국에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하며, 공부 외에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성향에 대해 지적하였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을 위해 특활활동과 운동의 중요성을 높이 사고 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부각시켰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건대, 한국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한 영역만 파고드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여러 분야를 함께 잘해야 하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를 중시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에서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나 사회화시키는 방법에서 모성과 젠더역할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엄마들은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다른 모든 것이 용납되는 분위기를 반영해서 다른 어떤 측면보다 공부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며, 아이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엄마들도 ‘교육매니저(Park, 2007)’로서 공부 관련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목적지향적인 모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반면, 일본 엄마들은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치중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심층면접 내용에서 일본 엄마와 한국 엄마 모두에게 가부장적인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부장제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엄마들은 사회에의 기여와 연계해서 자녀교육을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서 “자녀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공부를 시키고 싶다”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회와 가족의 연계를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에 치중하는 한편,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측면이 강해서 상호 경쟁적이고 목적의식이 강한 생활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녀를 최고로 만들고 싶어 하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결과에 치중하는 성향이 강해서 자녀들의 자립심 키우기에는 상당히 무심하다. 일본 아이들에 비해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며, 물질적으로도 의존하게끔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 이제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면제되는 식의 자녀사회화 방식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어머니들이 스스로 평가를 내렸듯이 자녀교육목표가 경직적이며 획일적인 데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자녀의 취향이나 특성을 인정하고 자녀 스스로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게끔 부모가 도와주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어머니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도하는 자녀 위주의 취미 쌓기, 특성 발굴하기 등 자녀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생활습관 기르기에 주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판단된다. 자녀가 자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닌 주체적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자녀교육에 관한 한 가부장제적 모성담론은 한국 엄마들이 일본 엄마들에 비해 더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다 마사히로의 주장과 같이, 일본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신경을 쏟지만 부모의 인생을 희생할 정도로 자식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부모의 임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야마다 마사히로, 2010: 178). 또한 자녀를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게끔 돕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 편이었다. 일본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지원적 모성’으로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옆에서 지원하는 태도가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 엄마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엄마가 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모성신화를 내면화하고 있다. 일본 엄마에게는 주부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요체계가 심리적 차원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한편, 한국 엄마들에게는 자녀의 성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성취위주의 문화적 압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자녀양육과 교육의 결과가 성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도구적 가족주의(신용하·장경섭, 1996)’와 목적 추구를 위한 ‘도구적 모성’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력을 위해서 가족 간의 관계마저 희생하는 ‘싱글로벌 기러기 가족(조은, 2004)’이 도구적 가족주의의 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성공하면 엄마의 사랑이나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는 ‘모성의 도구화’가 도구적 가족주의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과 기득권의 유지가 중산층 가족 안정의 주요한 관건이다 보니, 자녀교육의 결과와 성공에 대한 ‘모성보상체계’로 인해 도시 중산층 주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높은 경쟁률을 둘러싼 엄마들의 정보교환 방식이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범람으로 인해 어떤 정보를 취해야 할지 고민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 엄마들의 불안구조를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김소희, 2004; 최순자 외, 2006). 목표 지향적이며 자녀의 성공에 치중하는 어머니의 교육태도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는 인식이 생겨서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Hays, 1996). 이제 한국의 어머니들도 자녀의 일류대학 입학과 사회적 성공으로 자신의 역할을 평가받는 사회문화적 압력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가족의 지위재생산을 위해 헌신하는 ‘도구적 모성’의 끈을 힘겹게 부여잡고 사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소통방식을 즐기며 부모-자녀 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합리적 모성’과 ‘주체적 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엄마들끼리의 정보교환을 통한 심리적 동일시에서 벗어나 자녀를 위한 목표나 사회화 방식을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자녀교육에서의 성공을 최고 가치로 두는 엄마 역할에 대한 평가나 모성보상체계의 수용은 기혼여성을 비주체적인 개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여성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부장제 모성담론에 저항하는 모성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좁은 가족이기주의와 도구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모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모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교육제도와 부모의 자녀교육 방식이 한국과 다르게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수십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경주해온 노력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70년대부터 ‘유도리 교육’에 관심을 가져온 이래, 폭 좁은 공부중심의 학력 쌓기 경쟁에서 벗어나서 포괄적인 교육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입시중시 정책 기조를 전인교육, 인성교육, 가정교육을 포함한 교육전반의 향상

기조로 전환해왔다. 한국에서도 소수 엘리트 육성에 주력하는 기존의 일류지향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재형과 일상에서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삶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적 차원에서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교차거주 어머니들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한국 어머니들이 느끼는 한국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특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적 맥락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로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인의 습성으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혼네’, ‘다테마에’ 문화는 심층면접법의 한계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유사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교차거주 경험에 기초해서 연구자에게는 차이점에 주목한 내용들을 들려주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인들에게 익숙한 문화적 내용보다는 특색이 있거나 생소한 문화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므로 문화적 유사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점 또한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특수성과 연계해서 심층면접자들이 자신의 교차거주 경험을 중심으로 자녀교육태도와 관련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들의 관점에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해 냈다는 점을 이 연구의 성과로 인정하게 된다.

참고문헌

- 권용혁(2004). “동아시아 3국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 가족을 중심으로,” 권용혁 외,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 국립여성교육회관(2006) 헤이세이 16년도·17년도 가정교육에 관한 국제비교조사보고서.
- 김보림(2007). “최근 일본 교육개혁의 동향: 학습지도요령과 학력저하 논쟁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현대일본학회, 제26권, pp. 393-424.
- 김상봉(2004). 학벌사회, 서울: 한길사.
- 김소희(2004). “학부모 교육열의 내러티브적 접근,” 교육학연구, 제42권 2호, pp. 271-313.
- 김창호(1997). “영어의 조기교육에 관한 연구”, 언어학, pp. 117-132.
- 김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 외(2007). 질적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21-02.
- 김홍주·한유경·김현철(1999). “한국 학생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변동 추세”, 교육학연구, 제37호 4집, pp. 307-329.
- 나카네 지에(1994). 日本의 社會構造: 單一社會의 理論, 최길성(역), 형설출판사.
- 나카무라 타카야수(2005). “일본의 교육시스템과 교육열: 한국과의 비교 분석,” 이종각(편),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해부와 대책, 도서출판 하우, 제12장.
- 니스벳(2004).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최인철(역), (Nisbett, Richard E.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김영사.
- 마경희·이재경(2007).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과 젠더: 한국과 일본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9집 1호, pp. 91-116.
- 마츠다 시게키(2006). “시계열조사를 통해서 본 일본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의 변화,”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 비교, 한국청소년개발원.

문소정(1999). “한국 여성운동과 모성담론의 정치학,” 심영희 · 정진성 · 윤정로 공편, 1999,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 · 삶 · 정체성, 나남출판, 제 3장.

문소정(2002). “여성의 정체성과 사회적 삶,” 박 재환 외, 한국과 일본의 일상생활, 부산대학교 출판부, pp. 308-338.

문옥표(1994). “이에의 연속과 변화,” 일본의 농촌사회: 관광산업과 문화 변동, 서울대출판부, 제5장.

문준호(1988). “가족주의의 성격과 경제성장과의 관계-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2000). 부산/후쿠오카 지역 생활의식조사.

손승영(1997). “가족과 친족의 한일 비교,” 연세여성연구,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제3호, pp. 7-40.

손승영(2000). “일본 가족가치관의 유지와 변형,” 동덕여성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제5호, pp. 79-96.

스즈키 고지 외(2009). 일본의 가족은 어디로 가는가: 비혼, 가족붕괴, 저출산, 표세만 외(역) 당대.

신용하 · 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삶에 나타난 전통 · 현대 · 탈현대,”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pp. 1-41.

아리타 신(2005) “직업의식과 교육열의 한일 비교연구-고등학생의 직업 희망과 교육체제,” 이종각(편),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해부와 대책, 도서출판 하우, 제13장.

야마다 마사히로(2010).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 오늘날 일본가족의 재구조화, 장화경(역), 그린비.

양현아(1988). “한국가족법에서 여성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pp. 109-126.

오사와 마리(1995). 회사인간사회의 성, 정진성 · 장화경(역), 나남출판.

와타나베 히데키 외(2006).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18-03.

- 와타나베 히데키(2008). “가족의식의 변화와 저출산”, 고미네 다카오 편, 인구감소·저출산사회의 미래: 고용과 생활의 질을 높여야, 노진귀 (역),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제 8장.
- 우에무라 구니코(2005). 이규선 외(역), 다가서는 남과 여, 멀어지는 결혼, 인터.
- 유재순(1998). 일본여자를 말한다, 창해.
- 윤택림(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pp. 79-118.
- 이노우에키요시(2004). 일본여성사, 성해준·감영희(역), 어문학사.
- 이영자(1999).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현상과 인식, 제78권, pp. 107-122.
- 이종각(2005).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해부와 대책, 도서출판 하우.
- 이정규·김현철(2005). “우리나라 영재의 개인적 가정환경적 배경변인에 대한 연구,” 교육방법연구, 제17권 2호, pp. 239-258.
- 이정규·최순자(2007).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 도덕성과의 관계,” 아동교육 제16권 2호, pp. 145-158.
- 이진원(2004). “일본의 가부장적 질서와 통치 구조,” 권용혁 외,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pp. 475-502.
- 정진성(1999). “현대일본의 모성 인식,” 심영희·정진성·윤정로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삶·정체성, 나남출판, 제 10장.
-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신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연구,” 경제와사회, 제64권, 한울.
- 조형(1994).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권력: 구조적 무권력화와 구성적 권력화”, 한국여성학, 제13권 2호, pp. 199-241.
- 조혜정(1988).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 지성사.
- 종합여성사연구회(2006). 지위와 역할을 통해 본 일본여성의 어제와 오늘, 최석완·임명수(역), 도서출판 어문학사.
- 주창렬(2004). “일본의 핵가족화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이혼,” 권용혁 외,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pp. 503-548.

- 최순자 · 深谷昌志 · 이광형(2006). “육아불안 구조의 국제비교: 한국, 일본, 대만 어머니의 자녀양육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 11권 1호, pp. 163-176.
- 최순자(2007), “유아를 둔 한국과 일본 부모의 양육태도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2권 1호, pp. 111-130.
-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 츠위화 편(2008). 일본여성: 성과 사랑, 삶의 역사, 김현정(역), 시그마북스.
- 한국여성연구원(2002).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 한승완(2004). “동아시아 3국의 가족의식과 공중: 민주적 공공성의 의식적 기초,” 권용혁 외,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pp. 149-174.
- 홉스테드(1996). 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 · 나은영(역), 학지사.
- 東洋(2004), 日本人のしつけと教育, 東京大學出版會.
- 中村高康(2000). “高學歷志向の趨勢-世代 注目,” 日本の階層 戦後日本の教育社會, 東京大學出版會, pp. 151-174.
- Alison, Ann(1991). "Japanese Mothers and Obentos: The Lunch-Box as Ideological Status Apparatus," *Anthropological Quarterly*, 64(4): 195-208.
- Dore, Ronald Philip(1992). *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이건만, 김성학(공역), □□출업장 열병: 한국사회의 교육병리□□, 서울: 양서원.
- Hays, S.(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Iwao, Sumiko(1993). *The Japanese Woman: Traditional Image and Changing Re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n, Okpyo(1990). "Urban Middle Class Wives in contemporary Korea: Their Roles, Responsibilities and Dilemma," *Korean Journal*, 30(11): 30-43.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Life*.
- OECD(1971). *Reviews of National Policies for Education: Japan*, paris: OECD.
- Park, S. J.(2007). "Educational Manager Mothers: South Korea's Neoliberal Transformation," *Korea Journal*, 47: 186-213.
- Pomerleau, A., Malcuit, G., & Sabatier, C.(1991).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al beliefs in three cultural groups of Montreal: Quebecois, Vietnamese, Haitian," in M. H. Bornstein (ed.), *Cultural Approaches to Parenting*, Hillsdale, NJ: Erlbaum, pp. 45-68.
- Smith, Robert J.(1983). "Making Village Women into 'Good Wives and Mothers' in Prewar Japan, *Journal of Family History*, spring issue.
- Steinhoff, Patricia G.(1994). "A Cultural Approach to the Family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radition and Change in the Asian Family*, edited by Lee-Jay Cho and Moto Yada, Honolulu: East-West Center, pp. 29-44.
- Thurer, Shari L.(1994). *The Myths of Motherhood*, New York: Penguin Books.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s in Educating Children between Korean Mothers and Japanese Mothers: Evaluation of Own Culture and Foreign Culture by Those Who Lived in Both Countries

Sohn, Seong Young*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how mothers who lived in both Korea and Japan evaluate their own culture and foreign culture regarding educational fever and attitudes in educating children. I selected 10 Korean mothers who reside in Tokyo and 10 Japanese mothers who reside in Seoul for more than a year and then used in-depth interview methods to investigate about their ways of socializing their children who attend school.

Most of the participants for in-depth interviews agreed that Korea where entering college is very important than in Japan is more competitive in educating children. Specifically, first, while only those in upper class who sent their children to private schools show high fever in educating their children in Japan, majority of Koreans accept the competitive nature of education regardless of their stratification. Second, compared to Korea where academic achievements and goals of entering top university are important, Japanese mothers tend to teach that the process of studying hard itself is more important than achieving goals.

* Professor in Gender Studies, Dongduk women's University

Third, it is difficult for students to do studying and extra-curriculum activities at the same time in Korea where 'specialists' who excel in one area are acknowledged as the best. However, in Japan, 'generalists' who perform several different activities well at the same time are more respected than the 'specialists'. Fourth, even though both Korean and Japanese mothers spent a lot of time for their children and felt strong responsibilities for their children, they showed differences in the way to perceive the nature of motherhood or educate their children. Korean moth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cademic records and tried to gather information on how to improve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But Japanese mothers thought that education for personality and living was more important and mothers needed to provide good environments so that their children could live healthy.

Key words: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Korea, own culture, foreign culture, attitudes in educating children, educational fever, instrumental motherhood, supportive motherhood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정은* · 송다영**

초 록

근래에 들어 한국사회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는 보육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벌어나가는가에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보육정책은 주로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아동을 가르치는 보육교사의 질적 제고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들의 아동보육과정에서의 교사효능감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보육시설에서 가장 아동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교사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을 위한 보육의 질이나 학습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대비시키고, 이 중에서도 기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왔던 환경변인으로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등 시설유형에 따라 교사효능감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포함)의 교사는 조직내 업무지원정도나 교사에 대한 학습지원 충분도에 의하여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 교사에 비하여 교사효능감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부문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교사효능감, 보육정책, 시설유형별 차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제1저자,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sdchild@naver.com)

**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dsong@incheon.ac.kr)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2년 이후 정부의 출산률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현재 출산율이 1.15 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어려워진 자녀의 보육문제이다. 이에 자녀양육문제를 담당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은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 중 하나로 대두 되었다. 특히 보육시설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질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에게 질적으로 높은 보육서비스(시설의 설비, 인력, 보육프로그램)를 제공할 경우 아이의 성장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지적기능, 언어발달, 의사소통능력,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화·김경희·김문정, 2008; 정경진, 2007).

우리나라에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04년 보육정책의 확대를 포함하여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되었고 이후 양적 확충을 넘어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재정비기에 들어서고 있다(서문희·김은설·장혜경·박수연, 2008).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교사의 질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보육교사는 영. 유아와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주체로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 2009; 권혁진, 1995).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에서 가장 중핵적인 위치에 있는 구성원으로 보육교사의 인격을 비롯한 영향력이 교육전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아동을 질적으로 돌볼 보육교사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기준이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영유아와 일차적인 접촉을 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보육교사는 영유아기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적 환경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는

유아의 능력을 파악하고 이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이러한 교사의 교수행동은 유아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강영식, 김규수, 2004; 이미화 외, 2008; 정경진, 2007).

교육의 질 및 영유아의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행동, 신념, 개인적 특성 등 교사와 관련된 변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영유아보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교사효능감이다. 교사효능감이란 자아효능감의 확대된 형태로 ‘학생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효율적인 훈육에 대한 확신, 교사가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상을 더 인간적으로 대하고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행동양상을 나타내며, 놀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놀이 진행에 도움을 주는 환경제도, 조절, 유지의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하고 아동과 더 자주 대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를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은수, 2000; 신은수, 박현경, 2006). 뿐만 아니라, 높은 교사효능감은 더 나은 교수방법을 찾으려는 욕구,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의 수행, 다양한 자료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는 교사의 자발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Allinder, 1994; Hall et al., 1992; Woolfolk and Hoy, 1990). 즉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이 학습자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학습에 참여하거나 지도하는 일을 하며, 학습자가 학습에 실패할 때는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교수에 자신감을 가지므로 학습자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하는데 노력을 적게 기울이고 학습자의 대답을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해답을 주며 권위주의적이고 엄격한 통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차정은, 2003; 이영석, 이경민, 한석실, 2001)). 이처럼 교사효능감은 교사 행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듯이 교사의 효능감은 유아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사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연령, 결혼여부, 경력, 학력 등 개인 내적 변인들(김아영, 김민정, 2002; 박희숙, 이현경, 2008; 이규남, 2005)이나 업무지원정도, 조직특성, 시설장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 환경적 변인(김경철, 최인숙, 홍정선, 2007; 김아영, 김민정, 2002; 주동법, 임성택, 2002) 등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변인 중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유형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개인의 성격유형은 교사효능감의 모태가 되는 자아효능감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주요변수였다. 또한 환경적 변인도 보육시설을 동일한 것으로 고려함으로써 업무지원정도, 조직특성, 시설장과의 관계 등 주로 시설의 내적 환경 변인에만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역사에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은 동일한 조직구조라 보기 힘들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사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운영이 안정되었고 ‘저렴한 비용에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로 정착되어왔다. 이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동보육에 있어 비용과 질문제로 부모들의 외면을 받아온 측면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 보육시설 구조를 고려해 볼 때 환경적 요인으로서 보육시설 유형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개인적 요인에서는 성격성향을, 환경적 요인에서는 보육시설 유형별 차이와 교사효능감과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근래에 들어 한국사회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는 보육정책이며 이에 따라 보육을 위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예산이 주로 아동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보육시설의 질적 운영을 위한 예산이나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¹⁾.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보육교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1) 영유아보육지원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44.3%(267,087천원, 전체 예산 602,573천원)에서 2009년 75%(1,282,168천원, 전체 예산 1,710,430천원)로 급증한데 비해 교사인건비를 포함한 보육시설운영지원이나 보육시설기능 보강 등의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0% 수준에서 20% 수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보육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아동의 질적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보육의 주요 담당자인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특히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가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다면(서문희 외, 2008)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은 넓은 의미에서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노동시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송다영, 2010). 또 보육교사의 절대 대다수가 주로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환경의 문제는 여성노동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여성정책으로서의 위상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대비시키고, 이 중에서도 특히 보육정책의 주요한 환경변인인 보육시설 유형과 보육교사 효능감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모형에서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안정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비해 교사효능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결론부문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자아효능감 및 교사효능감 개념 정의

반두라(Bandura, 1977, 1982, 1997)에 의하면 자기조절체계는 개인의

으로 낮아지면서 중요성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이와 같은 급감의 주요 원인은 보육보조금 지원의 시설지원에서 부모직접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에 있으나, 국공립보육시설의 보급률을 이전 상태로 유지하고 최소한도에서만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송다영, 2010).

인지적, 정의적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체계(self-system)로서 들어오는 자극을 상징화하고 타인으로부터 배우고 다양한 전략들을 계획하고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자기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효능기대(efficacy expectation)와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를 갖게 되면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회피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교사효능감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개인의 지각과 행위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동기요인으로 자기참조적 사고를 제시하는데, 반두라는 이를 자아효능감(self-efficacy)으로 정의하였다(Bandura, 1997).

본 논문에서 자아효능감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신념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대되는 상황 또는 활동에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자아효능감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왜 시도하며 어떤 행동은 왜 회피하는가, 또는 왜 어떤 행동은 힘이 들어도 오래 지속하면서 어떤 행동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도 중간에 쉽게 포기 하는가와 같은 문제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허경철, 1991). 즉 자아효능감은 개인이 가지는 실제적인 지식이나 기술 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나 신념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Peterson and Stunkard, 2002). 이에 따라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주어 졌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되므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때문에 문제 해결과정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반면 교사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문제가 주어졌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기대하게 되고 성공할 수 없다는 불안함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일 수록 주어진 활동을 시도하고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Bandura, 1997). 다시 말해 자아효능감은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하는 정도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해 주는 체계이다.

교사효능감은 자아효능감을 교사에게 적용시킨 개념으로 1970년대 반두라(Bandura)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근거한 자아

효능감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Hoy and Miskel, 2005).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Ashton, Webb and Doda, 1983). 교사효능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법 자체 행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객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교사효율성 및 효과성과는 구분되는 교사 자신의 평가에 기초한 일종의 신념 체계로 속성상 개인의 고정적 특성 요인이 아닌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의 상황 특수성(situational specific) 효능감으로 일반적으로 교사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학생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효율적인 지도에 대한 확신 또는 믿음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박희숙, 이현경, 2008). 이것은 교사들의 교수, 학습능력에 있어 개인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며, 교수행동과 운영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교사효능감은 결국 효능감의 발현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 자신의 교실에서의 행동과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강영식, 김규수, 2004; 김아영, 김미진, 2004).

교사효능감에는 ‘일반적 교사효능감(general teaching efficacy)’과 ‘개인적 교사효능감(personal teaching efficacy)’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중 ‘일반적 교사효능감’은 교수-학습 관계에 대해 보다 일반화된 신념으로서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학생의 지능, 학교 환경과 같이 교수-학습과 관련되어 주어진 요인들을 일반적으로 교수를 수행하는 교사로서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가에 하는 신념이다. ‘개인적 교사효능감’은 한 개인의 교사가 스스로 얼마만큼 적절한 교수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가에 대한 신념이다(Hall et al., 1992; Woolfolk and Hoy, 1990, 1993). 즉 일반적 교사효능감이란 교사들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서 학생들이 가정환경이나 지능 및 학교 환경등과 같이 주어진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적 교사효능감이란 특정한 행위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말한다(김선영, 이경옥, 2005; 김아영, 김미진, 2004). 자아효능감과 마찬가지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들의 성취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선택하는데 비해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학습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교사의 권위를 더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아에 적용시킨 연구에서도 교사효능감이 높은 보육교사는 낮은 교사에 비해 실제 역할수행 시 보다 유아 중심적 활동을 계획하고 전개하며 유아의 발달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서(강영식, 김규수, 2004; 김신태, 2000; 김순남, 2000; 전인옥, 1999),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에 있어서 교사효능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 교사효능감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기존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사를 중심으로 하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영유아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주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사의 개인적 요인에는 연령, 학력, 경력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반적인 경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교사의 경력이 오래되고 연령이 높을수록 효능감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아영, 김민정, 2002; 박희숙, 이현경, 2008; 이규남, 2005; 이금란, 2004; 이분려, 1998; 한민좌, 2002).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연령에 따른 교사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많고 기혼인 교사들이 교사효능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유아교육기관 교사가 직접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유아의 학습과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력 측면에서는, 교사로서의 경험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교사효능감이 발달하는데 초임교사와 경력이 많은 교사의 교사효능감을 비교했을 때 경력교사는 초임교사보다 교사효능감이 높았으며, 경력교사 중에서 5-10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교사효능감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를 결합해보면, 교사교육의 기간이 짧거나 아동의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없는 교육과정이나 부족한 학력수준은 교사의 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외에도 국외연구는 교사의 개인적 성향 차이(Ashton., 1984; Givson and Dembo, 1984)도 지적, 즉 교사효능감에 개별 교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사고패턴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국내연구에서는 이를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는 이제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중에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조직구조(풍토), 업무지원정도, 시설장 리더십 및 의사결정 참여, 교사-부모관계 등이 포함된다(김정철 외, 2007; 홍혜정, 안선희, 2004; 주동범, 임성택, 2002; 한민좌, 2002; 신혜영, 2004; 이금란, 2004). 특히 교사가 속해 있는 조직의 풍토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 구성원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분위기로 교사효능감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은옥, 황해익, 2003; 홍혜정 외, 2004; Jorde-Bloom, 1989). 특히 유아교육기관에서 조직풍토는 원장과의 관계, 동료관계, 전문성 증진을 위한 체계, 보상체계, 의사결정 체계, 업무수행 체계,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교사간의 동의, 물리적 환경, 개혁성, 조직기능의 명확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근무환경에 대한 조직원들의 인식, 태도, 가치를 포함하는 조직풍토는 교사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Hoy and Woolfolk, 1993). 전반적으로 환경적 요인 중 교사의 학습지원 정도, 업무수행에 관한 인식정도, 시설장의 리더십 및 의사참여정도 등이 교사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어 온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기존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개인적 성격유형과 우리나라의 특수성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보육시설 유형(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vs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양육시설 등)의 영향력을 포함하여, 이들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교사효능감은 아동과의 관계를 맺어나가고자 하는 방식과 실제 언행에서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어서, 개인적 성격유형에 따라 교사효능감에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교사의 성격유형을 크게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내재적 자기조절 기제를 아동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적용해나가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전반적 조직풍토나 지원환경 등 주로 직장 내부의 환경적 요인에 범위를 제한하였던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보육시설 유형을 전반적 조직풍토나 지원환경에 영향을 주는 하나는 외부적 요인으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을 정부나 기업 등에 의한 사회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과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영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로 나누어 이들 보육시설 유형별로 교사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이나 보육시설의 안정화 필요성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16개 영유아 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90명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는 각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기관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 후 교사별로 개별 면담예정일을 정한 후 2010년 7월과 8월동안 수도권 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직접 작성 후 현장에서 수거하는 자기기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교사효능감

영유아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Enochs와 Riggs(1990)에 의해 개발된 교사효능감 측정도구 STEBI(Science Teacher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기초하여 김순남(2000)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재 수정한 후 타당도 검사를 마친 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사효능감 측정 도구로 긍정의 질문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씩 부여하여 점수화하고 부정의 질문은 점수를 역산하여 부여하였다. 교사효능감 문항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은 지도성, 영유아와의 관계, 사회적 인식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었다. 하위요인별 문항들과 신뢰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종속변수 ‘교사효능감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N=90)가 적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정규분포 위배의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그화(log) 시켰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별 개수가 동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평균비교에서 높은 값을 가진다 하더라도 집단간 동질성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값에 대한 신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교사효능감 원점수를 로그화를 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표 1〉 교사효능감 문항구성

하위요인	개별문항	신뢰도
지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영유아가 어떤 어려움을 나타낼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 - 나는 영유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 한다 - 나는 모든 영역에서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게 지도할 수 있다 - 나는 영유아들을 지도하는데 유능하다 	.832
영유아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한다 - 나는 영유아의 질문을 반기고 격려 한다 - 나는 영유아들이 어떤 활동을 왜 하는지 이해시킬 수 있다 	.698
사회적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나의 교사능력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것이 두렵지 않다 - 나는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 나는 교사의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 한다 - 나는 보육교사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708
전체		.780

2) 독립변수

(1) 개인적 변인

개인적 변인은 선행연구들에서 포함되었던 연령, 경력, 결혼여부, 학력, 경력, 직책 등을 고려하였다. 여기에 선행연구들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었던 개인성격 유형을 포함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 조사대상자(N)의 규모가 적어서 연령, 학력, 경력 등에서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의 범주를 최소화하였다. 학력은 보육시설에 보육교사교육원과정만을 거친 교사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을 대비시켰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1), 아닌 경우(=0)로 더미변수화하였다. 경력은 기간과 업무전문성의 내용적 변이를 포함할 수 있는 ‘직책’을 주요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직책은 주임교사 이상(=1), 아닌 경우(=0)로 구별하여 더미변수화하였다. 연령은 회귀분석에서 제외하고 ‘결혼여부’를 포함시켰다. 연령은 30대 이상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경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외시켜도 될 것으로 보았다. 결혼여부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 경우(=1), 아닌 경우(=0)로 구별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보육교사의 개인성격 유형²⁾은 설문지 조사시 MBTI 검사를 실시한 후 이를 내향형(1)과 외향형(0)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2) 환경적 변인

환경적 변인은 보육시설 유형과 조직내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조직 특성은

2) MBTI는 심리학자 융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개발된 성격유형 검사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심리검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변안과 엄격한 표준화과정을 거쳐 1990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MBTI는 개인의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외향형(Extraversion, E)-내향형(Inttroversion, I), 무엇을 인식하는가에 따라 감각형(Sensing, S)-직관형(Intuition, N),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는가에 따라 사고형(Thinking, T)-감정형(Feeling, F), 주로 채택하는 생활양식에 따라 판단형(Judging, J)-인식형(Perceiving, P)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MBTI는 인간의 성격유형을 총 16가지 성격유형으로 구분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MBTI 원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연구는 국외연구(Ashton., 1984; Givson and Dembo, 1984)와 본 조사통계빈도분석에 따른 분류에 따라 보육교사의 성격유형을 기본적인 패턴중의 하나인 I형(내향형)과 E형(외향형)으로 구분하였다.

시설유형을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받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³⁾(‘1’로 코딩), 그렇지 못한 민간보육 및 가정보육시설(‘0’으로 코딩)을 구별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조직내 환경에는 업무지원환경, 시설장리더십(의사참여및결정 포함), 학습지원충분도 등을 포함하였다. 각각 변수는 개별문항의 총합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문항은 긍정의 질문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씩 부여하여 점수화 하고 부정의 질문은 점수를 역산하여 부여 하였다. 본 연구는 직장내 환경적 지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 검증을 위해, 보육업무지원 5문항, 시설장 리더십 8문항, 학습지원 6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계수 검증을 하였다.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회전방법에 기반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보육업무지원은 ‘업무수행지원(문항1,2,3)’과 ‘동료교사로부터의 지원(문항4,5)’으로 구분되나 하나의 동일 범주로 묶인다(신뢰도 계수 .797). 학습지원충분도는 ‘아동발달 및 심리(문항1,2,3)’와 ‘기타 전문분야(문항4,5,6)’으로 하위범주화하나 하나의 동일범주로 묶인다(신뢰도 계수 .882). 시설장 리더십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으로 범주화하였다(신뢰도 .922). 시설장 리더십 문항 3, 5번 (-.105, -.132)은 조직내 규율엄수와 연관된 하위범주이나 공통인자간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장리더십 변수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에 의해 선출된 하위범주 지수에 근거하여 시설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문항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회귀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는 통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할 때,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유형별 차이를 검토할 때,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인 임금수준은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응답을 하지 않거나 기재를 하였더라도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아 분석에는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만 보육기관 현실에 기반한 자료로도 시설유형별 임금차이가

3) 최종 회귀분석에서 직장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의 범주안에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네 가지 시설유형의 특성을 구분하여 업무지원환경, 시설장리더십, 교육충분도 등을 비교해본 결과 두 그룹간 차이가 없어서 함께 묶어 처리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 평균 임금은 126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것을 보육시설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155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보육시설이 154만원, 법인보육시설이 150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각각 113만8000원, 101만9000원으로 앞의 국공립, 직장 및 법인 보육시설들에 비해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었다(머니투데이경제, 2010년 10월 3일자 인터넷 기사). 이처럼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수준은 거의 동일한 시간을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공립, 직장, 법인보육시설에 비해 약 40만원이 넘게 월급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임금과 보육교사 교사효능감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저한 임금수준의 차이가 보육교사의 직장만족도, 보육교사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아동과 연결된 보육업무에 대한 평가절하 등과 연결되어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늠할 수 있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연구목적에 적합한 통계기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SPSS for Window(12.0 Version)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이 교사효능감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검정, 상관관계 분석, 요인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평균값 비교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F값)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T-검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다른 개별적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개인적 변인들이나 환경적 변인들

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적 변인과 보육시설 유형을 포함한 환경적 변인이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개인적 변인만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모형은 개인적 변인에 추가로 보육시설 유형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에서는 개인적 변인, 보육시설 유형을 포함한 모든 변인을 포함하여 영향정도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분석모형을 통해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보육교사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인 보육시설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연령은 20대가 38명(42.2%), 30대가 35명(38.9%)로 2,30대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40대가 17명(18.9%)로 나타났으며 기술통계분석을 통한 보육교사의 평균연령은 32.5세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를 보면, 미혼이 47명(52.2%), 기혼이 43명(47.8%)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를 보았을 때, 전문대졸이 49명(54.4%)로 1순위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고졸이 25명(27.8%)으로 2순위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졸이상이 16명(17.8%)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전공별로는, 보육교사 교육원이수인 경우가 39명(43.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경우가 30명(33.3%)로 2순위를 나타냈다.

보육시설 경력을 보면 3-5년 미만이 34명(37.82%)으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이 24명(26.7%)이 2순위, 5년 이상이 21명(23.3%)이었으며 평균 근로연수는 4년이었다. 직책분포를 보았을 때, 평교사 70명(77.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주임교사가 14명(15.6%)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보육시설이 52명(57.8%)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보육시설이 뒤이

었으며 국공립보육시설(12.2%)과 직장보육시설(8.9%) 순이었다. 담당하고 있는 현원에 대해서는 5-10명 38명(42.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15명 이상이 20명(22.2%), 10-15명이 19명(21.1%) 평균 담당 영유아 수는 9.7명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90)

단위 : 명(%)

항목	내용	빈도(%)	항목	내용	빈도(%)
연령	평균 (std.)	32.5 (6.96)	경력	평균 (std.)	4.0 (3.6)
결혼여부	미혼	47(52.2)	직책	보조교사	2(2.2)
	기혼	43(47.8)		평교사	70(77.8)
학력	고졸	25(27.8)		주임교사	14(15.6)
	전문대졸	49(54.4)		원감	4(4.4)
	대졸 이상	16(17.8)	시설유형	국공립보육시설	11(12.2)
	전공	보육교사교육원이수		39(43.3)	민간보육시설
유아교육학		30(33.3)		가정보육시설	19(21.1)
아동학		10(11.1)		직장보육시설	8(8.9)
보육학		9(10.0)	43.3 3 현원	5명미만	13(14.4)
기타		2(2.2)		5-10명미만	38(42.2)
		10-15명미만		19(21.2)	
		15명이상		20(22.2)	

2. 개인적 변인과 교사효능감 연관성

1) 교사의 성격 유형과 교사효능감 관계

본 연구는 개인적 변인 중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왔던 개인적 성격 유형이 교사효능감과 연관성을 갖는가를 살펴보았다. 설문지 조사당시 보육교사들의 MBTI에 기반한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흥미롭게도 전반적 교사의 성격은 내향형(Introvert)형이 우세하였다. 성격유형 중에는

ISFJ유형이 29명(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ISTJ유형이 18명(20.0%)이 2순위, ESFJ유형이 14명(15.6%)으로 3순위를 나타냈는데, 전체적인 분포를 보았을때, 내향성유형이 전체응답자의 2/3정도를 나타냈다⁴⁾.

보육교사의 성격유형(내향성, 외향성)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를 살펴보면(표 3 참조),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 3개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차이는 외향적인 성격(평균 3.60)의 보육교사 효능감 인식이 내향적인 성격(평균 3.58)의 보육교사에 비해 교사효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하위영역에서도 외향적 보육교사가 효능감이 높은 경향이나 통계적 유의도는 없다. 즉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기에 나타나는 교사효능감은 전체 및 하위영역에 걸쳐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성격유형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성격범주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지도성	내향성	60	3.6500	.48756	-.360	.720
	외향성	30	3.6917	.57492		
영유아와의 관계	내향성	60	3.7444	.50372	.306	.760
	외향성	30	3.7111	.45261		
사회적 인식	내향성	60	3.3917	.54533	-.260	.796
	외향성	30	3.4250	.62681		
교사효능감 전체평균	내향성	60	3.5818	.45936	-.169	.866
	외향성	30	3.6000	.52338		

2) 기타 개인변인과 교사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이외에도 기타 개인변인의 교사효능감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령, 결혼여부,

4) 성격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주 2를 참조할 것.

내향형 등 주로 개인의 내적인 요인들은 교사효능감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하고 아동을 가질수록, 외향형일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향이나 통계적 유의도는 이르지 않았다. 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력이 높아질수록 교사효능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직급은 높아질수록 효능감이 높아지는 추이나 통계적 유의도에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교육수준이나 직업경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4〉 조사대상자의 개인변인과 교사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연령	결혼여부	내향형	학력	경력	직급
교사효능감 상관관계 크기(유의도)	.044	.057	-0.018	.247*	.293**	.205

*p<0.05, **p<0.01, ***p<0.001

3. 시설유형별 교사효능감간 차이 분석

1) 시설유형별 교사효능감 차이

반면 보육교사가 종사하는 시설유형(정부지원, 민간)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표 5 참조). 보육교사의 근무시설유형과 교사효능감 3개 하위 영역에 대한 전체평균값에 대한 차이는 99% 신뢰구간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부지원(M:3.88)시설의 교사들의 교사효능감은 민간(M:3.50)시설의 교사에 비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도 정부지원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는 민간부문 교사에 비해 지도성, 영유아와의 관계, 사회적 인식에서 높은 효능감을 보였다. 즉 정부지원(M:3.98)시설의 교사들이 민간(M:3.57)보육시설 교사에 비해 본인의 교사 지도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M:3.96)시설의 교사들이 민간(M:3.67)보육시설 교사에 비해 영유아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원(M:3.72)시설의 교사들이 민간(M:3.31)보육시설 교사에

비해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나 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의 교사들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 교사들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시설유형별 교사효능감 차이

	시설유형범주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지도성	정부지원 (국공립,직장)	19	3.9868	.53667	3.234	.002
	민간(가정,민간)	71	3.5775	.47733		
영유아와의 관계	정부지원 (국공립,직장)	19	3.9649	.55438	2.406	.018
	민간(가정,민간)	71	3.6714	.44896		
사회적 인식	정부지원 (국공립,직장)	19	3.7237	.49927	2.871	.005
	민간(가정,민간)	71	3.3169	.56054		
교사효능감 전체 평균	정부지원 (국공립,직장)	19	3.8852	.47125	3.202	.002
	민간(가정,민간)	71	3.5083	.45157		

2) 환경적 지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시설유형별 차이

(1) 직장내 환경적 지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보육업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교사들은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이 교차되면서 나타나고 있다(표 6 참조). 보육업무 수행에 관련된 문항에서는 대체로 지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보육업무를 위한 충분한 직무교육을 받았다’,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교재교구가 파손되었거나 부족할 때 교체나 보완이 잘 이루어진다’ 등의 문항 평균값은 각각 3.87,

3.58, 3.39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료교사로부터의 지원은 각각 3.93, 4.00('동료교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동료교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없다')으로, 보육업무수행에 관한 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표 6〉 보육업무지원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인식

단위 : 명(%)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td.)
1. 보육업무를 위한 충분한 직무교육을 받았다	0 (0.0)	2 (2.2)	22 (24.4)	52 (57.8)	14 (15.6)	3.87 (0.69)
2.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0 (0.0)	5 (5.6)	36 (40.0)	41 (45.6)	8 (8.9)	3.58 (0.73)
3. 교재교구가 파손되었거나 부족할 때 교체나 보완이 잘 이루어진다	0 (0.0)	8 (8.9)	45 (50.0)	31 (34.4)	6 (6.7)	3.39 (0.74)
4. 동료 교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0 (0.0)	2 (2.2)	20 (22.2)	50 (55.6)	18 (20.0)	3.93 (0.72)
5. 동료 교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은 없다	1 (1.1)	1 (1.1)	15 (16.7)	53 (58.9)	20 (22.2)	4.00 (0.73)

시설장 리더십에 관한 문항도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공존하고 있었다. '시설장은 교사들의 업무가 잘 연결되도록 적절하게 조정하고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한다', '시설장은 항상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 한다', '시설장은 교사들에게 정해진 규칙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시설장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교사들의 동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시설장은 예정된 기일 안에 일이 완수되기를 강조 한다', 시설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받아들인다', '시설장은 교사들과 이야기 할 때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배려해 준다', '시설장은 자신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인정 한다'에 대한 전체 평균은 대부분 3점대 후반으로 긍정적 평가 기준인 4.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표 7〉 시설장 리더십에 대한 교사의 인식

단위 : 명(%)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td.)
1. 시설장은 교사들의 업무가 잘 연결되도록 적절하게 조정하고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한다	0 (0.0)	3 (3.3)	21 (23.3)	48 (53.3)	18 (20.0)	3.90 (0.75)
2. 시설장은 항상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 한다	0 (0.0)	3 (3.3)	26 (28.9)	41 (45.6)	20 (22.2)	3.87 (0.80)
3. 시설장은 교사들에게 정해진 규칙을 지킬 것을 강조 한다	0 (0.0)	3 (3.3)	24 (26.7)	47 (52.2)	15 (16.7)	3.83 (0.74)
4. 시설장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교사들의 동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 한다	1 (1.1)	5 (5.6)	28 (31.1)	39 (43.3)	17 (18.9)	3.73 (0.87)
5. 시설장은 예정된 기일 안에 일이 완수되기를 강조 한다	0 (0.0)	2 (2.2)	31 (34.4)	44 (48.9)	13 (14.4)	3.76 (0.72)
6. 시설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받아들인다	0 (0.0)	5 (5.6)	23 (25.6)	50 (55.6)	12 (13.3)	3.77 (0.75)
7. 시설장은 교사들과 이야기 할 때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배려해 준다	0 (0.0)	8 (8.9)	29 (32.2)	35 (38.9)	18 (20.0)	3.70 (0.89)
8. 시설장은 자신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인정 한다	0 (0.0)	5 (5.6)	30 (33.3)	44 (48.9)	11 (12.2)	3.68 (0.76)

보육교사의 학습지원 충분도에 대해서도 앞서 나타난 경향과 비슷하게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이 교차하였으며, 문항별 평균은 4.0을 모두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나는 영유아의 발달수준의 진단과 평가에 관한 학습을 충분히 받았다’, ‘나는 부모와 분리불안을 겪는 영유아를 위한 대처방식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받았다’, ‘부모상담과 관련된 학습을 충분히 받았다’ 등 전반적 아동발달 및 심리와 연관된 문항에 있어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약 50%-60%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반면 미술심리, 교육법, 아동건강 및 안전 등의 기타 전문분야 학습지원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도 약 40-50%에 이르고 있어 보육

교사를 위한 전문적 학습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8〉 학습지원충분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단위 : 명(%)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td.)
1. 나는 영유아의 발달수준의 진단과 평가에 관한 학습을 충분히 받았다	0 (0.0)	4 (4.4)	33 (36.7)	47 (52.2)	6 (6.7)	3.61 (0.68)
2. 나는 부모와 분리불안을 겪는 영유아를 위한 대처방식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받았다	0 (0.0)	6 (6.7)	27 (30.0)	48 (53.3)	9 (10.0)	3.67 (0.75)
3. 부모상담과 관련된 학습을 충분히 받았다	0 (0.0)	4 (4.4)	44 (48.9)	36 (40.0)	6 (6.7)	3.49 (0.69)
4. 아동미술심리를 다루는 학습을 충분히 받았다	1 (1.1)	26 (28.9)	47 (52.2)	12 (13.3)	4 (4.4)	2.91 (0.80)
5. 보육 영역구성 및 상호작용과 교수법에 관련된 학습을 충분히 받았다	0 (0.0)	1 (1.1)	42 (46.7)	38 (42.2)	9 (10.0)	3.61 (0.68)
6.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학습을 충분히 받았다	0 (0.0)	0 (0.0)	37 (41.1)	44 (48.9)	9 (10.0)	3.69 (0.65)

(2) 시설유형별 직장내 환경적 지원에 대한 교사 인식 차이

시설유형별 직장내 환경적 지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육업무지원 중 업무수행지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직장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민간·가정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비해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동료 교사로부터의 지원에서는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설장 리더십에 있어서는 시설유형별로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의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도가 약하게 나타났다(.092). 학습지원에 대해서도 전반적 아동발달 및 심리에 있어서는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가 여타 보육시설들에 비하여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9〉 시설유형별 환경지원에 대한 교사인식 비교

	하위범주 ¹⁾	정부지원 (국공립·직장)	민간 (민간·가정)	유의도
보육업무지원	업무수행지원	3.98	3.51	.001
	동료교사로부터지원	3.89	3.98	.605
시설장리더십	상호작용및의사소통	4.13	3.81	.092
학습지원	아동발달맞심리	3.84	3.52	.010
	기타 전문성	3.46	3.39	.678

1) 보육업무지원, 시설장리더십, 학습지원의 요인분석과 하위범주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8을 참조할 것.

3. 보육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마지막으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각 변인들이 보육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적 요인 대비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의 첫 번째 칼럼은 개인적 변인만을 회귀분석 했을 때 결과이며, 두 번째 칼럼은 보육시설 유형을 추가로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마지막 세 번째 칼럼은 개인적 변인과 보육시설 유형을 포함한 환경적 변인을 모두 포함시켜서 회귀분석 했을 때의 결과이다.

<표 10>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적 변인이 보육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표 3> 상관관계 분석에서 학력이 보육교사효능감에 연관성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복합된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도 학력은 전반적으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 중의 하나이다. 다른 개인적 변인인 결혼여부(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 성격유형, 직책은 보육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분석모형에 보육시설 유형을 포함한 두 번째 분석모형을 보면 개인적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국공립이나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비해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아동들에 대한 자신들의 교수능력이나 영향에 있어서 민간이나 가정양육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비해 긍정적이고 상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개인적 변인인 학력은 여전히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경우일수록, 주임교사 이상일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 유의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모형을 보면, 환경적 변인이 보육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변인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학력은 여전히 전문대 이상일수록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개인적 변인들의 영향력은 없었다. 반면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의 교사효능감은 다른 요인들은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의 교사의 그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비해 업무지원이나 학습지원충분도에서 높은 상황과 연결되어있다. 환경적 요인의 직접적 지표로 볼 수 있는 조직내 업무수행 지원정도나 교사학습에 대한 지원의 충분도는 교사효능감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보육교사는 보육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전반의 지원이나 동료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교사의 학습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게 제공될수록 교사효능감을 높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Log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항목			회귀계수	유의도	회귀계수	유의도	회귀계수	유의도
개인 요인	개인적 요인	결혼여부(=1)	.017	.192	.020	.104	.011	.241
		성격유형 (내향형=1)	-.004	.759	.001	.961	.010	.279
		학력 (전문대졸이상=1)	.041	.004**	.029	.045*	.018	.097
		직책 (주임교사이상=1)	.018	.246	.024	.105	.013	.255
환경 요인	시설 유형	국공립 · 직장보육 (=1)			.043	.005**	.030	.007**
	환경지 원정도	조직내 업무지원도					.023	.034*
		시설장 리더십					-.007	.325
		교사학습 지원충분도					.056	.000***
			F=3.17* , R2=.13		F=4.44** , R2=.21		F=15.09*** , R2=.60	

*p<0.05, **p<0.01, ***p<0.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 보육정책 전반의 환경적 지원의 중요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영유아 보육시설(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직접 작성후 현장에서 수거하는 자기기재 방식으로 설문지 문항에 있어 무응답(missing)을 최소화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개인적 변인보다는 조직내 지원, 조직풍토, 교사를

위한 학습환경 조성과 같은 환경적 변인이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왔던 환경변인으로서 시설유형별 차이에 주목하였으며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하였다. 교사효능감이란 실제로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아동의 학습수행을 시켜나가는 과정에서의 개별적 인지나 감정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보육교사의 효능감은 좀 더 환경적 요인, 즉 조직내에서 얼마나 이들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보조하여 주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 지원으로 시설운영이 공고하고 체계를 갖춘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뚜렷하게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의 교사에 비해 교사효능감이 높았다. 이것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다른 민간기관 보육교사들에 비해 조직내 업무지원이나 조직내 교사에 대한 학습지원이 충분하게 제공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저렴하면서도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의 부족이다.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교사효능감에 있어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 이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의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줌으로써 교사들도 마음놓고 아동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있다. 또한 보육정책이나 환경적 지원의 우위에 의하여 보다 높은 질의 교사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것에 기반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별로 보육교사 소지 자격증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시설은 1급 보육교사가 10명 중 8명(79.2%)인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약 50%에 불과하다. 보육교사 중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국공립보육시설은 10명 중 4명(39.5%)인데 민간은 2명(18.1%)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주로 2, 3급 보육교사의 비율이 높았다(김은설 외, 2009; 메디컬투데이, 2010년 10월 22일 자).

최근 우리나라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보다는 점차 민간보육시설의 확대를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교사들에게도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 교사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이들의 교사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에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아동을 더 인간적으로 대하고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행동양상을 보이고, 아동과의 놀이에 있어서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서보다는 조절, 유지의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하고 아동과 더 자주 대화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책과 예산의 확보가 요구된다.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은 재정이나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여전히 아동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충방안의 적극적 모색이 요구된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보율이 전체 보육시설의 5.5%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부모들의 일가족양립을 저해하고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수준의 문제로도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민간보육이나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기자재 부족이나 학습지원 부족 등이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함께 되어야겠다.

둘째, 교사효능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지원의 충분도이다. 이것은 교사가 효능감을 가지고 아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동 발달이나 아동의 정서장애, 발달단계, 상호작용, 부모상담 등에 대한 전반적 학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아동보육정책이 주로 시설별 지원에서 개별 부모에 대한 바우처 직접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교사의 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감소하고 있다. 부모가 좋은 보육시설을 그들의 선택이나 기호에 맞게 찾아

간다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기조로의 전환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세보육시설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기조는 내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법인이나 민간시설은 대처가능하나 소규모 영세보육 사업장은 더욱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어도 모든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학습지원과 교육적 관리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 접근성, 경제적 문제로 영세소규모 보육시설을 가야하는 아동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들 교사의 질관리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김은설 외, 2009; 이미화 외, 2008).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의 향후 운영방식에 대한 정책적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정부차원에서 조절하기 보다는 시장의 경쟁 원리에 의해 생존 혹은 구조조정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내부 자생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에서 보육시설이 조정되는 양상이라면 이들 시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보육료를 상승하거나 보육교사의 인건비나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감축하는 수밖에 없다. 보육시장의 경쟁속에서 보육료 상승은 시설의 선택이 되기 어려운바, 보육교사의 조직내 지원 환경은 더욱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환경변인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보육시설유형별 차이와 교사효능감 차이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주요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의 제한상 조사를 수도권 지역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대규모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영식, 김규수(2004). 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유아-교사 관계의 질에 따른 유아교사의 스케폴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9(3), 1-28.
- 김정철, 최인숙, 홍정선(2007) 어린이집의 전문성 지원환경과 교사효능감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115-135.
- 김선영, 이경옥(2005).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개념과 측정구조에 대한 분석. **유아교육연구**, 25(3), 267-287.
- 김순남(2000). 유치원 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따른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덕(2000). 유아교사의 효능감과 역할수행능력 인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김미진(2004). 교사효능감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1), 37-58.
- 김아영, 김민정(2002). 초등교사들의 교사효능감과 학교조직풍토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5-29.
- 김아영, 차정은 (2003) 교사효능감 및 학생의 학업적 교사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교육심리연구**, 17(2), 25-43.
- 김은설 · 안재진 · 최윤경 · 김의향 · 양성은 · 김문정 (2009) 보육종사자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육아정책연구소.
- 박희숙, 이현경 (2008) 유아교사의 개인적 요인, 환경교육 인식, 환경친화적 태도에 따른 환경 교수효능감 연구. **유아교육연구**, 28(2), 51-68.
- 서문희 · 김은설 · 장혜경 · 박수연(2008).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방안. 노동부.
- 송다영(2010). 자유선택과 계층화.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신은수(2000). 놀이에 대한 교사효능감이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과 유아 놀이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0(1), 27-42.
- 신은수, 박현경(2006). 가장놀이에 대한 교사교육이 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 및 놀이개입 실제와 유아의 가장놀이 사회적 수준에 미치는 영

- 향. **유아교육연구**, 26(6), 287-310.
- 신혜영(2004).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효능감이 교사 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규남(2005). 유치원 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2, 77-98.
- 이금란(2004). 유치원의 교사 전문성 지원 환경과 교사효능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 김경희, 김문정(2008). 육아지원인력의 재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분려(1998). 유치원 조직풍토와 직무만족 및 교사효능감의 관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 이정민, 한석실(2001). 유아교사효능감 개념 및 관련 변인 고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8(2), 181-203.
- 정경진(2007). 직무스트레스와 자기 효능감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인옥(1999). 유아교사의 교육신념과 교수효능감이 언어적·비언어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9, 203-237.
- 주동범, 임성택(2002). 교사효능감 관련 변인의 분석: 직무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40(2), 251-270.
- 하은옥, 황해익(2003). 유아교육기관의 동료장학 실행수준과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2 99-114.
- 한민좌(2002). 교사가 지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지도성 유형과 교사효능감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정, 안선희(2004). 유아교육기관의 조직건강 및 의사결정참여와 교사 효능감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255-273.
- Allinder, R, M.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acy and the instructional practice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consultants. *Teacher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17, 86-95.
- Ashton, P, T., Webb, R. B. and Doda. N.(1983). A study of teacher's sense of efficacy. *Final Report, Executive Summary*. National

- Institute of Education Context. (Document Reproduction Series No. ED 231 933).
- Ashton, P. (1984). Teacher efficacy: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 28-3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Gibson, S., and Brown, R. (1982). Teacher's sense of efficacy: Change due to experie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alifornia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cramento.
- Gibson, S, and Dembo, M.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76(4), 569-582.
- Gibson, S., and Dembo, M. (1985). Teachers's sense of efficacy: An important factor in school impro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6(2), 173-184.
- Hall, B, W. (1992). *Attributions That Teachers Hold Account for Student Success and Failure and Their Relationship to Teaching Level and Teacher Efficacy Beliefs*. San Francisco, CA.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49280)
- Jorde-Bloom, (1989). Measuring work attitudes in the early childhood setting. *Technical Manual for the Early Childhood, Job Satisfaction Survey and Early Childhood Work Environment Survey*. Illinois Early Childhoo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ject.
- Peterson, C., and Stunkard, A, J. (1992). Cognates of personal control : Locus of control, self efficacy, and explanatory styl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 11-17.

Woolfolk, E., and Hoy, K. (1990). Prospectiv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beliefs about contr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0), 81-91.

〈인터넷 기사〉

머니투데이경제, 2010년 10월 3일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임금 126만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00308461003704&outlink=1>

메디컬투데이, 2010년 10월 22일자.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시설 비해 교사 질 '떨어져'”.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42571>

Factors Affecting Teacher's Sense of Efficacy among Teacher of Childcare Center

Kang, Jeong-Eun*, Song, Dayoung**

In recent year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rns is how to effectively develop childcare policy in Korea. However, recent childcare policy has focused on subsidies to families who have children less than 6 years, and educ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for teachers of childcare centers has relatively less been concerned.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licy investment to teachers of childcare centers in order for children to hav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The study, especially, targets at the enhancement of teacher's sense of efficacy among teachers working in childcare centers. The more teachers have higher the teacher's sense of efficacy, the more they have higher quality of caring and more fruitful outcome in teaching. For this, the study contrasts the impact of personal factors versus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mong teachers of childcare centers. Especially, this research tries to reveal that type of childcare center, a variable factor which has been not specifically considered in related prior studies, such as public childcare facility, private childcare facility, home care facility, and company childcare facility, is most influential factors to differentiate the teacher's sense of efficacy. Research results show that, by virtue of in more work-related total support in an organization and enough education opportunities, teachers of public childcare facility and company childcare facility insure stronger teacher's sense of efficacy than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Incheon (sdchild@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Incheon (sdchild@naver.com)

those of the other two facilities. In conclusion, policy suggestions are given for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ultimately the development in childcaring sector.

Key words: teacher's efficacy, childcare policy, difference by types of childcare centers, public childcare center, private childcare center

젠더의 관점에서 본 농촌의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의 문제

임 춘희*, 송 인하**

초 록

현재 농촌에서는 여성들의 인구비율이 높으며 공동체 내의 사회자본 축적에 대한 기여도가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젠더레짐은 여전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외부와의 연계성에 의한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의 외부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남성의 역할로 당연시되는 마을내의 젠더 불평등의식의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젠더레짐으로 설명하면서 마을만들기운동같은 마을공동체운동에서 젠더레짐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이나 사회적 연계망이 제한되어 있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운동의 목표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가치관의 재조직화에 있다고 볼 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비민주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의 하나인 젠더의식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마을공동체운동의 성과는 여성의 입장을 배제한 절반의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 재구조화운동에서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교육과 사회화에 있어 젠더의 관점과 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결과로 현재 농촌의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에서 양성평등을 통한 지역의 발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젠더, 젠더레짐, 공동체재구조화운동, 마을만들기운동

*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chlim@kusan.ac.kr)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singasong777@gmail.com)

I. 서론

현재 한국 농촌사회의 인구구성의 변화경향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여성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증가로 표현할 수 있다. 여성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농촌인구의 51.6%, 농업인의 53.3%(통계청, 2008)를 차지하며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존재로 그 중요성과 비중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농촌의 젊은 남성들이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여성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생산노동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사회화된 성역할로 인하여 생산노동에의 참여와 가사노동의 전담이라는 이중부담(double burden)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성들과 같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가사노동은 남성들과 분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젠더불평등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나 현재에도 여전히 농촌 지역사회의 재구조화과정에서 젠더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농촌 주민들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당연시하기 때문으로 그 결과 젠더불평등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의 마을만들기운동은 과거의 중앙정부주도의 새마을운동과는 성격과 운영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얼마나 진일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젠더불평등의 재생산은 구성비율이 높은 농촌의 여성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운동의 목표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가치관의 재구조화에 있다고 볼 때(송인하, 2010),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비민주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의 하나인 젠더의식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마을공동체운동의 성과는 여성의 입장을 배제한 절반의 효과에 그칠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 재구조화운동에서 젠더의 문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교육과 사회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과 사회화가 이루어질 때 성 평등을 통한 농촌지역발전의 성과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촌운동에서의 젠더의 문제를 현재 다양한 농촌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운동을 중심으로 젠더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젠더레짐으로 인해 여성이 배제되는 문제와 사회자본축적에서의 성별차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마을공동체의 재구조화를 살펴본 후, 특정한 농촌지역의 예를 중심으로 그 농촌지역에서 젠더에 의한 지배방식 곧 성불평등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재구조화에서 젠더의 관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젠더레짐과 여성의 배제

현재 한국농촌의 가족집단의 성격에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혼재하고 있다. 아직도 남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고정화되어 있으며 젊은 생산인구층 남성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여성이 농업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사 및 육아노동 등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농촌 여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졌던 것들을 계속해서 전담하면서 그에 더하여 농업생산 활동도 도맡아서 해야만 하는 이중부담의 고충 속에 놓여있다. 현대에 있어서 여성의 이중부담(double burden)은 여성의 유급노동의 참여는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증가하지 않은 현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여성들이 가정경제에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사분담 시간이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하에서 주부로서의 역할기대가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수정과 김은지, 2007:170).

여성의 이중부담 문제는 젠더 및 젠더레짐과 관련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젠더는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별차이가 사회화를 통해

학습되고 강화되며 사회적으로 구성원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다. 젠더레짐은 젠더에 의해 통치되는 방식을 나타내며 여기에 권력관계가 존재한다(원숙연, 2002: 537- 540). 이처럼 생물학적인 성이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역할 수행의 근거가 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적 행위가 규제받는 지배의 문제와 결부된다. 익숙한 습관에 의하여 한 성의 집단이 다른 성의 집단을 사회적, 정책적, 제도적으로 구분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함으로써 지배하게 되는 방식을 ‘전통적 젠더레짐’이라 부르하고자 한다.

성불평등이 전통적으로 또는 관습에 의해 존재하는 경우 ‘전통적 젠더레짐’에 의한 지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현 한국농촌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 같은 성불평등은 가부장적인 지배와 그 가치가 배태된 관행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사회적으로 배제된 결과이다.

현대국가는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법의 제정을 통하여 형식적 합목적성이 달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양성평등에 관한 근대적인 가치가 헌법에 의해 적합하게 강구되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인 젠더레짐’과 관련된다. 형식적으로는 양성평등적인 제도화를 통하여 양성평등의 제도적 수단들이 합리적으로 결합된다. 여기서 양성평등에 관련된 제도화의 다양한 차원이-예를 들면 국가의 헌법, 그것의 하위 법률, 지방의 조례 등에서- 존재할 수 있다.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화는 합리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세계는 법에 의해서 똑같이 규율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는 여러 면에서 합리적인 젠더레짐과 전통적 젠더레짐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비합리적인 젠더레짐-성불평등에 기초한 통치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젠더 불평등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국가나 지역공동체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해소문제는 젠더정책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젠더관계와 관련한 제도화된 유형이 존재한다. 제도화된 젠더정책은 특정국가의 정책 및 정책논리 속에서 발견되는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관행(gender practices) 및 양성 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국가정책 속에서 발현되는 젠더관계와 관련을 갖는다(원숙연,

2002:539-540).

그러나 제도화된 젠더정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젠더레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성차별은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차별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성차별철폐 노력은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법적·도덕적 압력 이상으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획·자원 배분체계의 개혁을 요구한다(장경섭 외, 2004:22). 특히 정부의 성차별철폐 정책¹⁾을 통해 젠더 평등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젠더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젠더의 관점에서의 미세한 사회 구조적인 분석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2. 사회자본 축적의 성별 차이

현재 한국의 농촌마을은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진행된 지속적인 이농과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마을의 존속을 위협받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해체는 마을 내에 존재했던 다양한 집단들의 몰락과 궤를 같이 하는데 이것은 마을공동체의 사회자본의 약화 또는 마을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한다. 즉, 마을공동체에 존재하였던 두레의 소멸과 이식계 조직의 현저한 감소, 그리고 품앗이를 통한 노동력 교환의 빈도수의 감소, 기계화에 의한 농업노동의 생력화에 의한 공동체성원 간의 사회적

1) 남녀평등에 관한 법으로 남녀고용 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있지만 법과 실제 간에 큰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김엘림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시행이후 1999년 5월까지 11년간 각종 분쟁처리기관에 의뢰된 사건 수는 총 104건인데(이것도 중복사건을 제외하면 66건에 불과하다), 이중 법원에 제기된 것은 23건에 불과하다.

여성차별과 불평등문제가 결코 줄거나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의 내용이 현실의 차별실태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체에 의해 법 취지가 축소되고 왜곡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정 여성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이용해 현실의 남녀차별실태를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원이나 노동부 등의 해석에 의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이와 유사한 사건 모두가 법원 등에 제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 등의 경우 대부분이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남성으로서의 이해가 판단과정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사법적 결정과정은 집대성된 법적 규범으로부터 도출되는 추론적 사고의 논리적 과정이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감정에서 그리고 그의 신념과 성향에서 기인하는 개념들에 의해 안내를 받는 문화적으로 결정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심재진, 2002:116-119).

관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존재했던 노동이나 재화의 교환수단들이 현대적인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역 내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은 약화되었고 이는 공동체 내의 사회적 자본이 소멸되어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공동체 내부에서의 사회자본의 증가는 성원 간의 교류관계의 활성화에 따라 상호신뢰의 증가, 상호 의존성의 증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의 증대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외부와의 사회자본의 증가는 사회적 연결망의 확대로 설명할 수 있다. 공동체 내부의 사회자본의 축적이 크고 공동체 외부와의 교류가 개방적이고 활발할 때 공동체의 사회적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²⁾

여성들의 인구비율이 높은 마을공동체 내에서 여성들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이는 곧 공동체 내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인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마을공동체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여성중심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 내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대외적인 일들을 결정하고 대표성을 가지는 문제는 여전히 남성들의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자본의 성격이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마을의 내적 사회자본의 축적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마을공동체의 외적 연결망 구축은 남성의 역할이 기대되고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사회자본 축적의 구조형성에는 농촌사회에 잔존하는 여성을 길들이기 위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확대와 같은 전통적 젠더레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성들의 사회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여성들의 진출이 당연시되어야 함에도

2) 공동체 내부의 사회자본축적이 크고 외부와의 연계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 기회가 증가하는 공동체로, 공동체 내부의 사회자본축적이 크고 외부와의 연계성이 낮은 경우 가족주의적인 성격의 공동체로, 공동체 내부의 사회자본 축적이 작고 외부와의 연계성이 클 경우 아노미적인 성격의 공동체로 유형화할 수 있다(Woolcock, Michael, 1998).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여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젠더레짐에 주목한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 내에 축적된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여성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젠더지배이데올로기³⁾의 철폐가 필요하다. 실제 여성에 의해 축적된 사회자본은 남성에 의해 활용될 수도 있고, 또한 사장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유현숙 외, 2006: 334) 그리고 젠더의 문제는 사회의 민주화는 물론 그 발전적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사회활동의 지원과 각종 조직에서의 여성인력 활용 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자본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나 세계 가치조사(Inglehart, 1998)에서 여성 사회자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연구가 일부 있지만(Moore, 1990), 여성의 사회자본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정도의 연구일 뿐이다(박희봉·이희창, 2006: 127-128).

개인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양적 분석에서는 개인이 처한 부모의 교육 정도 및 지위, 소득 등의 가족 배경, 어떤 성격의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 왔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 왔나 등의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박희봉·이희창, 2006: 132). 이러한 개인별 사회적 자본의 양적 분석은 인적자본이 큰 사람일수록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인적자본의 양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크므로 당연히 남성의 사회자본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단이 아닌 개인에 대한 사회자본의 양적 분석은 자칫 인적자본의 개념 및 내용과 유사하거나 혼동될 수 있다.

대체로 사회자본은 집단에 기초해 형성된다는 주장이 우세한데 가령, 지역범위에서의 한 조사연구(유현숙, 2005: 252-254)에서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심리적 자본 등을 성별에 따라 비교했는데 인적자본의 경우 남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자본에 있어서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사회자본에 관한 남녀의 차이 즉

3)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sex)에 기반하여 특정한 역할이 있다고 가정하거나 요구함으로써 남녀의 불평등한 현실과 지배관계를 은폐시키는 의식체계이다(이민주, 2004: 314). 여기서는 '전통적 젠더레짐'이나 '비합리적 젠더레짐'과 관련된다.

사회자본 축적에서의 기여 정도는 여성이 남성의 그것보다 낮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연구결과(박희봉과 이희창, 2006)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자의 연구가 지역적인 범주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했던 반면에 후자의 연구들은 지역이라는 변수를 무시하고 개인적 접근에서 진행된 연구라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자본 축적의 기여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대외연계성은 남성에게 의해 주도되고 있다. 사회자본에서의 이러한 성별차이와 그 결과로 나타난 성별불평등은 영역으로 분리되어⁴⁾ 나타나고 있다.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도 지역주민의 가치관을 재조직하여 사회자본의 축적을 증가시켜 마을개발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전략의 하나이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한 공동체성원들이 공동체의 사회자본축적에 의한 상호 간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동체 내에 물적자원의 투입에 따른 개발은 성공적인 사회, 경제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회자본축적이 큰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성원들로부터 정당성에 기초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고 경제적 영역에서도 정당성에 기초할 때 마을공동사업에의 참여를 성원에게 의무감으로 촉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주민의 사회자본축적에 의한 통합과 자발적 참여는 마을개발사업에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남상화, 2009:154).

그러나 지역공동체에서의 사회자본의 이중구조는 지배의 정당성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전통적 젠더레짐에 의한 권력관계의 왜곡은 성원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역공동체의 자원투입에 대한 성과는 절반의 성공만을 기대할 수 있다.

3. 마을공동체의 재구조화

농촌마을공동체의 소멸과 해체를 우려한 정부나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최근 들어 농촌에 활력을 주며 농촌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4) 이선미(2004)는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는 순수하게 자원적이지 않으며 구조적으로 성별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조적인 성별 불평등은 단순히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마을만들기운동⁵⁾을 들 수 있다. 그 중에는 주민들의 문제의식 속에서 자발적 성격을 띤 경우도 있고,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자발적 성격이 약한 경우도 있다(하민철, 2009: 179).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과거에 전통적 가치에 근거한 공동체운동과는 그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 현대의 공동체운동은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관의 형성과 마을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적극적인 활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마을에 존재했던 공동체적 규범은 공동체의 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그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러한 규범에서 성원들간의관계에는 개인 자신이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 타인도 그러하리라는 믿음 즉 신뢰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마을 성원들은 마을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의존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존재하며, 개인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개인화된 사회이다.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규범이 개인들의 행위를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개인화된 마을 성원들을 하나의 공통된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로 통합할 수 있을 때 현대적 의미의 마을공동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라 함은 공동체적 의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적인 속성들이 현재 마을공동체에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속성들은 구성원들 간에 활발한 관계망이 형성된 공동체적 속성들로 대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게 되면 신뢰가 쌓여 서로 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송인하, 2010).

5) 마을만들기운동의 목표는 지역에 따라서 또는 마을공동체마다 다양하게 설정되고 추진되고 있다. 그 목표가 공동체의 경제수익사업에 따른 - 가령 농산물 가공시설의 확충을 통한 수익목표에 지향해서, 기간시설의 정비에 의해서, 동종의 수익사업자들의 조직화에 의한 유통의 합리화를 위하여-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마을의 경제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을만들기운동은 마을주민들의 교육과 의식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동기부여적인 내발적 발전(상향식 개발)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가치관의 재구조화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재구조화⁶⁾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가치관은 전통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것으로부터 합리적인 것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마을 공동체의 재구조화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앞에서 서술한 젠더의 관점과 관련지어볼 때 지역주민들이 전통적 젠더레짐에서 합리적 젠더레짐으로 가치관이 재구조화되는 것을 말한다.

성불평등철폐를 위한 추동력은 자아성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⁷⁾,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회운동⁸⁾ 그리고 교육을 통한 아비투스⁹⁾의 재구성⁹⁾ 등 다양한 방향에서 나온다고 볼 때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교육을 통한 아비투스의 재구성은 실천적 목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한 근거로 현재 공동체 재구조화운동에서의 주체인 공동체는 행정과의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¹¹⁾ 그러한 협력과정에서 교육과정(curriculum)¹²⁾의 설정과 그 실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은 이익결사체에 의해서 그리고 행정체계에 있어서는 행정관료에 의해

6) 본 연구에서 '재구조화'의 의미는 기존 사회구조가 행위자에 의해서 항상 변화되어 가는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7) 기든스의 자아성찰성과 사회적 성찰성에 대한 논의와 일치한다. A. Giddens(1990, 1991))참고.

8)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Jürgen Habermas, 1981)을 참고.

9) 새로운 아비투스의 생산에 교육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양성평등의 장(합리적 젠더레짐)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성불평등의 장(비합리적 젠더레짐)과 경쟁, 갈등하게 될 것이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개념에 관해서는 Bourdieu, Pierre(1977)를 참고.

10) 한국 사회에서 남녀 평등에 대한 사회적 제도 및 정책은 양성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평등(equality)이라는 원리 아래 문제점을 제거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차별은 현재까지 유지, 재생산되어 왔다. 이러한 재생산과정에 공교육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교육이라는 헤게모니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남성 중심 사회의 이데올로기 전수 및 재생산을 돕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 고정 관념이나 관행이 교육 정책과 제도, 교육과정에 그대로 스며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학교 교육은 기존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전수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젠더의 불공평성을 양산하게 된다(허창수, 2004: pp119-241).

11) 이 점에 관해서는 Woolcock, Michael(1998)의 논의를 참고할 것.

12) 교육과정의 의미는 교육과정을 수단으로 보느냐,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교육목적을 결정하고 교육내용을 선정·조직하며, 교육결과를 평가하는 절차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출처:브리태니커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2g1661a>).

제시될 수 있다. 행정체계가 민간단체의 조직보다 효율적인 관료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교육과정은 행정체계를 통해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문서화되거나 전문화된 교육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확정될 수 있다.

지역에 존재하는 결사체가 합리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또는 지역 행정조직과의 협치를 통하여 그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젠더불평등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이슈화는 젠더거버넌스와 관련된다.

젠더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사회에서의 젠더거버넌스¹³⁾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이념에 대한 계몽 내지 계발정책에 한정되어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쟁점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정책의 수립이 지역별 여성문제를 실제로 부각시키고 쟁점화 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성공여부는 해당지역의 여성들이 사회집단으로서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며 성숙되었는가에 달려있지만(남영우, 1997:4)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수준에서 젠더거버넌스의 출현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의 사회진출의 제약으로 인한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III. 연구를 위한 면접과 관찰

1. 조사지역의 개관

조사지역인 전북 진안군은 임야가 약 80%를 점하고 있으며 경작지는 약 13%에 불과한 지역이다. 인삼재배 면적이 타 군에 비해 높은 편이며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전형적인 산간지역이다.

진안군은 1978년 15,595가구에 인구수는 87,993명이며 2006년에는

13) 원숙연·박진경(2006:92)은 젠더거버넌스를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 관계를 완화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련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관계구조라고 본다.

11,564가구 27,425명이 살고 있다. 한국의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는 진정되었지만 아직도 인구수의 감소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다. 가구 당 인구수는 2.28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지 않아서 20년 이내에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마을의 해체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1〉 진안군 인구 추이

년도	인구총수	65세이상 인구수(비율)	인구증감율
1998	34,704		
2000	31,359	5,687(18.1%)	- 9.63%
2004	30,877	6,764(23.2%)	- 1.53%
2006	27,425	6,901(25.2%)	-11.18%

(출처: 진안군통계연보, 2010)

귀농인구는 2007년과 2008년 1년 동안 93가구 239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귀농인구수가 자연감소나 이농에 의한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성원의 충원으로서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 농촌의 인구 재생산은 젊은 가구수의 비율도 적지만 젊은 남성들은 결혼상대를 찾기가 어려워 인구 재생산이 제약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성원의 충원은 외국인 신부나 귀농인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일부분 충원되고 있지만 전체 인구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진안의 여성인구는 2008년 27,497명 중 13,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의 여느 마을과 비슷하게 여성들이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역할에 따른 성차별이 많이 존재한다. 남자와의 임금차이도 크고 여성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누구의 아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장미경, 2008).

2. 조사대상자의 면접과 마을회의의 참여관찰

본 연구를 위하여 1차적으로 2010년 3월 30일부터 4월 9일 까지 약 9일간 3개 마을의 주민 9명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접한 내용은 녹취 후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2개 마을(진안읍 연장리 W마을과 부귀면 봉암리 M마을)의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일차 면접조사와 관찰을 마친 후 기록내용을 검토하면서 조사와 관찰에서 미흡했거나 궁금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0일과 11일 양일 간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추후면접을 하였으며 면접내용은 녹취 후 정리하였다. 면접과 참여관찰 이외에도 진안군 마을간사들에게도 연구관심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전화면담을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행정업무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해당 업무의 담당자와의 방문이나 전화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면접을 하였으며 면접시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에서 언제 남성과 여성을 구별 짓는가? (2) 마을사람들은 마을 일에서 어떠한 일을 여성의 일로 또는 남성의 일로 간주하는가? (3) 여성과 남성 중 어느 쪽이 마을사정을 더 잘 알고 있는가? (4)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이 마을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는가? (5) 마을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며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6) 마을사람들은 이장의 말을 잘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7) 현재 마을이장은 어떻게 선출되었나? (8) 여자가 이장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9) 일상에서 남성이 여성을 무시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10)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다고 가정하면, 누가 이장이나 마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안읍 연장리 W마을과 부귀면 봉암리 M마을을 조사지역으로 하였으며 면접조사의 대상자들은 동향면 학선리 H마을에 살고 있는 귀농자(여, 43세) 진안읍 P마을의 마을주민 중 2인(남, 45세, 남, 76세), W마을의 이장 겸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위원장 1인

(여,47세)과 마을간사 1인(여,40세), 봉암리 M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여,73세), 귀농자 1인(남,34세), 간사 1인(남,40세) 그리고 S마을주민 1인(남,53세)등으로 총 9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3명이고 남성은 6명이다.

W마을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마을 이장이 여성으로서 대부분 남성이 이장을 보는 마을과 젠더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 다른 조사대상마을인 봉암리 M마을의 이장은 남성이다.

주민 중에 귀농자를 포함시킨 것은 도시지역사회와 농촌의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질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가정에서 그러하였다. 농촌마을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남아 있어서 도시와는 다르게 귀농인에게 젠더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 귀농 당시 이방인으로서 그러한 면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IV. 마을공동체의 젠더레짐과 공동체 재구조화운동에서의 젠더문제

1. 마을공동체 내의 젠더레짐

다음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사지역에서의 참여관찰과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의 결과 그리고 현재 한국 농촌사회에서 젠더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에 존재하는 전통적 젠더레짐의 다양한 존재형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 젠더레짐은 마을공동체적인 사업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아무런 저항없이 가족 내 성역할의 연장선으로 뚜렷하게 작동되고 있었다. 진안군 W마을의 경우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들도 당연히 마을공동의 일을 가족에서의 성 역할의 확대로 생각한다. 따라서 마을의 공동취사노동은 당연히 여성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¹⁴⁾ 마을의 대소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의 장만과 그것의 서빙은 거의 모두 마을 부녀자들이 해결해야만 되는 노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음식의 조리나 손님을 접대

14)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한국 농촌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하기 위해 음식을 차려내는 일은 여성들의 일로 당연히 하는 관행¹⁵⁾을 엿볼 수 있다. 농촌여성의 고령화로 70대 여성노인들도 부엌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 그녀들은 적어도 그녀들의 부모세대에서는 그 연령대에 ‘앉아서 상차림을 받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 그녀들보다 나이가 적은 손님들을 위하여 ‘확대된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가사노동은 명백하게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해 사회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영역분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남자들은 부엌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된다’ 라든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OO 떨어진다’는 식의 표현에서 영역분리에 의한 성차별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태도는 그녀들의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교육되며 사회화되어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것이다.

다음의 예는 유교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공동체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W마을 사람들은 겨울철 농한기에는 마을회관에 모여서 점심과 저녁을 공동취사 형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남성은 부엌의 일을 도와준 적이 없으며 여성도 공식적으로 취사노동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

남자들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밥상 앞에 가만히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차림을 할 때 수저 놓기, 컵에 물 따라 놓기 등 간단한 것도 거들어 주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아주머니 한 분이 남자들에게 컵에 물 따르는 것이라도 도와 달라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을 향하여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여,W마을 간사).

공동체 집단에서는 오히려 가부장제의 성격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 내에서 가사일을 도와주었던 어떤 사람도 집단 구성원들과 같이 있는 경우 개인의 행위는 집단의 분위기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 집단 속에서 개인은 내면화된 비합리적 젠더레짐에 의해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결국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즉 가정 내에서 아내가 하는 가사 일을 도와주었던 남편도 밖에서는 타인의 기대에

15) 관행은 조직으로 나타나며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행위양식이다.

따라¹⁶⁾ 행동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가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어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밥을 먹을 때 방바닥에 신문지를 펴놓고 밥을 먹더군요. 남자들은 모두 밥상에서 먹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했지요. 어머니들도 남자들과 같이 상을 펴고 밥을 먹자고요. 그 때는 어머니들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을 때 방바닥에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H마을 귀농자).

농촌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가족내에서 가사노동이 분담되어야 한다. 외형적으로 농촌여성들은 여성들만의 일에 국한되어 성별분업화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과 직결되는 일에도 많이 투입되고 있다. 즉, 부부가족 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농촌여성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비중과 시간의 증가에 비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비중이나 역할은 감소되지 않았으며 단지 농업노동의 증가로 인한 가사노동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촌여성들이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으며 농업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농촌진흥청, 1999) 가사노동은 여전히 성 역할로 분담되고 있으며 여성들만의 책임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유소이 외, 2003: 158).

둘째, 마을 주민들이 중시하는 공동체적인 활동으로서 기제사 또는 시제사(묘제) 그리고 조상의 묘소 관리와 같이 남성중심의 친족 결속을 강화하는 행사나 노동은 여전히 전통적 젠더레짐의 재생산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여성은 남성중심의 행사나 노동에서 음식의 준비와 같은 ‘확대된 가사노동’ 형태의 중요하고 실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형식적이고 대표적인 절차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주변인같은 가족성원에 머무른다. 여성들은 결코 ‘친족집단의 성원’이 되지 못하며 그것과 관련된

16) 전통적 젠더레짐을 따를 것이라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의사결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기제사나 시제사가 형식적으로 그 의식적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친족의 범위는 변하지 않았으며, 남성중심의 친족행사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일들은 엄격하게 분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친족범위 내에서 남성 중심의 정기적인 회합과 결속은 남성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는 반면, 여성입장에서는 ‘남성중심의 친족집단의 권력이나 위세’를 인정하게 되는 반복적인 학습효과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전혀 그러한 성격의 모임이 없다는 것과 친족의 중요한 행사에서 여성의 배제는 남성의 우월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레짐과 관련된다.

셋째, 현재 마을공동체 내에 있는 대표적인 여성단체는 젠더레짐을 오히려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현재 마을공동체 내에 있는 대표적인 여성단체로서 새마을부녀회¹⁷⁾는 박정희 정권하에서 여성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을마다 의무적으로 구성한 동원체계이다. 그것은 남성들에 의한 여성 노동력의 동원을 위한 하나의 조직이다. 지금까지도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부녀회의 기능 또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내의 성별분업을 제도화하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에서 ‘확대된 가사노동’의 성격과 관련된 일은 소위 부녀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그러한 성격의 일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남성이 주도적으로 여성이 해야 할 일로 규정해 버리고 여성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효율적인 여성동원의 수단인 부녀회 조직은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지배를 오히려 유지,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마을부녀회와 같은 조직은 개발에 필요한 여성자원을 저렴하고

17) 새마을운동은 농민의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과정이 존중되지 않은 국가가 주도한 농민동원체계이다(김대영, 2004:182). 마을부녀회 조직은 국가에 의해 여성들의 무급노동을 자원활동의 형태로 동원함으로써 조직운영의 물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부녀활동의 목표와 활동방향을 위로부터 강력하게 지도하는 방식으로 마을단위로 조직하였던 것이다. 부녀회 조직 등 지도사업이 강조되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의 사회참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모성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었다(황정미, 2001:181-182).

효율적으로 남성에 의해 동원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¹⁸⁾

진안 마을의 사례로 볼 때도 현재의 마을부녀회는 마을공동체의 여성들의 지위개선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여성을 철저히 성별 분업화하여 동원하고 지배하려는 비합리적 젠더레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W마을이나 M마을의 경우도 예외 없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는 일은 부녀회를 통하여 마을의 여성들을 자연스럽게 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가령, 마을에서 해야 할 일 중에서 그 성격이 여성의 일로 판단이 되면 (가령, 마을잡초제거, 마을회관청소, 마을손님접대를 위한 음식장만, 마을공동 유람 시 음식준비 등) 남성들은 부녀회에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부녀회가 마을공동체내부에 존재하며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여성단체라고 한다면 마을공동체외부에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대외적인 명분만을 내세우는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하다.¹⁹⁾

넷째, 농업생산과 관련한 농업경영체의 대표는 남성이 우선이며 남성이 없는 가정의 경우만 여성이 대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유교적 가부장성의 표현으로²⁰⁾ 남성이 우리 사회질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전통적 젠더레짐의 문제에서 연유하고 있다.²¹⁾

18) 마을부녀회 조직과 관련하여 여성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때,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을 출범으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동원과 전달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황정미, 2001:183).

19) 진안군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연합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아이코리아, 생활개선회, 여성자원활동센터, 부녀소방대, 미용협회 등 11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여성단체들은 사회발전을 위한 공공적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여성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나 교양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장미경, 2008:325). 이러한 문제는 안성시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김경희, 2010)에서도 정부의 지역발전사업이 지역거주 여성을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시키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기획,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여성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 어촌사회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반 권리와 자격들(입호, 어촌계 가입, 조합원 가입, 어장분배 등)이 개인보다는 가구를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가구의 대표권을 가진 남성들이 제반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것은 가족 내에서의 가부장적 요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이수애, 1993:41).

현대 생활인은 누구나 제도화된 서비스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즉, 법적인 영역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복지수혜의 범위에서 그리고 제도화된 금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부여된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가에서 여성의 법적인 지위는 농가의 주부나 남성이 농업경영주가 되고 그 보조인으로서 여성농업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에서 주된 농업노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지위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농업관련정책이나 보험과 같은 보상금산정에 관련된 경우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김경미 외 3인, 2003). 여성농업인이 단순한 노동제공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또는 남성과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²¹⁾이 중요하다(허미영과 박민선, 2003).

다섯째, 현재 대부분의 영농교육프로그램이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영농기술이나 농기계운용 교육 등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은 노동강도가 큰 농업노동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영농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젠더레짐으로 인해 실제적인 교육수요자인 여성이 배제되는 문제는 다시금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거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성차별적인 남성우월주의를 강화하는 식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최근 여성을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도시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일변도의 농정에 내재되어 있는 농촌여성에 대한 차별성과 배제는 농촌여성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권태환과 장경섭, 1995: 33). 2010년 진안군의 환경농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340명이 등록하였는데 그 중 여성은 10%에 불과하다.²²⁾

우리 농업의 특성상 농업생산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족농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1)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재산등록을 이슈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합리적 젠더레짐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22) 이 밖에 여성농업인의 성평등실행과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최근의 논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노동가치평가, 농가도우미와 같은 복지제도의 확대, 교육과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방안 등이 있다.

23) 진안군 농업기술원 자료

우리의 농업은 가족노동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 주요 노동력인 여성인력의 질과 양이 농업경영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정책에서의 성별분리는 여전히 남성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박민선·임찬영, 2007:71-72). 농업인력의 여성화 경향과 전문화에 따라 영농기술요구가 급격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영농기술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농가의 소득확대를 위해서 농가의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농업관련 전문기술 및 농기계사용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임찬영 외, 2006: 159)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비합리적 젠더레짐은 농업생산성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주요 농업인 단체들은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갖는 단체는 모두 남성들로 구성되고 가정영역과 관련된 단체는 모두 여성들로 구성되는 식으로 젠더레짐에 의한 성별분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요 농업인 단체로는 농촌지도사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4-H 연합회 그리고 각 품목단체 등이 있다. 그런데 농업생산과 관련된 조직의 성격이 강하며 영향력을 갖는 농촌지도사회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대로 가정생활 개선과 관련이 있는 생활개선회의 회원은모두 여성들이다. 다시 말하면 농촌집단이 형식적 조직이건 자생적 조직이든지 간에 성별분리가 되어 있다. 이러한 성별분리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배제와 차별 그리고 지배를 내포한다. 경제적인 활동이 중요시 여겨지는 한 생산과 관련된 활동과 그 조직의 성원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성의 배제는 물론 그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의 열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진안군의 경우, 농촌지도사회의 회원은 2009년 기준으로 310명인데 회원 모두가 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800명의 회원 모두 여성이다. 주로 젊은 농업인들로 구성된 농업경영인회의 회원수는 587명인데 영농후계자들이 대부분이다. 농업경영체의 소유자나 대표자는 남성이 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업경영인회의 회원 중 여성회원이 97명으로 전체의 16.5%나 된다. 여기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 부부가 동시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서 이다. 왜냐하면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가입할 경우 사업별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농업노동력의 임금을 살펴볼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임금에서의 성별차이는 농업 노동력의 성별분업화에 의한 차별성에서 기인한다²⁴⁾. 농업노동력이 인력에 의존했던 산업화 이전에는 남성의 생산성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영농의 기계화로 인하여 그 성격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의 농업노동력에 대한 남녀차별 관행으로 인해 남녀의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농촌여성은 남성 농업노동력의 감소로 인한 대체 노동력이지만 여성의 역할로 기대되고 가사노동의 연장 같은 성격을 갖는 노동집약적이고 노동의 강도가 높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다. 반면에 남성들은 농기계의 조작이나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 농산물 출하와 같은 비교적 노동강도가 약한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²⁵⁾

조사지역인 진안의 W마을의 경우 남자의 하루 품삯은 60,000~70,000원이며 여자는 40,000원이다. 여성의 일은 주로 김매기나 고추따기, 매실파기 등과 같은 수확작업과 관련된 일로 노동집약적인 힘든 노동이다. 남자의 일은 주로 농업생산과 관련된 경우 노동강도가 낮은 농기계의 운용과 관련된다.

남녀의 성차별적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같은 노동이나 직무에

24)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은 남녀의 임금차이가 남녀 간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비농업부문에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직종, 같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그것보다 훨씬 낮다. 제도학과(institutionalists)에 속한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이 성별로 분리되어 있어 여성들은 고의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이러한 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유경준, 2001: 205-217). 현재 농촌에서 농업노동이 남녀 별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관점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25)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은 도시와의 생활격차가 심해졌고 농촌의 여성들은 농업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여성들은 가장 노동집약적인 일을 담당하므로 근대기술이 발달시킨 농기계의 도입에 따른 혜택도 받지 못하고 농기계는 남자들의 일을 대체하는데 기여했을 뿐이다. 복합영농이라는 상업농의 발달은 농촌 여성의 노동력을 농한기가 없는 노동으로 만들었다. 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가 본격화된 1970년 대 후반부터 농촌여성의 1년간 총 노동시간은 남성의 그것보다 길다. 1980년 대가 되면서 여성은 품앗이 노동에서도 남성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다. 1980년 대 후반부터 시작된 개방농정과 전업농육성정책은 농촌을 더욱 자본주의화에 편입시켰으나 농업의 생산성은 떨어져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농촌은 더욱 피폐하였으며 젊은 여성의 농촌이탈로 인한 농촌여성의 노령화로 노동강도는 더 커졌다.” (조희금, 2002:85).

투입될 경우 임금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차별의식에 의한 임금차이가 존재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2010년 7월1일 W마을의 마을회의에서는 마을공동작업에 대한 보상 임금을 결정하였다. 당시 회의에서 처음에는 이장(여성 이장)이 남자 일당 50,000원과 여자 일당 40,000원을 제안하였는데 회의에 참석한 남성들의 반발로 거부되었다. 남성들은 ‘왜 여성은 농업노동 품삯을 다 쳐주면서 남자는 안 그러느냐, 그리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 일당이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느냐....’고 불평하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남성들의 항의의 초점은 관행적으로 정해진 남성품삯의 기준보다 제시한 남성품삯의 금액이 적으며 여성과 비교해보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여성과의 불공평에 대한 기준은 일의 성격이나 노동의 강도의 차이, 숙련된 노동으로서 기술적인 차이, 작업에 따른 위험성의 차이 등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관습적인 남녀 노동임금의 차이라는 관행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하여 결국 남자부역자는 일당 50,000원으로 하고 여자부역자는 일당 3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마을공동작업은 주로 마을경관과 관련하여 꽃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들로 여성의 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격의 일이라도 남성이 참여하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차별적으로 책정된 것이다.

2. 마을공동체에서의 젠더레짐과 여성의 배제

일반적으로 지역집단에서 여성이 집단 내 사회자본 축적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레짐으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자본 축적에 대한 기여도는 평가절하되며 왜곡되는 현상이 농촌의 마을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마을공동체에서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볼 때, 전통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리더십은 남성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이었다. 공동체의 대표자는 나이에 의해 또는 성별에 따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규범에 의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다.²⁶⁾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관습에 의해 남성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전형적인 남성 리더십의 전유물이었다. 여성은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남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로 생각하여 마을공동체의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 개인으로서 남성은 여성보다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마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이 지역공동체에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동체의 대표는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의식과 결합되어 나타난 전통적 젠더레짐의 표현방식이기도 하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각 마을의 대표자는 거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여성 마을 대표자가 있다면 그 경우 이장집단 내의 공동행사나 친목의 모임 등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젠더와 관련된 문제로 이장집단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 여성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기 쉽다.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여성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장집단을 포함한 행정체계에서 남성 중심으로 의사결정과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젠더관행을 이용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즉 성차별적인 행정의 편의성이 있을 수 있다.

진안군의 경우 진안군내 이장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알 수 있다. 2010년 6월 현재 진안군의 마을 대표인 이장의 수는 모두 294명이며 이 중 여성은 단지 6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288명은 남성이다.

면접한 진안군 W마을의 여성이장에 의하면 처음에 자신이 마을의 대표로 뽑혔을 때 마을 남성들의 우려 섞인 말과 여성혐오적인 말이 많았다고 한다. 즉 마을 남성들로 부터 ‘여자가 뭐를 알아서 앞에 나서나’ 또는 ‘이장은 남자가 해야지’ 등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여성이장은 자신이 마을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하였다. 이 마을에서 여성이 이장이 된 이유 중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성 동년배들의 권유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동네 안에서 서로 간에 접촉 기회도 더 많고 동네 돌아가는 사정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여자가 이장이 된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다는 논지였다.

26) 전통적 지배

“제가 이장을 하겠다고 나서자 마을사람들 특히 남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동년배들이 몇 있는데 그들이 어렵더라도 한 번 이장을 해보라는 권유도 있고 해서 이장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들이 마을사정을 더 잘 아는데 여자라고 이장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저를 앞장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사람들이 제가 이장이 된 것에 대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잘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여,W마을 이장,OO세).

진안군의 M마을의 경우 마을회의를 두 번 관찰한 결과 마을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성들이었다. 마을회의는 마을공동체의 대부분의 안건들을 토의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여성들에 의한 결정사항은 그녀의 남편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소득과 관련된 일이거나 마을사업 같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마을일에 대해서는 남성의 권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여자들은 여자들의 일이라고 생각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결정할 때 여자들이 모여서 회합을 갖고 마을의 사업과 같은 중요한 일은 남성이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결정을 합니다” (마을주민 Y의 말).

이 마을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수가 많아서²⁷⁾ 여성들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대부분의 마을 내 활동을 여성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자원의 도입에 의한 마을개발사업과 같은 일들은 남성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이 마을에서 여성들이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는 마을잡초제거, 마을회관청소, 마을손님접대를 위한 음식장만, 마을공동 유람 시 음식준비 등이다. 반면, 남성들이 주로 결정하는 일들은 마을사업과 관련된 경제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즉 공식적인 일에 관련된 경우는 남성이 개입하고 비공식적인 일들에 관련해서는 여성들 간의 정보교환이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²⁸⁾ 이는 마을 내의 실제적인

27) M마을의 전체 34가구 중에서 남성단독가구주는 없으며 순수하게 여성 단독 가구주의 수는 10가구이다. 이 마을에는 111명이 살고 있다.

활동들이 여성들간의 관계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결국 권력의 중요 요소인 경제적인 자원의 결정과정은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어 여성은 주변적 위치에 머무르는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마을회의에 주로 참석합니다. 이장이 이장회의를 갔다 와서 결과 보고를 할 때, 술맥이날 행사를 위한 음식을 장만할 때, 마을손님 접대를 위한 음식을 준비할 때, 마을에서 공동으로 놀러가는 일을 상의할 때, 마을회관을 청소할 때, 마을주변 잡초를 제거할 때 등과 같은 것은 여자들끼리 회의하여 결정하고 여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M마을 이장)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마을공동체 내에서의 성원 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하여 성원들 간의 상호신뢰관계를 공고하게 구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내의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 내에서의 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축적에 대한 기여도가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연결망에 의한 사회적 관계는 남성의 역할로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사업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성들이 결정하고 있으며 마을의 외적인 대표성은 역시 남성의 역할로 간주하고 있어서²⁹⁾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전통적 젠더레짐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M 마을공동체에서 합리적인 젠더레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큰 여성이 마을의 대표자가 되고 공동체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도 여성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현재 M 마을의 대표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 젠더레짐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어떤 여성이 마을의 대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28) Lowndes (2000:534) 은 콜만과 퍼트남의 사회자본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남성중심적인 집단이나 결사체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남성은 공식적인 조직 활동 분야에서 여성은 비공식적인 조직의 활동영역에서 사회자본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Cox, 1995; Edwards, 2004; Lowndes, 2000; Karen Healy, 2007에서 재인용).

29) 진안군의 이장 중 여성은 2%에 불과하다.

높다.³⁰⁾

진안군 W마을의 마을회의를 관찰한 결과 마을의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은 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이 그 회의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거의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관찰당시 이 마을회의에 참석한 남성은 13명이었으며 여성은 4명으로 전체 회의 참석인원의 23.5%였으나 한 번도 회의안건과 관련된 의견을 내지 않았다.³¹⁾ 이 마을은 남성중심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남성과 여성들이 내면화한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여성의 문제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배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³²⁾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운동과 관련한 민간조직의 경우도 그러한 사정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 조직의 구성원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고 정기회의에서 여성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아서 주요 안건에 대한 처리는 남성중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³³⁾

조사지역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로 진안군이장단협의회를 들 수 있다. 이 공식조직의 구성원은 모두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³⁴⁾

30) 여기서 좀 더 상세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M 마을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마을의 대표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마을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대학을 나왔으며 마을축제 기간 중에 보여준 활발한 활동에 비추어보면 그리고 한 학습모임에서 보여주는 탁월한 능력을 고려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 마을의 현 남성이장은 40대 초반의 고졸학력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늦은 나이에 외국인여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는 인적자본과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얻는 신뢰(사회자본)에 의한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31) 연구자들은 2010년 5월 14일 본 마을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주요 안건으로는 마을도로 확장사업 및 마을공유재산인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론과 그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다.

32) 한국의 언론의 젠더에 대한 답론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보수성향의 신문이나 진보성향의 신문 모두 여성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가부장적 여성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기사의 작성은 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언론조직은 남성의 가치판단이 반영된 남성편향적 뉴스프레임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김훈순, 2004).

33)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는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 이 협의회의 마을만들기 추진위원장은 마을을 대표하는데 30개 마을의 대표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28명은 남성이고 여성은 단 두 명뿐이다. 이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4) 진안군의 경우 2010년 진안군 이장단협의회에 속해 있는 이장의 수는 22명인데 그 중 여자가 한 명도 없는 남성중심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의 성원들은 행정면

한 달에 한 번씩 군수를 만나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지자체의 핵심조직의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의 절대적인 비율의 차이는 젠더레짐이 작용한 결과이며 지자체의 정책논리 속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젠더 이데올로기나 젠더관행(gender practices)을 엿볼 수 있는 젠더정책³⁵⁾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역공동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부응하는 사회진출의 기회가 차단되어 여성의 사회적 권력 또는 권위의 표상이 젠더레짐에 의해 제약되는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에서의 젠더문제

현대에 있어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재구조화 할 수 있는 학습과 교류가 중요하다. 공동체 성원의 인적자본은 공동체의 기초 위에 성숙된 통합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 공동체의 통합성의 기반이 없다면 개인 중심적(아노미)인 발전만이 있을 뿐이다(송인하, 2010).³⁶⁾ 인간적 유대와 공동체의 회복에 기초한 마을만들기운동은 지역의 특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원칙과 실천이 성공의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김영정, 2006: 19).

개인과 지역공동체는 마을만들기운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만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성원으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배려, 양성평등을 포함한 인간의 평등에 대한 가치관 등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진안군의 경우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의 하나인 마을만들기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성원들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남녀평등에

사무소에서 추천된 이장들로 구성된다.

35) 젠더정책이 작용한 또 다른 예로는, 오랫동안 주류 교육정책분야에서도 젠더의 문제는 주요 정책의제로 고려되지 않았다. 젠더의 문제는 199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한편에서 그 동안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책의제로 상정하려고 노력했으나 그것이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의 공식의제로 채택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민무숙, 2002:91).

36) 2장 3절의 논의를 참고할 것.

기초한 민주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위한 교육과 사회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젠더레짐의 문제가 고려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2009년 진안군 마을축제기간 동안에 ‘마을만들기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학습교류의 성격을 지닌 이 대회는 9개 학습군 20개 분과로 구성되었다. 학습 분과는 마을신문, 마을홈페이지, 공동체라디오, 마을도서관, 마을만들기와 갈등관리, 한글글쓰기캠프, 마을생태자원찾기, 마을문화자원찾기, 진안마실길, 농촌문화활동강화, 전통술담기, 귀농과 건축, 마을 건축, 건축과 공동체 형성, 생태공동체, 기후변화농민대책반, 에너지자립마을, 농촌마을사회적기업, 농촌마을다문화가정, 학교급식조례, 무진장체험마을 네트워크, 마을만들기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009년 진안군마을축제 기간 동안에 열린 학습교류회에 956명이 참가하였다(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 2009:3).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는 이 대회의 개최의 목적을 농촌형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학습행사, 지역 풀뿌리 역량 강화와 전국 네트워크 구축,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한 마을만들기 민관협력체계 모델 제시 등에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 2009:16). 이 기간 동안에 열리는 다양한 분야의 학습교류는 지역주민들의 가치관의 재조직화에 기여하고 있다. 즉 전문가적인 성격의 학습교류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역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교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20개 분과 중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은 진안군마을만들기운동에서 성차별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자체 차원의 농촌지역사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내용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농업관련 기술교육, 농업경영에 관련된 교육,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그리고 평생학습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대상자 선정은 피교육자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피교육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체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정에 젠더평등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에 마을만들기운동은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

교육의 장(場)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진안의 마을 간사제도는 지역에 인재를 충원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지만, 장차 지역 구성원이 될 간사들의 가치관을 재구조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마을간사의 교육내용은 선진지의 견학, 강연회, 마을 간사활동에 대한 보고회, 마을사업비 집행요령 등을 담고 있다. 여기서 선진지 견학이나 각종 강연회는 실제로 간사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시키려는 교육목적이 있다.

2009년 마을간사 25명 중 여성은 5명이고 나머지는 남성이다. 간사를 위한 교육과정에도 역시 성차별해소를 위한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³⁷⁾

또한 마을공동체 가치관의 재구조화 과정으로서 중요한 현상으로 진안군마을축제를 꼽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 마을성원들의 가치관의 재구조화를 꾀하고 해체되어가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있다.

마을축제는 마을 별로 진행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 전통적인 내용을 복원하는 축제와 현대적으로 마을에 맞게 새로 기획한 것이 있다. 술맥이 행사, 용왕제, 단지봉 축제, 산골 천렵체험, 옛날 시골체험 등은 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마을행사를 복원한 것이고 모깃불 음악회 같은 것은 현대적인 정서를 반영해 기획된 마을축제이다(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 2009).

2009년 진안군마을축제에는 많은 외부인들이 참여하는데 10일 간의 축제기간 중에 마을방문객은 10,904명이었다. 마을주민들은 외부인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하게 된다. 외부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을 여성들이 모여 많은 양의 음식준비를 해야 하므로 여성들은 고단하기 마련이고 자연히 마을축제를 꺼리게 된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장만이 가장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의 남성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송인하, 2010).

이상과 같이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운동에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젠더

37) 본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해당 남성공무원이 기획하였다.

관점에서 보면 그것과 관련된 평등권 실현을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비합리적 젠더레짐이 존재하는 현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전통적 젠더레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암묵적 행동은 곧 그것들을 당연시하고³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진안군의 신활력사업³⁹⁾에서도 성평등 측면에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사업은 없으며, 실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성평등적 사업을 수행한 것은 매우 빈약하고 제한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장미경, 2008: 325).

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볼 때 현재 농촌의 마을공동체에서는 젠더레짐이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남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마을만들기사업같은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에서도 다양한 사업프로그램과 제도, 행사의 과정에서 젠더의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남성중심의 일방적이고 성불평등적인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공동체운동은 그 성원들의 의식과 자산을 동원시켜 그것을 어떻게 사회자본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Nan Lin, 2001:17-21; 황달기, 2004:195). 여기서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문제는 지역사회개발의 성패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공동체 성원들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지도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때 마을공동사업에 따른 그들의 참여를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현재 마을공동체 재구

38) 버거는 생활세계를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세계(social world)로 보고 있다. 당연시 여겨지는 세계는 사람들에게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외적인 실재로서 여겨지는 사회세계는 타인들과 함께 공유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그래서 거의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실재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연적 태도'에서 물러나 당연시함을 철회한다면, 그 세계의 견고성의 양태는 급격하게 변모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김광기, 2001:390-401).

39) 마을만들기운동의 재정적 지원은 상당부분 신활력사업에서 온 것이다.

조화운동의 하나로서 마을만들기운동은 바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상향식 개발방식이다.

현재 마을공동체는 과거에 비해 해체의 과정을 겪고 있으나 마을구성원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여전히 비민주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이 팽배하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마을구성원인 여성과 남성들의 행위를 지배한다는 점은 마을공동체의 재구조화에 있어서도 재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공동체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목표설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은 새로운 민주적 가치의 창출을 위한 조직적인 사회운동에서 주민을 교육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의 성과는 여성차별의 모순과 성역할 인식의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적절한 교육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을 때 나타날 것이다.

지역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성원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구조가 형성되고 개인과 지역사회차원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기획과 실행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역결사체와 지방행정조직의 협력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거버넌스가 이루어질 때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이 합리적으로 구성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민업무를 추진하는 남성지배적인 행정조직이나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에게는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젠더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그것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⁴⁰⁾.

효과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서 젠더불평등관행의 철폐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관료조직에서 주류는 남성지배적이기 때문에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관료조직 내에서 이슈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40) 주류(mainstream) 혹은 남성(malestream)정책분석가들은 자신들의 대부분이 남성을 위하여 혹은 남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젠더 문제에 대하여 둔감하기 때문에 젠더 관련 이슈가 그들의 이론과 관심과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Kenway,1990 ; 민무숙, 2002:81 재인용).

따라서 남성지배집단에 의한 자발적인 철폐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차원에서 젠더정책의 철폐를 관료제적 행정조직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다고 본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⁴¹⁾라는 사회결사체가 존재하고 행정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결사체는 행정조직과의 권력관계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거버넌스 형성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운동의 핵심주체인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보다 관료제적 행정조직이 우세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그리고 교육을 위한 물적자원 및 교육 전문가의 동원은 행정관료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공동체재구조화운동에서 사회결사체의 역할은 약화되고 행정의존적인 관치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지속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 새마을운동과 같은 하향식 발전모델과의 차별성이 없게 되며 다만 형식적으로 상향식 발전전략만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에서는 지역사회결사체에서 주관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을 통해 성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운동은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닌 마을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할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결사체에 대한 행정의 배려가 필요하며 행정조직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사회조직운동의 가치와 그 운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젠더평등의 실천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단체와의 교류도 필요하다. 사회운동단체는 많은 전문가가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이 실행될 때 학습효과는 배가되며 지역성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불평등한 젠더레짐의 철폐는 합리적 젠더레짐의 제도화가 달성됨을 의미하며

41) 약 40여 개의 마을대표들로 구성된 사회단체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할 것이다.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운동은 지역주민과 함께 가야하는 긴 여정이다. 그것의 성공은 공동체성원들이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 의식화되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마을공동체 내에서의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의 축적의 기여도가 높은 여성이 공동체 외부와의 연계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결국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움직일 때 지역사회의 성장이 보다 민주적인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적 성과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지역발전사업의 정책과 프로그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공동체재구조화운동에서는 무엇보다도 젠더의 관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용배(2003). 지역사회 정체성과 사회자본형성 요인분석-지역사회 공동체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2호, 한국정책과학학회, pp.189-215.
- 강혜정(2008).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Vol.31, No.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69-81.
- 권미정(2003). 현장에서 1 : 여성은 노동운동의 주변인?, 노동사회, Vol.7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권태환 · 장경섭(1995). 한국 가족농 재생산 체계의 위기-가족 주기별 분포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1호, 한국인구학회, pp.1-39.
- 김경미, 최윤지, 조현숙(2001).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시론적 접근, 亞細亞女性研究 第40號,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김경미, 유소이, 최윤지, 조현숙, 이한기(2003).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앞으로의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김경희(2010). 지역발전정책에서의 성주류화, 국가와 젠더-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이재경 외, 서울:한울. pp.268-313.
- 김광기(2001). 당연시되는 세계와 자기 기만- 일상성에 대한 피터 버거의 현상학적 사회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18집, 한국현상학회, pp.388-416.
- 김대영(2004). 박정희 국가동원 메커니즘에 관한연구-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61권, 한국산업사회학회, pp.184-221
- 김영정(2006).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발견-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p.2-21.
- 김영혜(2004).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 유배우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영향에 대하여, 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 pp.1-30.
- 남상화(2009). 사회자본 논의 맥락에서 본 권력의 정당화, 2009 서울행정

- 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발표논문집(上), 서울행정학회.
- 남영우(1997). 도시재구조화와 젠더(gender), 대한지리학회보 제55호, 대한지리학회, pp.1-14.
- 농촌진흥청(1999). 시간으로 본 농가부부의 생활. 농촌진흥청.
- 박민선 · 임찬영(2007). 여성농업인 인구 추계와 정책적 함의, 농촌사회, Vol.17, No.1, 한국농촌사회학회, pp.69-90.
- 박수미 · 정진주 · 박선영(2005). 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참여 - 노동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희봉 · 이희창(2006). 여성 사회자본 형성 특징과 결과 - 한 · 일 · 중 3국의 여성 사회자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년 동계학술대회, 2006. 1, pp.125-152.
- 송인하(2010). 마을공동체운동의 성공조건과 과제 : 진안군 사례, 2010 지역사회학회 춘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지역사회학회, pp.143-175.
- 심재진(2002).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문제에 대한 고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과 "차별의 정의" 조항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Vol.2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pp.115-148.
- 원숙연(2002). 젠더-정책 레짐(gender-policy regime): 의미와 쟁점,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pp.537-552.
- 원숙연(2004). 여성정책의 실질적 기능화 -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pp.102-119.
- 유경준(2001). 성별 임금격차의 차이와 차별, 한국개발연구, Vol.23, No.1,2, 한국개발연구원, pp.195-231.
- 유석춘 · 장미혜 · 정병은 · 배영 편역(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출판사.
- 유소이 · 최윤지 · 조현숙 · 김경미(2003).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관한 연구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대한가정학회지, Vol.41, No.7, 대한가정학회, pp.69-81.

- 유해미(2006). 젠더 차원에서 본 경제적 세계화의 두 얼굴: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 한국사회학회, pp.233-257.
- 유현숙(2005). 여성자본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여성의 인적자본 · 사회자본 · 심리적 자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2005년 제44집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pp.225-259.
- 유현숙 · 곽현근 · 배지연(2006). 여성의 동네사회적자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22권 2호, pp.315-337.
- 이민주(2004). 아젠다 특성에 따른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택적 수용과 배제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통시적 비교연구, 2004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회, pp.313-327.
- 이선미(2004). 여성의 시민참여와 사회자본: 자원결사체 참여의 성별분리,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 한국여성학회, pp.163-193.
- 이수애(1993). 도서지역 농어민의 생계유지 전략과 성별분업 - 소안도를 중심으로 -, 도서문화, Vol.1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pp.333-374.
- 이재경 엮음(2010). 국가와 젠더: 성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서울: 한울.
- 임찬영 · 최윤지 · 김경미 · 이진영(2006).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기여도와 기여도에 대한 인적자본요소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Vol.44, No.3, 대한가정학회, pp.153-161.
- 장경섭 · 오세란 · 이연주 · 김동훈 · 이상영(2004).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1-49
- 장경섭(2009). 가족 · 생애 · 정치경제 - 압축성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장미경(2008). 신활력사업의 민주성과 성평등성-전북 진안의 '생태건강 산촌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42, 호남문화연구소, pp.297-340
- 조은(2010).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학 제26권 1호, 한국여성학회, pp.69-95.
- 조희금(2002).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및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pp.75-86.
- 하민철(2009). 환경보호 운동,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 공동체 형성 - '산남

- 두꺼비마을'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pp.1790-1806.
- 허미영, 박민선(2003).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실태와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 허창수(2004). 한국 교육에서의 젠더 평등과 공평—여성 연구에 대한 개념 확장의 필요성—,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교육사회학회, pp.119-246.
- 황정미(2001).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1960~70년대 한국 부녀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 Giddens(1973). Central problems in social problems, U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윤병철, 박병래 역, 사회이론의 주요 쟁점(1991). 문예출판사
- A. Giddens(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 이윤희, 이현희 역(1991).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 A. Giddens(1991). Modernity &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권기돈 역(2010).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 Bourdieu, Pierre(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skin Robert J. et al.(2001). Building Community Capacity.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Chaskin Robert J.(1997). "Perspectives on Neighborhood and Community: A Rea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ervice Review, 71(4), pp.522-548.
- Chaskin Robert J.(2001). Building Community Capacity: A Definitional Framework and Case Studies from a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 Urban Affairs Review, Vol. 36, No. 3, pp. 291-323.

- Cox E (1995). A truly civil society, 1995 Boyer lectures, Sydney, 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
- Edwards R (2004). Present and absent in troubling ways: families and social capital debates, *The Sociological Review* 60, pp.1 - 21.
- Karen Healy, Michele Haynes, Anne Hampshire (2007). Gender, social capital and location: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16, pp.110 - 118.
- Lowndes V (2000). Women and social capital: a comment on Hall's social capital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 pp.533 - 537.
- Max Weber(1976). *Wirtschaft und Gesellschaft*, J.C.B. Mohr(Paul Siebeck) Tübingen; 박성환 역, 1997, *경제와 사회*1, 문학과지성사.
- Max Weber(1988).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herausgegeben von Johnnes Winkelmann, J.C.B. Mohr(Paul Siebeck) Verlag Tübingen ; 막스 베버 지음, 엄동훈 옮김, 2003, *문화과학과 사회과학 방법론*(1), 일신사.
-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편역. 2003. □□사회자본 이론과쟁점□□. 그린출판사).

Restructuring rural community from gender perspective

Lim, Choonhee* · Song, Inha**

This study revealed gender regime worked still as a constraint of women's social activities in spite of the high population rate and the high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of women.

Women's contribution to the social capital accumulation in rural village got far ahead of men's. However, men monopolized the representative of community in most of rural villages, because they had taken for granted the representative of an external network of village was a role of male. Judging rationally i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within a village, it is more efficient for women to make a networking with outside world on the basis of social capital in inner village.

In spite of the high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of women, outer networking of women was constrained to sex role. This phenomenon was explained by gender regime.

There were many overlapped gender inequality in the level of rural village. These supported the existence of gender regime in community.

Having been limited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network of women, successful development of community have been remained also unfulfilled. To overcome this problem and restructure community movement, community members must recognize gender problem and aim to educate democratic community members gender equally.

Key words: gender, gender regime, restructuring rural community

* Kunsan National University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North Korean Gender Roles and Changes in Women: Under the Military-First Politics and the Economic crisis

Park Young-Ja*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North Korean gender roles and changes in women in the process of the social transition under the military-first politics and the economic crisis after the mid 1990s—focusing on gender roles by the military regime and the women's behaviours/minds as well as their economic activities as the major source of the peoples' survival basing on family and changes of the society from below. The main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prior studies and survey method as a qualitative study, gender roles in the military-first era, warriors for survival doing family's support and societies' maintaining, strong viability and effect of private property, changing of the traditional gender role and consciousness, and then market economy and woman in conclusion.

According to this study, women awareness of gender roles and the hierarchical order, constituted by the political authority, have begun to be reconstituted by the economic activity and change of their mind/behaviour. The change in women's ideas and behaviours often cause a crack in the hierarchical order between men and women in North Korea. Meanwhile, they are rapidly merchandising. In particular, the "sex business"/human trafficking of women have been on the increase. Therefore, North Korean militarist system and market economy from below provides women with both the light and the darkness in the process of the social transition under the military-first politics and the economic crisis after the mid 1990s.

*Ph. D. Political science. Research Professor, Institution of Unification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sister1102@hanmail.net). Main studies: North Korean Women and System, Relationship of South North Korea and Unificati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integration.

With strong women's social value and voice than before, on the one hand, the most serious health consequences for women that the hunger and malnutrition stemming from the food crisis and the abundant responsibility/ labour have brought on develop during pregnancies, child-deliveries, child rearing, and when in a state of deteriorating health. On the other, We have to be worthy of notice is that the rise of the individual in the change has resulted in a paradoxical transition of private life that is characterized by a surge of egoism and the rise of the uncivil individual, who emphasizes the right to pursue personal interests yet ignores her moral obligations to the public and other individuals. These results will, also, be important to study and policy on female defectors about 80%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Key words: gender roles, changes in North Korean women, the military
-first politics, economic crisis, market economy from below

I . Introduction

North Korea's military-first politics (sŏnkun chŏngch'i) beginning in 1995 has become a structural survival strategy of Kim Chŏng-il's regime und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crises' situation in the 2000s. The regime has been to mobilize the military to control the society, restore order,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carry out major construction projects. Although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on the people has been cut off except for army, high-level party/government's officials and Pyongyang's partial residents because of economic crisis, the country's key industries have been in the area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dustry. The regime has tried to transform the country into a 'militarized' society because the politics has been possible when the whole society and family strive with an attitude and spirit of the military (Kim Jae-Ho, 2000; Chon Hyun-Joon et al., 2009: 15).

During this process, the society and family have been influenced by the military culture. Gender roles²⁾ have been also divided: males are, at all times, ready to go to war whereas females take care of daily life. Before the time, North Korean normal women did housework, raised the children, and participated actively in socialist construction movements. They attempted to stay faithful to the roles given to them. They kept up a life of being a revolutionary and a good

2) The concept of gender focuses o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hierarchy structure of human community that changes the idea of biological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to discriminatory (Susan Hanson and Geraldine Prat, 1995). Gender roles also refer to the set of attitudes and behaviours socially expected from the members of a particular gender identity. Gender roles are socially constructed which are often politicised and manipulated, which then result in the oppression of people. http://en.wikipedia.org/wiki/Gender_role Last on 15 September 2010.

housewife with traditional values, as the regime requested. However, after the mid 1990s, family was forced to survive on their own and the women's lives changed completely. The politics forced North Korean women to take the lead in providing for their families in place of their husbands. The fact that women had to take on these roles is largely dependent on the idea of division of labour according to traditional gender roles, which state that women must obey their husbands, look after their young, and do the housework. Furthermore, the social notion that it is embarrassing for men to pursue commercial activities also brought about the change in women's lives (Cho Jeong-Ah et al., 2009: 31-32).

The politics didn't succeed in being supported by the normal people, especially by the women; because it impose a survival burden on family and women while the men/ husbands make take care of the countries' defence, military industry and public business basing on sexual role norm/model during the war.³⁾ The women have to shoulder the responsibility for family survival and peoples' economy and go to marketplace in the crumbled situation of PDS. In this condition, the market economy from below has expanded and the women leading private initiated economy have appeared changes of traditional mind as well as behaviour.

The social status of women, doing business for survival of their family, has been sometimes raised or gained valu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id agencies that have been involved in the aid of North Korea, as of 2004, out of 330 households they surveyed in North Korea, 30 percent of North Korean women identify themselves as full-time housewives and the rest of the 70 percent say that they are involved in some kind of economic or trade activities. The latter also

3) The men's roles are in the front line, the public duty and national mission while the women's roles are in the home front, private affair and economical business.

identify themselves as the breadwinner of her own household. There are a greater number of women than that of men among people who do border trad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o exchange daily commodities or are permanently settled down in China. You can see North Korean women not only selling commodities in a marketplace but also driving a truck or carrying a heavy luggage on her back. It is women who run the market economy of North Korea.⁴⁾ According to Richard Reagan, Director of the World Food Programme (WFP) in Pyongyang, as of 2005, North Korean housewives running in marketplaces have become the beneficiaries of the new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⁵⁾ Under the military-first politics, the marketplaces were crowded with women who were trading from dawn to midnight. These days, more and more women in North Korea are exposed to and attracted by money, fashion and values that have been created through the market economy.

Meanwhile, it has been well accepted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would not be able to revitalize on its own. If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is not capable of guaranteeing its people the right to subsistence, stays for long or if the North Korean (food, economy, security, and regime) crisis becomes more serious, who would be suffering the most? The answer is the North Korean women who have formed and operated the market economy on which tens of millions of people's lives depend. These women led the market economy of North Korea where the majority of men have been conscripted to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orking at the military industry according to the country's defence policy, and with the officer/management of the society. So the normal men didn't well

4)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4/08/09/seg4>, Last visit on 15 November 2008.

5)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5/04/07/nk_women Last visit on 15 November 2008.

take care of family because of the social role and norm in the time war.

Having considered this social reality of North Korea, this study on gender roles and changes in the women, under the military-first politics and the economic crisis, will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ety and to study on North Korean women. This paper, therefore, aims to examine gender roles and changes in North Korean women in the process of the social transition under the military-first politics and the economic crisis after the mid 1990s—focusing on gender roles by the military regime and women's behaviours/ minds as well as their economic activities as the major source of the peoples' survival basing on family and changes of the society from below.

II. Survey method and Sample

The recent important prior studies connected with this paper were achieved by Im (2004),⁶⁾ Lee (2004),⁷⁾ Kim (2006),⁸⁾ Park (2006),⁹⁾ Noh (2006),¹⁰⁾ Cho (2007),¹¹⁾ and Lee (2007).¹²⁾ Although

6) Im Soon-Hee, Food Problem and the Change of North Korean Women' Role and Consciousness (2004),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4. pp. 49-77.

7) Lee Mi-Kyung, "Yesangjeginn yeoseonsangyul thonghaebon bukhanui yeoseong jungchach," [Women's Policy of the North Korean through the View of Ideal Women with Contents Analysis of Choson Women], The Study of China-Russia Vol.28, no2 (2004), Seoul: Hanyang Univ. pp. 145-173.

8) Kim Seok-Hyang, "Bukhangongsikdamlonehe genderpunkdungguah yeoseongguallyul gaenheum bunsuk," [An Analysis on the Concepts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in the North Korean Official Discourses], The Journal of North Korean Study Vol.10, no.1 (2006), Seoul: The Society of North Korean Study. pp. 25-51.

9) Park Young-Ja, "Sungunsidae bukhan yeoseongui sexuality yeongu(1995-2006)," [The Sexuality of North Korean Women in 'Songun' Politics period (1995-2006)], The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2) (2006). Seoul: The Korean Institution for National Unification.

articles/works of Lee (2004), Kim (2006), Park (2006) and Lee (2007) inspired this study with various ideas, those studies aren't so dynamic and well showed North Korean women's behaviour/mind because of mainly discourse analyses with articles selecting from/on Choson Women (chosen nyeoseong), the magazine is a channel of the North's official discourses and policies about women, and Workers' Daily (rodong sinmun). While, studies of Im (2004), Noh (2006) and Cho (2007) attach importance to North Korean women's behaviour and mind under the economic crisis. I think that two studies' trends have to mix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us, this study bases o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tries the content analysis as a qualitative study, which is subsequently double-checked by the testimon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official documents/ literatures of North Korea. In society like North Korea, where the male military culture by 'party-state unification' power is absolute, the surviving skill of women subtle and varies. So, rather than the small number of heroines/high-level officials, ordinary North Korean women's experiences, mind, and behaviours should be carefully investigated. This study, therefore, attaches importance to the in-depth interviews with ordinary North Korean defectors. These in-depth interviews practiced with some key informants during April 2008 to March 2010. Table 1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epth interviewee.

10) Noh Gui-Nam, "people' Lives," The Social Culture of North Korea compiled by Sejong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Paju: Hanul Academy, 2006.

11) Cho Jeong-Ah,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7.

12) Lee Sang-Kyung, "Bukhannyeoseongjakgaui jehjakehse femalejungchesungul yeongu," [A Study of Female Identity in Works by North Korean Women Writers], The Korean Journal of Women Literary Study Vol.17 (2007), Seoul: The Korean Society of Women's Literature. pp. 349-385.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epth interviewee

ID	Gender	Age	defecting time	Occupation in North Korea	Region of Origin
1	F	60s	Jan. 2006	Housewife	Najin, Hamgyŏngbuk-to
2	F	60s	Feb. 2007	Saleswoman	P'yŏngyang
3	M	50s	Dec. 2007	Chief of trade business	Ch'ŏngjin, Hamgyŏngbuk-to
4	M	50s	Nov. 2007	Factory engineer	Musan-kun, Hamgyŏngbuk-to
5	F	40s	Mar. 2007	Mine clerk, Restaurant manager	Musan-kun, Hamgyŏngbuk-to
6	M	40s	Dec. 2006	Worker of business earning foreign currency	Ch'ŏngjin, Hamgyŏngbuk-to
7	F	40s	Feb. 2006	Senior factory engineer	P'yŏngyang
8	M	40s	Jan. 2006	Foreign trade manager	Ch'ŏngjin, Hamgyŏngbuk-to
9	F	40s	Jun. 2007	Money exchange, Smuggler (illegal trade with China)	Musan-kun, Hamgyŏngbuk-to
10	F	40s	Nov. 2006	Collective farm member	Haeju, Hwanghae-to
11	M	30s	Jan. 2006	Youth League cadre	Ch'ŏngjin, Hamgyŏngbuk-to
12	F	30s	Jul. 2006	Factory worker	Onsŏng-kun, Hamgyŏngbuk-to
13	F	30s	Jan. 2006	Saleswoman belonging to trade business	Ch'ŏngjin, Hamgyŏngbuk-to
14	F	30s	Aug. 2006	Saleswoman	Hyesan, Yanggang-to
15	M	30s	Nov. 2007	Staff of external(international) affairs agency	P'yŏngyang
16	F	30s	Sep. 2007	Petroleum blackmarketeer(Smuggler)	Ch'ŏngjin, Hamgyŏngbuk-to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epth interviewee

ID	Gender	Age	defecting time	Occupation in North Korea	Region of Origin
17	M	40s	Feb. 2004	Railway worker	Hamhŭng, Hamgyŏngnam-to
18	M	40s	Nov. 2003	University professor	Hamhŭng, Hamgyŏngnam-to
19	F	40s	Aug. 2005	School teacher	Hamhŭng, Hamgyŏngnam-to
20	F	40s	Nov. 2005	Collective farm member	Ch'ŏngjin, Hamgyŏngbuk-to
21	F	40s	Jan. 2007	Restaurant manager	Ch'ŏngjin, Hamgyŏngbuk-to
22	F	30s	Jul. 2007	Factory worker	Musan-kun, Hamgyŏngbuk-to
23	F	40s	Dec. 2002	Noodle factory supervisor	Musan-kun, Hamgyŏngbuk-to
24	F	40s	Feb. 2006	Middle school teacher	Sakchu-kun, P'yŏnganbuk-to
25	F	40s	Jan. 2006	Kindergarten director, hospital clerk	Hoeryŏng-kun, Hamgyŏngbuk-to
26	M	40s	Aug. 2004	Materials manager at industrial enterprise	Ion-kun, Hamgyŏngbuk-to
27	F	40s	Mar. 2007	Factory worker	Hoeryŏng-kun, Hamgyŏngbuk-to
28	M	40s	Apr. 2006	Middle school teacher	Ch'ŏngjin, Hamgyŏngbuk-to
29	F	50s	Aug. 2006	Collective farm member	Hoeryŏng-kun, Hamgyŏngbuk-to
30	M	40s	Aug. 2006	Writer	Hyesan, Yanggang-to
31	M	40s	Aug. 2002	Supervisor at military support agency	Namp'o, P'yŏngannam-to
32	F	40s	Dec. 2005	Agricultural labour lecturer	Hamju-kun, Hamgyŏngbuk-to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epth interviewee

ID	Gender	Age	defecting time	Occupation in North Korea	Region of Origin
33	F	40s	Nov. 2005	Collective farm member	Hoeryŏng-kun, Hamgyŏngbuk-to
34	M	60s	Jun. 2007	Physician	Puryŏng-kun, Hamgyŏngbuk-to
35	M	70s	Jan. 2005	Supervisor of business earning foreign currency	P'yŏngyang
36	M	30s	May. 2007	building engineer	Ch'ŏngjin, Hamgyŏngbuk-to
37	F	50s	Dec. 2006	Factory clerk	P'yŏngyang
38	M	30s	Jan. 2004	Reporter	Hyesan, Yanggang-to
39	F	40s	May. 2007	Physician	Hoeryŏng-kun, Hamgyŏngbuk-to
40	F	40s	Jun. 2007	Office clerk	Onsŏng-kun, Hamgyŏngbuk-to

The samples of in-depth interviews consist of forty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living in South Korea. The mean age is about 40, ranging from the thirties to the seventies. Their defecting year from North Korea ranges from 2002 to 2007.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from the Chinese border areas of Hamgyŏngbuk-do (North Hamgyŏng province), where trespassing into China is relatively easier than in other areas of North Korea. The transcripts of their interviews illustrate personal experiences of individuals including both organized and unorganized facts, which differ from theoretical concepts and abstracts. Thus, this paper deals with gender roles and changes of the women as well as conditions surrounding them under the military-first politics and the economic crisis.

III. Gender roles in the military-first era

After the death of Kim Il-Sŏng in July 1994, Kim Chŏng-Il started to use the military as the tool for risk management. Starting in 1994, Military-first Politics was conceptualized between October 7, 1997 and May 26, 1998. The concept emerged in 1997 and was suggested as the new mode of politics for Kim Chŏng-Il in 1998. The concept was more sophisticatedly adapted after September 5, 1998 when the system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was established and Kim Chŏng-Il was elected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As the theorization of the sophisticated Military-first Politics began in 2003, “Military-first Ideology” was introduced as Kim Chŏng-Il’s ideology. The term was used in various forms such as Military-first Era in 2004, Military-first Revolutionary March in 2005, and Military-first Philosophy in 2006. (Jeon Mi-Young, 2006: 13)

Military-first politics is a political method of mobilization and, under the politics, the gender roles in North Korea have been constituted in such a way so that men become warriors of the front line while women become warriors of the rear. North Korean men have to show their passion and loyalty for the country by being warriors who then can protect the country in the front and the rear line for national security. North Korean women, on the other hand, “with a high level of loyalty and patriotism,” should “work hard to take care of their households, villages, factories, or workplaces in the same way in which the warriors in the People’s army run their camps in the era of military-first politics” (Li Kye-Rim, 2006: 43). In particular, married women are encouraged to be the main actors for “militarization of family” by raising their children as “the third or fourth generations of the revolution” and sending them to the army as well as by taking care of the survival of families and social reproduction through

selfless attitude and hard labour (Li Sŏn-Kŭm, 2006; Li Ch'un-Kil, 2006).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when the regime militarizes the entire country, the hierarchy in gender roles becomes obvious, too. Socio-culturally, members of the society have lived in a social environment where the hierarchical order in gender roles traditionally existed in the society and a male-dominant militaristic discourse was prevalent for a long time (Oogoshi Aiko, 2000: 162). The concept of the gender hierarchy goes beyond the different roles between men and women.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dentity is political social hierarchy. The male identity is described as something positive towards the society where sexual violence is nominally accepted as a result of the male-dominant culture and widespread sexual discrimination. The female identity, on the other hand, is negatively perceived against the male-dominant society and the violent social order. People in North Korea are forced to accept this male-dominant gender hierarchy.

We occasionally see women, who are biologically female but live with male identities, take violent cultures/ behaviours in society for granted and even defend the male-dominant social environment. These women are sometimes cynical about the women's rights/movements and feminism, and they oppose these approaches.¹³⁾ The type of women who support the male dominant society is peculiar to countries where a nationalistic discourse is strong and a militaristic system prioritizing national defence is launched. Most militaristic regimes tend to normalize the national unity and solidarity saying that they need to establish a strong security system in order to respond to the existence of enemies and prevent the threat from them. Furthermore, the concept of unity and solidarity is made up of

13)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siderably men who support the gender equality and the peace.

masculine values that are believed to protect the country from foreign invasion. One thing we should not miss here is that since the twentieth century, for militaristic regimes, it was not the existence of enemies and their threats that required unity and solidarity, but the political desire of the military regimes to maintain their power by creating jingoists and enemies of a nation (George L. Mosse, 2004: 205-208, 215). The North Korean regime has systemized the militaristic policy in order to protect 'North Korean Style Socialism', a combination of patriarchal and military government, and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is that the regime has forced its people to accept the hierarchical social order,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a conscious decision or not. The gender hierarchical social structure between male and female, driven by the regime in North Korea has formed with a continuous historical process since the nation-state building period. By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when the Cold War structure began to take shape and nation-states were built, the idea of nationalism became a universal phenomenon.

Nationalism carried the notion of masculine ideals such as manliness and mannish tolerance and established a sort of nationalistic stereotype in society. Through this ideational process, the stereotyped virtues of male and female were made. For men, the political authority encouraged man's personal desire to be the ideals of nation-states, idealizing the supreme value of man as 'sacrificing one's own life for the fatherland'. Women were told to respect, praise, and protect this manliness. One of women's roles for national contribution was in reproducing national warriors in order to continue the 'warring' heritage from father to son (George L. Mosse, 1985; Anthias Floya & Yuval Davis Nira, 2000). The women also take care of the people's survival and bear the responsibility for social reproduction without public support. North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war, the Korea war, and the political authority keeps generating a constant threat from outside, USA or South Korea, in order to form willing loyalty/ obedience towards the regime of its people that they have to prepared for a war at all times. The regime's prime interests are in 'security and self-defence'. Since war and politics are the two extreme forms of national strategy to combine unbalanced and unstable power relations, it is possible to rank the gender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and form hierarchical gender role models under these circumstances (Michel Foucault, 1997: 107).

The North Korean authority demands violence, bravery, honour, and authority from the male who should be 'the warriors in the front line' so that they can bear the fear of death in a war.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commands a sacrificing motherhood, a role to preserve the divine national heritage, an ethic to be subordinate to male role, and a morality for charity for female who should be 'the warriors in the rear line' to take care of the basic need for subsistence for the people. Another important aspect about the influence of war and militarism on restructuring gender roles is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ources by the government that supports the gender hierarchical order of the society. The priority for resource distribution is in favour of expansion of the military expenditure. National resources are concentrated in the area of security. Women's hard labour and austerity would get worse, compared to the level of men's because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ources works exclusively against women and everyday life. Whether a country's distribution of resources is concentrated on the welfare system or on the military is one of the most decisive factors for women's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status in the society (Lee Sam-Söng, 2003: 124).

As the North Korean militaristic culture is spread in the entire

society and the socio-economic system,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ource is also concentrated on the militaristic/ violent parts of the society. Belligerent and masculine behaviours are recognized as brave, fair and divine whereas peaceful and feminine attitudes are conceived as cowardly and vulgar because the gender hierarchy and women's status in society are critically influenced by war and militarism. An epistemological reason that militarism can systemize the gender hierarchy is because the belligerent and violent security system is ideationally close to the repressive social structure over women and the identity of masculinity over femininity. Masculinity is a prerequisite for being a soldier and being a soldier in and of itself is also a condition for having substantial citizenship (Michael T. Klare ed., 1994). Even in Western Europe where the history of civic movements has been the longest in the world, the universal suffrage for women took a long time to achieve after numerous rough struggles against the male-dominant social environmen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concentrating its power and resources on the militaristic part of the society, which in fact has greatly influenced people's lives, especially women's. Under the militarized North Korean system,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ources is apparently unbalanced in favour of men by imposing the unilateral male-dominant social values. However, although women's harsh labour was stronger over 15 years under Military-first politics, a real war didn't break out and the male-dominant regime didn't show up any more significant power/action than people's everyday survival for national security. Therefore, Military-first politics didn't succeed in being supported especially by the women imposed a survival burden on family and society. Many normal men are spiritless and more languor than normal women. It is why North Korean men don't well care of family and women have to shoulder the responsibility for

family survival and peoples' economy in the crumbled situation of PDS.

IV. Warriors for survival: family's support and societies' maintaining

When the national priorities are on the military and munitions industry, women have no choice but to be accustomed to a habit of austerity in order to uphold their own families and themselves. For a long time in North Korean history, women have been the main actors taking care of fundamental subsistence such as clothes, food, and housing. They are always the first ones to bear the hard labour of the country's poverty and austerity since the government's priorities are on the military and munitions industry. Especially during the "March of Ordeal"¹⁴⁾ period when about two million people died or disappeared because of famine, North Korean women have gone beyond the level of austerity and bloody hard labour and shown the extreme degree of strength for survival. The following is refugees' testimonies:

In North Korea, women are the breadwinners. We have to feed the children and have to go to marketplace for food. My company criticizes me in public but I don't care. When your children are starving, can you listen to them? (Case 23)

Still the North Korean society is quite feudalistic; we put husbands

14) Flooding and poor harvests caused North Korea's worst food crisis after the middle 1990s, especially from 1995 to 1997, and put millions at risk. The period is named "March of Ordeal."

and then children before ourselves (women). (Case 40)

(in 2007) we then earned 2,000 won a day and bought 1kg of rice, then all the households pack a box lunch only for the man(husband). (Case 21)

I was told that one woman feed her whole family by prostituting herself for seven years. Initially most of the customers were Chinese, but later soldiers and regular North Korean men came to her if they had money. (Case 2)

Women who have stalls in the private markets are lucky. Women who peddled their goods by walking around or moving by car are often killed. Women selling their goods moving from one area to another live outside their home for days, weeks or even several months. I used to be absent from home for 20 days a month for business/ selling goods in P'yŏngyang and Kaesŏng. (Case 40)

Because of malnutrition, women's menses stopped sometimes for years. Not only for me but also for all 15 women who were forced to attend mobilization work. We were undernourished and were living a tough life. So, all of us skipped our monthly cycle for three years after the last period. (Case 29)

There are numerous opinions regarding this dissolving of patriarchal power, which began with the economic and food crises. In broad terms, the opinions divide into two camps: one side argues that patriarchal power has weakened, while the other side argues that it is still going strong and if anything has gotten even stronger. There are divergent opinions on this issue because the case-by-case

situations differ from home to home. Both opinions have some truth to them. However, what is clear is that with more women working to support the family in the midst of the food crisis, their voices have gotten stronger. Another clear fact is that the way society views women in North Korea is slowly changing. This change in perspective stems from feelings of gratitude and pity for the women who work tirelessly and sacrifice themselves to support their families.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soap operas that North Koreans watch, as well as the stories they hear from China about the changing status and role of women, have helped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e way they view their women. (Cho Jeong-Ah et al., 2009: 34)

North Korean women have been starting to become aware of their own situation and strength. For example, in marketplaces where they normally meet and chat with neighbours, there is a famous phrase ‘the running Yōmaeng, the Democratic Women’s Associ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WA), the standing Saroch’ōng, the Kim Il-sung Socialist Youth Organisation (SYO), and the sitting Party, the Korean Workers’ Party (KWP)’.¹⁵⁾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 1990s, the party had just been sitting and ordering “do this and do that” to people and this is why the KWP is called “the sitting party.” The association of men leading called Saroch’ōng is standing because the ordinary men workers except workers of military/munitions industry cannot do anything but to stand still under the factories operate at a whisper caused the country’s economic crisis. On the other hand, women who are

15) The membership of *yōmaeng* is women between the age of thirty-one and fifth-five that represent the general women doing business in the markets of North Korea after food crisis. On the other hand, *Saroch’ōng* is composed of the youth, students, workers, and soldiers who represent North Korean men. The party represents the political authority.

represented by the women's association called Yŏmaeng, are in control of the lives of their own households and lead the society economically (Good Friends, Centre for North Korean Studies, 2006).

Many North Korean women wake up at dawn, clean streets and buildings in their villages, recover the flood damage, take part in agricultural activities in rural areas, and sell their items in marketplaces until late at night. The following is refugees' testimonies:

I get up at 5 o'clock in the morning and make breakfast. I help my husband and children get prepared for work and school, do the housework, go to mobilization work and struggle to get some food and go to bed around 11 o'clock in the evening. (Case 5)

Female farmers usually get up at 5 in the morning, have breakfast and go to the farm at 7~7:30 a.m. They work from 8 o'clock a.m. to around 8 o'clock p.m. During the two-hour-long lunch time, they go home to have lunch and do the housework. Even on an off-duty day, once every ten days, these women work in the private market. (To get to the private market) It takes 30, 40 minutes. We don't have any cars and have to carry things we sell and buy. (Case 10)

As for women, society considers unmarried young ladies should not engage in trade. But once married, wives leave their company and start selling things without hesitation. Without doing business, we cannot sustain our lives. We cannot keep a family. We cannot survive. Everyone tries to seek food in the market. (Case 4)

After our eight-hour daily work, we still are compelled to be ready for extra work, "Social work" as it is called. Two hours... never get

paid... grass picking in the summer, making fishing farms... During the winter when big projects are hard to do, we should gather one full 10kg bucket of human feces as fertilizer for each person every day... nothing is given to us as a reward. It's compulsory... If you don't work, you will be checked and if you don't want be checked, you should pay cash. (Case 10)

North Korean women, who are forced to labour to provide for their families, often suffer from poor health because of their physically demanding workload. The food crisis which began in the 1990s, and worsened since then, drove many North Korean women to malnutrition and anaemia. According to the nationwide survey conducted in 2002 by UNICEF and WFP together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on the nutritional health of children and mothers, 1/3 of mothers were found to suffer malnutrition and anaemia. In the same research done in 2004, 1/3 of mothers were again found to suffer malnutrition and anaemia. (Lee Geum-Soon, et al., 2008: 244)

However, even in their horrible states of health, women had to work many hours to provide for her family and society. This made their health worse. The psychological stress that came with having to support their families also added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pain. Because of poor nutrition, North Korean women's reproductive health deteriorated sharply. Their childbearing abilities declined due to lack of nutrition, and there have been many instances of miscarriages and stillborn babies. (UNFPA, 2007: 87)¹⁶⁾ Because the economic crisis

16) According to the "State of the World Population 2007,"(UNFPA) North Korea's proportion of maternity deaths, the number of women who die out of 100,000 from pregnancy, childbirth, and reproductive complications, was 67, which places North Korea 60th in the world. Its newborn mortality rate, the number of babies under one year old who die out of 1,000, was 42, and its total birthrate,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a woman has during her lifetime if she gives birth at the same rate as women in other age groups, was 1.94. This is lower than the world average which

and militaristic politics led to a collapse of the healthcare system, women have turned to illegal birth control methods and abortions, which can severely damage their health.

V. Strong viability and Effect of Private property

The refugees' testimonies illuminate the very real reality that North Korean women do live like real warriors in a war of daily lives. What is noteworthy here is the distinctive 'shrewdness', referred to as "yiaak" in North Korea,¹⁷⁾ told a peculiarity of North Korean women. This unique characteristic of 'shrewdness' is important in order to understand North Korean women. Many scholars in North Korean studies point also out the shrewdness of North Korean women. They normally have very conventional authoritarian ideas,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a peculiar form of competitiveness, sensitivity for economic interest and active energy that go beyond toughness. That cannot be only explained by the general 'sacrificing motherhood' or the 'strong surviving skill' that might have been formed by going through some difficult times in the past.

The type of 'shrewdness' that characterizes the women can be often found in North Korea's official documents and has not been formed naturally: it is in line with the historical continuity of the government's women policy that has forced women take care of people's lives, the role of which should definitely be in the government's h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 1990s, especially during the process of a limited resource distribution, the

is 2.56. http://www.unfpa.org/swp/2007/english/notes/indicators/e_indicator1.pdf.

17) The term 'yiaak' isn't much used in South Korea. The literal meaning is that if someone is 'yiaak', then, first of all, the person focuses only on self-interests, second, the person is stubborn and patient, third, the person is too much persistent.

regime has, to some extent, abandoned their responsibility for people's material well-being and instead implemented the women policy that forced women to take responsibility of people's daily survival. However, more fundamentally perhaps, it is the continuous history of them that they have been conducting the dual labour both in their families and in the society (Park Young-Ja, 2006).

Generally speaking, women learn how to protect their body and economic interests through adaptation, compromise, silence or resistance in a family structure with an authoritarian father and brothers as she gets older. This daily survival skill, on the one hand, is related to a social standard represented as passiveness, softness and fragility, but on the other, described as an ability to respond to any kind of emergency situation and to survive through a difficult situation with a great deal of more tolerance than men. Women's survival skills are embodied through the social process of the combination of the sexual "differentia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the socialization of the characteristics within the society, and individuals' own personality development. Women learn these skills as a way to avoid the force from above and to realize their own interests at the same time. It is the power of them who have taken care of the people's lives and led the 'market economy' from below.

North Korea's 'military-first politics' has led many men to go to the army and the field of the military industry and women to take part in the daily business/ work in agriculture and the light industry. Furthermore, when women could not work due to the lack of resources, they were told to show sacrifice and shrewdness for the country. Surviving though the economic crisis, North Korean women have learned to use and develop the internal part of their shrewdness. It would be difficult not to be economically sensitive under the unstable socio-economic environment where the normalized

antagonism and the threat about the country's survival are constant fear generated by the regime to its people. The distinctive shrewdness of the women is not just a common natural characteristic of wome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ut a specialized femininity that the militaristic regime has actively constituted and demanded in the course of transferring one of the biggest government responsibilities to them, the obligation to guarantee people's material welfare and basic subsistence. Furthermore, women are often idealized as the protectors of private order in survival of the countries where nationalism is particularly emphasized. In countries with a particularly strong nationalism, personal autonomy is strictly restricted because an individual's personal desire is forced to turn into a national ideal. Masculinity is composed of the image of "warriors in the front line" who know how to die for the fatherland whereas femininity consists of the idea of "warriors in the rear line" who take care of the community in order to maintain the society where men are absent.

However, the discourse about war is mostly full of government propaganda and political manifesto. Details of war would never be specified till now and can only be identified to the closed circle of the political power. The status of the front line of war has been standstill for more than fifteen years and this situation has weakened considerably from below the heat of the front line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rear line of a survival war' with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part of which the planned economy has seriously abandoned, has been fierce and extensive. For more than fifteen years, the unequal gender hierarchy, formed by the regime and systemized by the male-dominant military policy, have now begun to be reconstituted.

Historically, the internal space where women were able to be the

main actors in North Korea's market economy is the household working groups. These groups have begun during the first five-year national economic plan in 1957 and massively expanded during the 1980s. Expansion of household working groups was the policy that 'a neighbourhood unit' (inminban) or 'a district of workers'(nodongjaku)—mainly consisting of full-time housewives or those who find difficult to get a job in a small town—collect industrial waste and recycle them without any subsid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y produce daily commodities that have long become secondary because the state industry policy has been the prioritization of the heavy industry. In addition, by participating in household working groups, women can earn money to supplement their living expenses (Kim Il-Sŏng, 1983: 72). Especially, in the late 1970s, the un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and the malfunction of factories have caused serious economic downturn and an increasing number of idle labour powers. Factories had fired a huge number of married women, who then joined or formed a household working unit, becoming more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which has made household working groups even stronger. The '8/3 Campaign' ordered by Kim Chŏng-Il in 3 August 1984 was a continuous form of the previous government policy (Kim Chŏng-Il, 1993: 398). Nevertheless, the activities of household working groups, reinitiated by '8/3 Campaign',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expanding the market production in the society, going through the economic crisis.

The production in North Korea has been a failure due to the unreliable operation rate of factories. The government's prime economic slogan has been "the normalization of production" since the late 1970s. The authority did not recommend married women to work and normally the married women workers retired when they got pregnant or after she gave birth to a baby. The operation rate in

factories has decreased while the idle labour power has increased due to a lack of raw materials and fuel supply. The government cut down the number of workers for whom it had to provide food ration. Under the authoritarian society, when demand of labour power decreased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difficulties, the government mostly decided to lay out female workers first, especially married female workers as part of its structural adjustment.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retired female workers were completely abandoned by the government. They were automatically registered as members of 'a neighbour unit' and became the first people who could be mobilized to seasonal agricultural labour or other forms of government-led labour activities. The government also encouraged retired women to form a household working group so that they could produce commodities that the people would need in their daily lives.

When the government buys the products manufactured in household working groups as part of the national commercial networking system, a producer would have 60-90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the product whereas the rest of 10-40 percent had to be paid to the government. Depending on the region, the season, or the feature of a product, a producer's final income varies. The average is 70-80 percent for a producer and 20-30 percent for the government. As the products have flow into black markets, those have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Highly skilled and productive women can also accumulate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Household working groups became a place where highly skilled, productive women could save a considerably amount of capital and where women could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in daily lives and implement their own survival strategies. Through the income from their economic activity, the women realized the 'taste of money' and attempt to change the authoritarian gender roles set up by the

political authority and supported by the society in the past. Women want to change the authoritarian perspective and create a new developmental strategy beyond survival. The following is refugees' testimonies:

I was shy and embarrassed when I started to sell goods in the market. I looked away when my neighbors passed by. I thought peddling was shameful because I was educated that way. But as I tasted the power of money, I changed. I gathered anything that I could sell and went out to the market. I got to know the taste of money, the pleasure of making money. (Case 1)

Now, being unable to go to the market is considered shameful. While buying and selling goods, we opened our eyes about the concept of money. As people learned the power of money, the society changed. They started to do anything to make money. (Case 14)

"What do you expect from Communist party membership? Money? Rice?" (If you depend on the state these days, you would starve to death.) Now parents said this and changed their thinking. (Case 2)

I, who was not from a good social class, have thought making money is making success. With money, you can buy power and respect. (Case 13)

Private property provides a motivation to seek independence of individuals from a collective group. The effect of currency, a symbol of private property, causes the atomization of individual human beings and the individualization of internal human beings. Human beings before the emergence of the currency economy had been

dependent on the group they directly belonged to. Exchanges of services made each member of a society closely united. However, modern human beings who live in a massively extended monetary economy can claim their rights to the evaluation of others' work whose values are systematically recorded as a form of currency. They also have a right to choose when and where they would exercise their right. Therefore, the direct relation between traders in the earlier form of exchanges has become naturally obsolete.

The biggest impact of currency to a human society is that it has endowed people with the power of being "independent from relations of collective interests." This power of independence is not only from the fundamental conflict between the barter economy and the monetary economy but also appears within the monetary economic system itself (Georg Jimmel, 1983: 432).¹⁸⁾ The impact of currency has been significant for women's role in North Korea. Women were able to possess private property through participating in household working groups and going out to sell them in a market. Especially as the society's militarization was accelerated due to Kim Chŏng-Il's military-first politics, the economic activities run by women became systemized and general throughout the society.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has grown in household working groups as well as in peasants' markets and black markets.

As of 1987, the total number of women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was approximately two million more than that of men (Eberstadt and Banister, 1990: 135). The reversal of the sex ratio in economic activities was because the expanded local industry until the 1980s had been run by women, especially by married women (Li

18) Jimmel analyses socio-philosophically how the institutions of money (value, price, or currency), the economic relation, and the space are related to the various social phenomenon, the individual personality and vitality, and the culture.

Ch'ang-Kün, 1989: 125). When the local industry faced difficulties with production, various forms of household working groups were created to supplement the lack of production.¹⁹⁾ Along with the increased activities of household working groups, the number of North Korean women who are taking part in the economy has been growing in an unofficial level as well. Since the middle 1990s, the operation rate of North Korean factories has been less than 30 percent and the food ration has been malfunctioning (Naeoet'ongsinsa, 1995: 269).

Consequently, the function of the household working group and the market has been activated. And then, a large number of women wanted to retire and join a household working group because this could bring them more money than working in a factory (Chǒng Se-Chin, 1999: 78-79). This caused a lot of trouble between female workers and party cadres in factories and some women refused to go to work. The economic crisis has made household working groups produce various kinds of consumers' goods such as clothes, stationeries, electronics, shoes as well as daily commodities. The vitalization of household working groups has made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in North Korea more active than those of men.

According to the testimonies of North Koreans, there is a phrase in North Korea since the mid 1990s that says 'if a woman in a family moves and acts, then her family can survive, if she does not, her family will starve to death.' Under a series of serious economic crises, the reason women are able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better than men are because women can earn money for food and living

19) Furthermore, many adult men had to be conscripted to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so they were excluded from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the increased economic activities of North Korean women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its militaristic policy (Li Ch'ang-Kün, 1989: 126).

expenses. They produce goods through various forms of moonlights or joining a household working group, sell these products by trade, and reinvest capital for the future production and trade. While a lot of men have belong to military industry/army or have been to go their factories/companies through no working, because they mostly operate the planned economy, the women have earned private property through joining a household working group or/and other forms of moonlights and are involved with business in sales and trades in the market economy, becoming the major actors in the peoples' economy.

Furthermore, women often go beyond the level of government's control. The regime tried to make people return to their workplaces by introducing 'the system maintenance project' by the end of the 'March of Ordeal' in 1997 and 'the 7/1 Economic Reform policy' in July 2002, but women who had already become the major actors in the market economy refused to go back to their work. The government has initiated another policy that was to make people register as members of '8/3 workers', which means if an individual is registered as a member of a factory and pays a certain amount of cash to the factory, then in return, the worker can be excluded from various responsibilities such as daily attendance and therefore can freely run a business without any government control. On the contrary, unregistered individuals would be the targets for government control, which makes their business in the market unbearably difficult. Especially, if a person is registered as an '8/3 worker' of a foreign trade company, then it is far easier to set up a business since s/he can use the company's name for foreign trade.(Case 13).

As the economic crisis worsened, women's role in the market economy has become stronger. At the same time, women's active

character has often nullified the country's planned economy. People have often stolen raw materials from their factories. Various forms of business connections and cooperative networks have developed. Lower levels of networks became stronger and more systemized as businesses developed while the country's economic situation deteriorated. (Case 12) Household working group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various business cooperation and networks during the process of trades in the market economy in order to increase private property. Combined with the corrupted structure among lower-level government officials in North Korea, women's power to survive under these circumstances became even stronger than ever. Various forms of business connection and networking have become a base for North Korea's 'market economy'. On the other hand, in rural areas, once a farmer receives his own ration from the government per term, s/he can get by for the first couple of months but after that, s/he can hardly survive. Farmers, therefore, started growing cereals in their 'kitchen gardens' (tutbat). It is reported that some farmers can harvest one ton of sweet corn per a kitchen garden, Cereals from individual farmers' land can be owned by farmers and they can be sold or traded with other industrial products in the marketplace. Just as in other socialist states in the twentieth century, in North Korea men are pictured as workers whereas women as peasants. A lot of women are taking part in agriculture and strengthening their survival power by producing food and trading them in the marketplace. Through this process, the women can possess their own private property. (Case 20)

With private property and the capital they earn in the marketplace, women reinvest the money in order to carry on more production. As they learn market principles for making more profits, women do not sell their products via the nationalized commercial network but

directly trade them with items they want or sell them in the marketplace. Those, who own a large amount of capital and are brave enough, cross over the border to China to run businesses with Chinese traders, especially, in the 2000s, the area of trade with Chinese has expanded to include rice as well as numerous industrial products. (Case 9)

Furthermore, their awareness about the regime is changing. They usually perceive Kim Il-Sŏng in a bright light, while they have negative opinions of Kim Chŏng-Il. North Korea praises Kim Chŏng-Il as the “incarnation of Kim Il-sung” and the “protector of socialism,” and proclaims that he takes care of the people’s lives, having only light sleep and limits himself to only eating rice balls. What refugees have said is that most people do not blame Kim Chŏng-Il for their poor living conditions, because the people who know nothing about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 still believe, due to the authorities’ education, that the ongoing economic crisis in the country is caused by U.S. economic sanctions. (Lee Kyo-Duk et al., 2008: 47-48)

However, many people, especially women, started to complain and oppose the leader as rations were cut off and many people died of hunger in the Arduous March. Complaints and criticism have spread as the food crisis continues and peoples’ lifestyles are not yet secure. Furthermore, such a social atmosphere among the people has been widespread since the 7.1 measures. North Koreans are realizing that North Korea is a poor country, which has led to negative opinions about Kim Chŏng-Il and his regime. People, especially women, who have been to China to visit relatives and engage in business, discovered that North Korea is a poor country by seeing and hearing evidence for them. They began to think that the country is perishing because of Kim Chŏng-Il’s dictatorship.

VI. Changing of the traditional gender role and consciousness

What I have described above is the process of how women have become the main actors in North Korea's market economy. The function of currency and the expansion of the marketplace have affected the women's desire for freedom and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nd created changes in their values system, which partly have guided to change of the traditional gender role and to rise in social standing in the society. The following is refugees' testimonies:

As women work more actively out of the home, they get more power. They started to have a voice. A family where a woman does trade lives well and a family where a woman doesn't is poor. Therefore women are rising in social standing. (Case 22)

In a family, the one who earns money holds the power. Family affairs are dealt with by the high earner. I managed all the things in my family. After I started economic activities, many things changed. (Case 12)

Though there is a bit difference depending on each family, influenced by market activities, the concept that kitchen work is only for women began to break down. Since a wife goes out to earn money, the husband helps housework like making a fire for breakfast. Now, men's housework in the kitchen is no longer shameful. (Case 11)

A lot of women are reluctant to marry. Clever men want to live with older women who have a strong earning ability and do business

in the market. There are men who marry to five, six-years-old women. They don't care whether these older women have children. Such marriages are common, though the state prohibited. Nowadays daughters are preferred since they can support the family financially. (Case 7)

My husband had never engaged in housework, but after I left home to sell goods far away, he got use to doing the laundry and cooking by himself. Men weren't like that when we used to receive ration tickets but after the rationing stopped and women went out and started business in the marketplace, men changed. Women go out early in the morning and come back home late at night. While they work all day long, men at home are doing housekeeping such as cooking and raising the kids. (Case 13)

The ideational changes of women who have found their place as the main actors in the market economy appear as behavioural changes as well. This is especially evident between husband and wife. A married woman who is not happy with her husband initiates an appeal to a divorce trial. This is considered to be a serious issue in North Korea. Or she just leaves her husband if a divorce does not seem to work. In Hamgyŏngbuk-to (North Hamgyŏng province), for example, the proportion of separated or divorced couples reaches approximately 20 % of the total married couples as of 2006 (Good Friends, Centre for North Korean Studies, 2006). A lot of single women try to avoid getting married, flee North Korea, and find non-North Korean men to marry. These behaviours were unthinkable until the 1980s. The following is refugees' testimonies:

Before 2000, when you look at the families, North Korean men

drank alcohol and hit women, firstly their wives. Women were abused and looked down on. But from 2005, women changed. They started to think they didn't have to live with violent husbands. Family breakups began. So, more and more men started to understand women. Men and their behavior in the family changed. (Case 30)

Divorce was rare in the past. But with severe poverty, the whole society changed and so did a family. Because they cannot tolerate each other, couples separate. If a woman is beaten by her husband, she can't stand it, counters and tries to divorce. Judges are usually men. If judges don't allow divorce, some women run away from home. (Case 24)

North Korean men tend to drink and try to beat their wives. Their tempers, even by seeing their way of talking, they are impatient. They are hot-tempered. I cannot stand it any longer. You cannot stand his violence while you are struggling to support him. (Case 9)

When a man likes drinking too much, his family is destroyed. About 70% of North Korean men like drinking... You cannot sustain your life with a drunken husband. Many of North Korean women who crossed the border into China mostly had such husbands. (Case 33)

Young single women are not willing to marry like here in South Korea especially to poor men. They think they can feed themselves by themselves. (Case 25)

Since the 1990s, not only women' role but also thoughts on

marriage and acquaintanceships with the opposite sex have changed, and liberal attitudes to acquaintanceships with the opposite sex and love marriages are developing. According to the testimony of refugees', the couples in love worried about attracting too much attention before, but now they show off their relationship and it is very often the case that they can be seen holding each other's hands. These tendencies have been evident since the 13th World Festival for Youth and Students hosted in Pyongyang in 1989. Another reason can be found in the frequent travel to Chin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to do business or get food dur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because the trend towards openness, referred to as the 'yellow wind', has developed through these contacts and experiences. (Cho Jeong-Ah, 2007: 38-39)

These trends are reflected in the novels, so recent North Korean novels describe the love between man and woman in rather bold terms and in some detail. While previous novels placed an importance on the ideological agreement dealing with acquaintanceships between man and woman, but since the 1990s, North Korean novels treat various forms of love such as the combination of emotion and desire, devotion, the camaraderie of the old era, and as an agreement based on faith. In particular, the novels which attempt to unravel the emotions of love like "multivariate function, so to speak, the emotions of love connected with language, behaviour, appearance, and the body as the object of love," accompanied with bold and rich descriptions have increased tremendously. It is in the series of other novels dealing with female problems that we can most clearly see the gushing forth of private desire. The matter of man and woman's love has changed from the subject of enlightenment to something of everyday reality by describing the complex and concrete nature of the emotion in such detail. The fact that North Korean literature plays a

role in public education and that dealing with men and women' love straight forwardly in North Korean literature is reflective of the great changes of the society where private desire and the arena of individual life is expanding. (Noh Gui-Nam, 2006)

VII. Conclusion: Light and Darkness

During the process of capitalization, market economy can provide plenty of opportunities for women to experience individual freedom and personality development that might lead them to desert the idea of becoming more independent. On the other hand, women are easily attracted to money, the rapidly changing market mechanism, and the monetary relations of trade. Market economy provides women with both the light and the darkness. Let us briefly review the relations between market and women in other twentieth century real-socialist states—a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when the capitalist system was immature. First of all, it is noteworthy that in the twentieth century real-socialist states, the bureaucratic adjustments led by the planned economy, the prioritized heavy industry, and the military-first policies have emphasized the areas of the male-dominant politics such as the military, the heavy industry, and the military industry. Second, the former real-socialist countries have implemented the policy that divided gender roles between male and female. Third, the sexual 'differentiation policy' has placed the priorities on the 'manly' values and men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authority (Sharon Smith, 2005). Therefore, most high officials in the major part of the planned economy,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were dominated by men.

The main actors who have formed and expanded peasants' markets

and black markets in the twentieth century real-socialist states were women who had been excluded from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values, and authority. Women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market economic activities from below and become the main actors of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In agriculture, the light industry and small/middle-scale companies, women have produced necessary commodities that ordinary people needed in their daily lives. Furthermore, as part of their survival tools, women have learned to develop handcraft skills such as weaving and knitting of family necessities. These were inherited from their ancestors within a family tradition. In this way, women were able to dominate the area of daily necessities that had been neglected and become secondary because of the government's priority in heavy industry in North Korea. When the bureaucratic adjustment of the planned economy could not control and distribution, women formed 'a spontaneous market economy' in order to supplement daily necessities and this became the so-called 'the second economy' or black market in North Korea. Women have unconsciously trained themselves and their self-learned skills have become a powerful force to sustain their daily lives under the harsh circumstance of 'the austere economy' in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This situation was also common in other real-socialist states in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the degree and the characteristics are distinctive in North Korea. Since the late 1970s, as factories' production and operation rate dropped, the number of idle workers in factories increased and the government's capability to take care of people's basic subsistence was utterly impossible. Furthermore, factories in North Korea started firing married women and the government placed them in household working groups instead. This unequal labour policy resulted in the ironic fact that women became

more active in market economic activities and gained a survival strategy much stronger than that of men. Most of the men working for the government's official industry have to attend their factories every day even though the factories are not functioning. On the contrary, women mostly taking part in a household working group or running moonlights are relatively les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nd in this way they learn how to survive under the severe economic situation.

The space where women have learned their surviving skills was the marketplace. Market economy has provided women with the opportunity to learn to have the desire for freedom and personality development through the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circulated within the marketplace. Women realize the irrationality in the reality of North Korea and some of them want to desert to be independent. When she has problems with her 'house dog' husband, a woman in North Korea actively initiates to lodge an appeal to a divorce trial or just leaves her husband to live with another man who can be more economically helpful. This was unthinkable in the past. The changed in women's ideas and behaviours cause a crack in the hierarchical order between men and women in North Korea.

North Korean women now partly have the ability to develop their surviving strategies through market economy and learn to be curious about the new world outside. Some of them actively try to expand their businesses with China or attempt to flee to China, planning new lives there. They extend their desire for more humane lives, developing the idea of human rights through the broadening of market economic activities. The awareness of gender roles and the hierarchical order, constituted by the political authority, have already begun to be reconstituted by the economic activity and change of women's mind/behaviour.

On the one hand, the most serious health consequences for women that the hunger and malnutrition stemming from the food crisis and the abundant responsibility/labour have brought on develop during pregnancies, child-deliveries, child rearing, and when in a state of deteriorating health. (Lee Keum-Soon et al., 2009: 18). On the other, they are rapidly merchandising. In particular, the “sex business”/human trafficking of women have been on the increase. We have to be worthy of notice is that the rise of the individual in the change has resulted in a paradoxical transition of “private life that is characterized by a surge of egoism and the rise of the uncivil individual, who emphasizes the right to pursue personal interests yet ignores her/his moral obligations to the public and other individuals.”(Yunxiang Yan, 2003: 217)

North Korean militarist system and market economy from below provides women with both the light and the darkness in the process of the social transition under the military-first politics and the economic crisis after the mid 1990s. These results will also be important to study and policy on female defectors about 80%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Park Young-Ja, 2008).

Reference

- Anthias Floya and Yuval Davis Nira.(2000). "Women-Nation-State." J. Hutchinson &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4. New York: Routledge.
-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2009).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Cho Jeong-Ah.(2007).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2009).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Eberstadt and Banister.(1990).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D. C.: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 S. Bureau of the Census,
- Georg Jimmel.(1983). *Tonüi ch'ör hak[The Philosophy of Money]*. trans. Ahn Joon-Seob. Seoul: Hanghilsa.
- George L. Mosse.(1985). *Nationalism and Sexuality*. Lond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George L. Mosse.(2004). *Namjaüi Imiji [The Image of Man]*. trans. Lee Kwang-Cho. Seoul: Munyech'ulp'ansa.
- Good Friends.(2006). Centre for North Korean Studies. Seoul: Good Friends.
- Im Soon-Hee.(2004). *Food Problem and the Change of North Korean Women' Role and Consciousness*.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Jeon Mi-Young.(2006). *Kim Jong-il Regime's Understanding of its Environment: With Emphasis on Militaryfirst Discourse*.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im Chŏng-il.(1993). "Tong, inminban saöpŭl kaesŏnkanghwahaja" [Let Us Improve the Neighbourhood Unit]. *Selected Works of Kim Chŏng-il*, Vol.2. P'yŏngyang: Korean Workers' Party Press.
- Kim Il-Sŏng.(1983). "Kŭllo tanch'edŭlŭi yŏkhalŭl tŏuk nop'ilte taehayŏ" [On Improving the Role of Workers' Organisations]. *Works of Kim Il-sŏng*, Vol. 23. P'yŏngyang: Korean Workers' Party Press.
- Kim Jae Ho.(2000). *Kim Jong-il's Strategy to Build a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P'yŏngyang: P'yŏngyang Publishing Company.
- Kim Seok Hyang.(2006). "Bukhangongsikdamlonehe genderpunk-dungguah yeoseongguallyul gaenheum bunsuk." [An Analysis on the Concepts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in the North Korean Official Discourses]. *The Journal of North Korean Study* Vol.10. no.1. Seoul: The Society of North Korean Study.
- Lee Keum-Soon, Choi Soo-Young, Kim Soo-Am, Lee Kyu-Chang, Lim Soon-Hee.(2009)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Lee Keum-Soon, Lim Soon-Hee, Kim Soo-Am.(2008).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2008). *Change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Lee Mi-Kyung.(2004). "Yesangjeginn yeoseonsangyul thonghaebon bukhanui yeoseong jungchach." [Women's Policy of the North

- Korean through the View of Ideal Women with Contents Analysis of Choson Women]. *The Study of China-Russia* Vol.28. no.2. Seoul: Hanyang Univ.
- Lee Sam-Söng.(2003). *21-segi munmyöngkwa yaman [Civilisation and Barbarianism of the Twentieth Century]*. Seoul: Han'gilsa.
- Lee Sang-Kyung.(2007). "Bukhannyeoseongjakgaui jehjakehse femalejungchesungul yeongu," [A Study of Female Identity in Works by North Korean Women Writers], *The Korean Journal of Women Literary Study* Vol.17. Seoul: The Korean Society of Women's Literature.
- Li Ch'un-Kil.(2006). "nyömaeng chojikdülün sahoejuüie taehan sinnyömkoyangül ilgwansöng itge t'ülöchwiko nagaja." [Women's Association Should Reinforce the Commitment to Socialism]. *Chosön yösöng [Korean Woman]*. P'yöngyang: the Democratic Women's Associ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pril 2006.
- Li Ch'ang-Kün.(1989). *Rodong haengjöng säöp kyöngghöm [Labour Administration Experiences]*. P'yöngyang: Sahoekwahak chulpansa.
- Li Kye-Rim.(2006). "sönkunsidae ch'angjotoen saenghwalmunhwa kuninmunhawrl paeuja." [Let Us Learn the Militaristic Culture in the Military-First Era]. *Chosön yösöng [Korean Woman]*. P'yöngyang: the Democratic Women's Associ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ebruary 2006.
- Li Sön-Küm.(2006). "sönkunsidaeüi aegukyösöng." [Patriotic Woman in the Military-First Era]. *Chosön yösöng[Korean Woman]*. P'yöngyang: the Democratic Women's Associ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pril 2006.
- Michael T. Klare ed.(1994). *Peace and World Security Studies*. London: Lynne Rienr Publishers.
- Michel Foucault.(1997). *Söngüi yöksa [The History of Sexuality]*.

- trans. Lee Kyu-Hyŏn. Seoul: Nanam.
- Noh Gui-Nam.(2006). "People' Lives," *The Social Culture of North Korea* compiled by Sejong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Paju: Hanul Academy.
- Oogoshi Aiko.(2000). "Ch'amhoeŭi kach'ido ŏpta." [No Need to Regret]. Komori Youichi and Takahashi Tetsya eds., national historyrŭl nŏmŏsŏ [*Beyond the National History*]. trans. Lee Kyu-Su. Seoul:Samin.
- Park Young-Ja.(2006). "Sungunsidae bukhann yeoseongui sexuality yeongu(1995-2006)." [The Sexuality of North Korean Women in 'Songun' Politics period (1995-2006)]. *The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15. no.2. Seoul: The Korean Institution for National Unification.
- Park Young-Ja.(2008). "The Life of Labor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sian Women*, Vol. 24. No. 2.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haron Smith.(2005). *WOMEN AND SOCIALISM*. Canada: Haymarket Books.
- Susan Hanson and Geraldine Prat.(1995). *Gender, Work, Space*. New York: Routledge.
- UNFPA.(2007).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http://www.unfpa.org/swp/2007/english/notes/indicators/e_indicator1.pdf.
- Yunxiang Yan.(2003) *Private Life under Socialism- Love, Intimacy, and Family Change in a Chinese Village 1949-1999*.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북한의 젠더 역할과 여성의 변화 : 선군정치와 경제난 시대

박 영자*

본 논문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경제위기 상황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젠더 역할과 여성들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1995년 중반 이후 북한체제의 경제위기가 2010년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제 생존전략으로 선군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김정일 군사정권은, 주로 군대와 군수산업, 공공기관에 남성을 배치하여 '전방의 전사'로서 남성역할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후방의 전사'로서 여성역할을 정책 및 제도화 하였다. 그러나 전방의 전투가 외현화되지 않는 15년 이상의 상황에서 경제난은 지속되었고 아래로부터의 북한 경제와 사회 변화가 진행되며 후방에 배치된 북한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증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정권의 가부장적·군사주의적 위계에 기초한 젠더역할론이 아래로부터 흔들리며 여성들의 의식과 행위 변화가 두드러짐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 분석과 함께 질적연구 방법론인 탈북자 심층면접과 문헌분석을 결합한 맥락적 분석을 활용하였다.

각 장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선군시대 젠더 역할론, 가족부양과 사회유지를 책임지는 생존의 전사, 강한 생존력과 사적 소유의 효과, 가부장적 젠더역할과 의식의 변화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군사주의와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가 북한여성에게 미친 빛과 어둠을 다루었다. 15년 이상 남성부재 사회를 초래한 선군정치와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제난 속에서, 아래로부터 시장을 형성하며 생존전략을 실행하던 북한여성들이 확장된 경제활동과 시장경제를 통해 권리의식을 발전시키며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여, 선군 권력에 의해 위계적으로 구성된 젠더역할 뿐 아니라 남성종속적인 의식 및 행위가 변화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과다노동과 영양결핍 등으로 여성들의 건강문제 등이 심각하며 성매매 및 여성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여성들의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의식이 확산된 어둠의 측면도 함께 다루었다. 북한의 선군정치와 아래로부터 시장경제 진행과정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가치와 목소리가 높아진 측면도 있으나,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문제와 물질주의/개인주의/이기주의적 경향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여성이 80%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연구 및 정책과도 중요하게 연동되는 지점이다.

주제어: 젠더역할, 북한여성의 변화, 선군정치, 경제난, 시장경제

* 정치학박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연구주제: 북한 여성과 체제, 남북 관계와 통일, 탈북자와 사회통합.

부록 I : 「여성연구」 수록논문 목차
(2003~2010)

여 성 연 구

2003년 1호 (통권 64호)

〈研究論文〉

1.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 김금미 · 한영석
2. 취업여성의 가사노동 부담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박재규
3. 여학생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과 태도에 관한 연구
/ 이수연 · 김명혜 · 김선남 · 박경희
4. 여성전문인력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김원홍 · 민무숙 · 김혜영 · 김영미
5. 전략적 여성인력활용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연구
/ 문지현
6. 성폭력대처방안을 위한 전략연구
/ 박성희

〈翻譯論文〉

1. 한국사회에서의 <보육> 영역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
/ 소마 나오키

여 성 연 구

2003년 2호 (통권 65호)

1.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관한 연구
/ 정현수
2. 가족정책과 젠더관점의 결합을 위한 연구
/ 김혜경
3.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은경
4. 여성, 노동자, 여성노동자: 여성주의 민족지의 젠더와 계급
/ 채수홍
5. 여성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 성효용 · 김민경
6. 숨겨진 선택: 기혼 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 장지연 · 부가청
7. 고령화시대 노인부양 부담과 여성의 경제활동
/ 김미경 · 주재선
8. 탈북여성을 통해서 본 북한여성의 교육경험 분석
/ 안재희 · 민무숙
9. 농촌지역여성의 생활양식과 건강상태
/ 조유향

여 성 연 구

2004년 1호 (통권 66호)

1. 모성휴가제도의 변화과정과 여성노동권: 2001년 ‘모성보호3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 장지연
2. 독일여성들의 정치참여와 할당제
/ 황선희
3. 헝가리의 사회정책 변화와 여성 시민권 : 1989-1996년을 중심으로
/ 이선주
4. 생태여성주의와 생태여성주의 문학비평-문제점과 전망-
/ 황선애
5. Getting Balanced: Korean Women Employees' Career Success
Orientation
/ 김남희

여 성 연 구

2004년 2호 (통권 67호)

1.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 류화진
2. 여성관련 입법과정에 있어서 여성단체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성매매방지법」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오혜란
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수혜자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우양호 · 홍미영
4.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성별차이
/ 정형옥
5. 맞벌이주부의 시간부족(time pressure)인식
/ 손문금
6. 독신생활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 구명숙 · 홍상욱
7. 자녀연령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의 영향요인
/ 김지경
8. 일본의 ‘육아의 사회화’의 과제 : ‘가정보육모제도’를 둘러싼 정책과
보육자의 의식 변화
/ 소마 나오코
9. 김일엽(金一葉)의 여성성 고찰
/ 노미림

여 성 연 구

2005년 1호 (통권 68호)

1. 적극적조치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방안: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희
2. 성 인지적 예산의 제도화 필요성과 방안 모색
/ 차인순
3.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 여가만족,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
/ 여호근 · 김대환
4. 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과 재취업효과
/ 김종숙
5. 공 · 사 영역의 변화와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 정책
/ 이재경

여 성 연 구

2005년 2호 (통권 69호)

1. 성별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
/ 박기남
2.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녀 모델 비교
/ 이명신 · 김유순
3. 배우자 살인으로 수감 중인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면책사유와 관련될 심리
특성에 관한 연구
/ 이수정 · 서진환
4.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 홍승아

여 성 연 구

2006년 1호 (통권 70호)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 박수미 · 정기선
2.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 기본 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 성효용
3. 미국의 보육정책: 시장화전략과 잔여적 보육정책
/ 홍승아
4. 자활공동체 유형별 빈곤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 자활공동체가 갖는 대안적 일자리로서의 가능성 탐색
/ 황정임 · 송치선
5. Analysis of Retired Women's Income Source and the Amount of
Income in Korea: Focus on Comparing Voluntary Retirees to
Involuntary Retirees
/ Jikyung Kim

여 성 연 구

2006년 2호 (통권 71호)

1.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의무적 체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 주명희
2. 생존자 치료 관점에서 본 심터 거주 내담자들의 아내 폭력
상담사례 연구
/ 김광은
3. 저소득층 한부모의 자아통제감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김미숙 · 원영희
4.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영옥 · 임희정

여 성 연 구

2007년 1호 (통권 72호)

1.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 박수미
2. 가족 돌봄자의 노인 돌봄노동시간 및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김영란
3.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김성미 · 심인선
4.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문순영
5.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 최금해
6. 공무원의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김금미 · 정해숙 · 정경아
7. 여성공무원 보직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 조경호 · 문미경 · 최문용
8. Married Women's Financial Support to Their Parents
/ Jikyung Kim

여 성 연 구

2007년 2호 (통권 73호)

1. 한국의 적극적조치 제도평가와 개선과제:
기업인터넷 서베이를 활용한 이행도 실증분석
/ 권태희 · 조준모
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여성: 주요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조선주 · 김영옥
3.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계획과 재취업교육 요구분석 연구
/ 김영경
4.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미친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김원홍 · 윤덕경 · 김은경 · 김은수
5.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정당의 공약에서 정책으로
/ 박의경

여 성 연 구

2008년 1호 (통권 74호)

1. 비정규 일자리 결정의 동태성과 성별 비정규직 비중의 격차분석
/ 김우영 · 권현지
2. 기업 특성이 여성 경영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임희정
3.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장서영
4.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김경휘 · 황정임 · 류연규
5. 한국 여성정책 의제의 변화와 확대:
17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김원홍 · 윤덕경 · 최정원
6. 징병제의 여성참여
: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권인숙

여 성 연 구

2008년 2호 (통권 75호)

1.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 김정조 · 최진배 · 김태훈
2.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발전에 관한 소고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선주 · 김영옥
3. 성차에 근거한 여성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비판적 검토
: KJ법과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 신덕상
4. MBTI적용 집단상담이 중년 기혼 여성의 자가지각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신현철 · 심혜숙
5.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
/ 양현아

여 성 연 구

2009년 1호 (통권 76호)

1.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 류연규
2. 기혼여성의 직장·가정균형과 삶의 질의 상호관계
/ 김난주·권태희
3. 한국 비공식노동시장의 여성인적자원 실태분석
/ 권태희·조동훈·조준모
4.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 성인지 예산 분석
/ 양민석·유정미·이재경
5. 성인지 예산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차인순
6. 왜 여성의 주관적 건강이 더 나쁜가?
/ 김승곤
7. 여성의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검증
/ 이지연·김미영
8. 여성 자원봉사자의 대인관계기술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서울특별시 거주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 김동배·엄태영

여 성 연 구

2009년 2호 (통권 77호)

1. 기혼 여성 관리자의 이직의도에 관한 통합적 고찰:
가족상황, 직무상황, 조직 상황을 중심으로
/ 안세연 · 김효선
2. 여성가구주 가구의 항상빈곤화: 추세와 요인
/ 이정아
3. 한국 기업의 성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 여성인력패널자료를 중심으로
/ 성상현 · 이종건
4.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따른 빈곤특성 분석
/ 박재규
5. Feminist Lawmaking On Gender Violence : An Examination
of the US Legislation on Domestic and Global Gender Violence
/ Christine Eun Jung Oh
6. Gender Inequality in Educational Attainment in South Korea,
1950s-1990s
/ Moon-Ju Seong

여 성 연 구

2010년 1호 (통권 78호)

1. 유연근로가 여성 관리자의 직장 - 가정양립에 미치는 효과
/ 권태희
2.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경로가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에 미치는 영향: 학력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장지현 · 김민영 · 장원섭
3.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자 유형 분석
/ 장서영 · 이로미 · 장인자
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유형연구
/ 김희경
5.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이희연 · 박태정
6. 한·일 여성 정치네트워크 비교 고찰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서헌주 · 김경숙 · 송미영

여 성 연 구

2010년 2호 (통권 79호)

1.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재진·김은지
2.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자녀교육태도 비교연구
: 교차거주자의 ‘자문화’와 ‘타문화’ 평가
/ 손승영
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차이에 관한 연구
: 보육시설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 강정은·송다영
4. 젠더의 관점에서 본 농촌의 마을공동체 재구조화의 문제
/ 임춘희·송인하
5. North Korean Gender Roles and Changes in Women
: Under the Military First Politics and the Economic crisis
/ Park Young-Ja

부록 II : 학술지 논문 모집 및 투고 안내

1. 학술지 원고투고 지침

(별표1) 학술지 원고작성 요령

1. 학술지 원고투고 지침

개정 2007. 9. 10 지침 제74호

개정 2008. 4. 23 지침 제7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연구』의 원고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내용)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여성학, 여성정책, 여성문제 또는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에 한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9.10>

제3조(원고접수) ①본 학술지의 출판은 연간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출판 시기는 1호는 6월 30일, 2호는 12월 31일로 한다. 따라서 원고접수는 3월 31일과 9월 30일에 각각 마감한다.

② 원고접수는 개발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원고를 제출할 때는 별지에 다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한다.

1. 제출원고 제목,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처(직장 및 자택 주소, 전화번호), e-mail address나 통신ID, 주요경력사항, 최종학위 대학 및 전공, 주요 연구분야 등

④ 제출원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식에 맞지 않거나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진 원고는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원고작성) ① 학술지 원고작성은 별표1의 학술지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치며, 편집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거나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최종 게재여부와 순서는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조(게재 및 논문 심사료) <삭제 2007.9.10>

제6조(논문발표) ① 최종 게재 원고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공개하며, 학술지에 게재한다.

- ② 전항의 발표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술지 원고작성 요령

□ 원고작성

1. 주요편집기준

- 1) 편집용지 : A4(210×297mm)
용지여백 위쪽/아래쪽 20/15, 머리말/꼬리말 15/15,
왼쪽/오른쪽 30/30
- 2) 폰트 : 한글 신명조체 기준(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3) 단편집 : 1단
- 4) 본문 : 줄간격 160, 혼합 정렬, 글자크기 10pt

2. 참고사항

- 1) 원고는 한글97 버전 이상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활자 10pt, 줄간격 160)한 후 E-Mail 전송 혹은 디스켓과 함께 출력본 1부를 제출한다.
- 2) 논문의 분량은 인쇄쪽수 20쪽(200자 원고지 120매 해당) 이내 (요약, -포함)로 하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 3) 국문 논문의 경우 국·영문으로 된 초록(Abstract)을, 영문 논문의 경우 국·영문으로 된 초록을 첨부하되 분량은 A4 용지단면 1/2 내외로 하고, 각 초록 하단에 8개 이내의 주제어(Keywords)를 발췌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4) 논문제출자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 5) 투고내용은 타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6) 인용문헌 및 참고문헌 작성시 본 학술지 게재양식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심사하지 않고 반환한다.

□ 제목 번호 붙임

1. 원고는 제목, 국문초록, 본문, -, 영문초록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원고는 장, 절 등의 계층 표시어를 쓰지 않고 I, 1, 1), (1), ① 의 순서로 한다.
3. 본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한자와 외래어를 한글 원문 옆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한다.

□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2.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써넣는다. 표와 그림의 제목 표시와 본문에서의 표와 그림의 언급 시에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표3 : 청소년들의 시설이용 빈도
3.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4. 표와 그림에 다양한 도식, 화살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개체를 묶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시킨다.

□ 주, 인용, 인용문헌

참고한 책에 대한 주석은 본문 주로 하며, 단,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를 사용한다. 본문주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 권일 경우(홍길동 외, 2000, p.35)
2. 두 권 이상일 경우(홍길동, 2000, pp.69-75; 김길동, 2000, p.85)
3. 인용책의 저자가 2인 이하인 경우 저자의 이름을 모두 명기(홍길동과 김길동, 2000, p.26)
4. 3인 이상인 경우는 ‘○○○ 외’ 라고 명기(홍길동 외, 2000: 30-45)
5. 동일저자가 동일년도에 발행한 책인 경우 연도 뒤에 a, b, c... 등 알파벳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홍길동 외, 2000a: 89), (홍길동 외, 2000b: 54)

* 외국인 이름을 인용하는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름이 처음 나올 때는 ()를 한 후 괄호 안에 원어 전체 이름을 명기한다. 하트(Hart, R. A.)는...

□ 참고문헌작성

1. 논문의 말미에 참고문헌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한다.
 2. 참고문헌은 한국어, 동양어(일본어, 중국어 등), 서양어 순으로 하되 저자 각 언어별 알파벳 순위로 나열한다.
 3. 참고문헌 작성양식은 APA(미국심리학회) 양식에 따른다.
- 예) 차○○(2000). 한국의 여성정책. 서울: 양서원
- 예) 강○○·박○○(2000). 대졸여성 실업의 현황과 대책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예) 이○○(1995). 한국 여성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예) 이○○(2001). 근대여성교육과 ‘교육받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화 담론, 한국교육, 제28권 제2호, pp.1-28
- 예) ○○○(2000). 고등학생으로 살아남기.
http://www.cyberyouth.org(2000.7.30).
- 예) ○○신문 2000. 7. 6일자 4면(종합) 기사: 세대별 성의식 변환.
- 예) 여성가족부(2004). 2004년 여성백서.
- 예) _____(2006). 2006년 연차보고서.
- 예) 文部省(1996). 教育指標の國際比較. 東京: 文部省.
- 예) Hart, R. J.(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예) Evans, G. and Poole, M. (1991). *Young adults: Self-perceptions and life contexts*. London: The Falmer Press.
- 예) Willis, P., Jones, S., Cannan, J. and Hurd, G.(1990). *Common culture: Symbolic work at play in the everyday cultures of the*

young. Boulder, Colo: WestviewPress.

예) Strong, D. L.(1988).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youth crime and violence onpopulation projections and the job pool*. Unpublished doct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예) Neiger, B. 1. & Hpokins, R. W.(1988). Adolesscent suicide: Character trats of Night-risk teenagers, *Adolesscence*, Vol.23, 469-475

2010년 2호

(통권 79호)

여 성 연 구

편 집 인 김 태 현

등 록 일 1983년 11월 23일

등록번호 바-813

발 행 일 2010년 12월 31일

발 행 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2-707)서울 은평구 진흥로 276

(불광동 1-363)

은평우체국 사서함 156호

TEL. 02-3156-7000(代) FAX. 02-3156-7007

인 쇄 처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TEL. 02-2272-0307)

